



6

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7. 6호

(루게 596)



◆◆◆◆◆◆◆◆◆◆ 차 례 ◆◆◆◆◆◆◆◆◆◆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 빛나게 형상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4
가림천	8
풀밭	8
배는 달리고 섬은 멀어지고	9
가신 길은 오신 길	10
가을	11
맑은 하늘아래에서	21
아버이 그 사랑은 아이들의 궁전에도	28
신심 드높이 나아가자	30
불멸의 화불	31
수령님을 받드는데서는 자신도 전사라 하시며	33
근로하는 인민들을 문학창작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며	35
한정의 경기관총앞에서	37
그리운 마음속에 (외 1 편)	38
미래에 대한 사랑	38
날마다 이런 아침에	39
백두산장수봉에 광명성 솟았다	40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	42
마중하는 땅	43
백두산장군의 위대한 력사앞에 드리는 열정의 송가	45
찬란하여라 조선의 미래	51

뜨거운 봄	52
량심에 묻는 말 (외 1 편)	55
강물은 땅보다 낮은데서 흐른다	55
고향을 이야기할 때	56
설레이는 숲	62
우편통은 비여있지 않다	62
시인의 심장	63
립상화탑에 올라	65
고향집 문앞에서	66
해바라기	67
나의 새 이름	73
푸른 봄비	73
인물의 성격형상에서 랑만성구현을 두고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77
고백	79
나는 로동자	79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 빛나게 형상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유춘희

오늘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식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역사적인 보천보전투 승리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30년대 후반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판도를 국내깊이로 확대하여 조선혁명을 양양시키기 위하여 193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를 승리로 이끄시였다.

당시 《내선일체》, 《동조동군》을 요란스럽게 떠드는 일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땅에는 일찌기 볼수 없었던 민족수난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그러나 그 암담한 세월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르며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항일무장투쟁사에 있어서 보천보전투는 망국사의 흐름을 해방으로 돌려세운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었다.

역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60돐을 맞는 우리 작가들은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비쳐준 뜻깊은 이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더욱 훌륭하게 창작해낼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우리 문학예술에 있어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지상의 과업이다.

수령형상창조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우리 문학예술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수령님께서 이룩

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조미의 문제이며 가장 숭고한 임무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우리 인민을 세기적인 변혁과 끝없는 행복으로 이끌어오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인류해방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우리 문학예술은 장구한 기간 지하혁명투쟁과 두차례의 혁명전쟁,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건설사업,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빛나게 령도하여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문학예술은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길이 전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아들딸들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시고 일제와의 간고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시여 조국해방의 대업을 성취하시였으며 그 과정에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또한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과 인민정권 및 대중단체 건설, 혁명무력건설, 통일전선운동, 문화건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우리 작가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수령형상문학예술작품이 노는 역할과도 관련된다.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기본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도록 하는것이다.

수령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은 구체적인 예술적 화폭으로 수령의 비범한 풍모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수령관을 토틈 세우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도덕화, 양심화, 생활화해나가도록 한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의 생동한 화폭속에서 사람들은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하늘이 내신 결출한 위인이시며 고귀한 혁명업적을 이룩하신 전무후무한 인민의 수령이심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특히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고난의 행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은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정신, 붉은기사상을 따라배워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게 하며 그 어떤 폭풍이 휘몰아친대도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게 한다.

우리 작가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해야 하는것은 또한 우리 인민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신뢰, 그리움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뛰어난 업적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신다. 정녕 우리 수령님과 같이 당대에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령도자는 동서고금에 없었다.

하기에 일제의 발굽밑에서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살아가던 그 암담한 시기에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끝없는 사랑과 은정속에 살아오면서 더욱 열렬하고 뜨거워진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감정은 수령님을 잃은 오늘에 와서 더욱더 절절해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수령님 생존시에는 미처 다 느끼지못했던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욱 깊이 절감하면서 문학예술의 생동한 화폭속에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어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인민의 이러한 지향을 담아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위대한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항일혁명투쟁시기편)중 장편소설 15편을 비롯하여 여러 형태의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빛내이면서 수령형상창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부문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토틈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크지만 조금도 자만할 근거가 없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아직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다.

더우기 우리 문학앞에는 수령님의 회고록과 새로 발굴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쓰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이다.

검허하신 필치로 씌여진 회고록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가 그대로 방불하게 그려지였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회고록을 통한 수령님의 혁명활동 력사와 업적을 누구보다 깊이 학습하고 그에 기초하여 창작적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령도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항일혁명투쟁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숭고한 혁명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었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체적인 혁명로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리론,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는 무장투쟁리론, 반제민족통일전선에 관한 리론, 당건설과 인민정권건설에 관한 리론을 비롯

한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투쟁경험들은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우리 문학예술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적공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색의 세계를 심오하게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

수령의 사색은 평범한 인간들의 사색이 아니다.

수령의 사색은 위대한 사상이 창시되고 그것을 구현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이 탐구되는 위대한 창조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수령의 사색의 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위대한 사상리론가, 군사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부각할수 있다.

작가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항일혁명투쟁시기편) 창작경험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색의 세계, 그 실천과정을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작가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정확히 반영하여 위대한 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혁명적품모를 력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령도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령활무쌍한 유격전법으로 일제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수령님의 빛나는 군사정치활동에서의 업적을 생동하게 그리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시면서 강애하는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는 무장투쟁으로써 일제의 백만대군을 타승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독창적인 군사전략과 령활한 유격전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수적 및 군사기술적 우세를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전략전술적 우세로 격파할데 대한 주체적인 군사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무장투쟁의 전과정에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유격전의 새로운 전술적 원칙과 전법들을 제시하시고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서시여 대담무쌍한 령군술로 어려운 작전과 전투들을 조직지휘하시였다.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수적 및 무장장비에 있어서 비할바없이 우세한 일제와의 싸움에서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백전백승하여 적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안겨주었다.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 동녕현성진공전투,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 무산지구전투 등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진행된 크고작은 수많은 전투들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뛰어난 군사지략과 독창적인 군사전법, 대담한 작전지휘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미전에 나온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압록강》은 《대통령감》의 《조국진군기》를 통하여 보천보전투의 구체적인 작전과 행군로정, 조국땅을 밟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정신세계와 대원들의 사상감정을 섬세하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투가 직접 진행되는 장면에 대한 묘사에서는 대원들의 구체적인 전투행동과 신호총을 드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감회깊은 추억의 세계, 화광이 충천하는 보천보시가지에서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반일성전으로 힘차게 부르시는 수령님의 열정에 넘치신 모습, 유격대원들과 인민들과의 친근한 혈연적관계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뛰어난 군사지략과 령활무쌍한 령군술, 고매한 품모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이 귀중한 창작경험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하여야 하며 전투를 묘사하는 경우에도 전투실무에만 빠지지 말고 전투를 구상하시고 지휘하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심리세계, 대원들과 지휘관들의 관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보여주어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령도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데서 장구한 혁명력사를 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로 수놓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천품이며 수령님의 혁명투쟁력사는 인민들과 동지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사랑의 력사, 동지애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공산주의적인간성은 참다운 동지애에 바탕을 두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동지가 많은것을 가장 큰 재부로, 동지들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며 혁명투쟁기간 혁명적동지애의 기장 아름다운 력사를 수놓아오시였다.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자라나고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굳게 단합된 항일무장대오에 의해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이 성취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작품에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관계는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바탕으로 하여 형상되어야 한다.

인간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을 잘 형상하려면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인간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한다면 모든 인간관계와 생활에서 공식적인 인물로 설정되고 추상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위대한 인간을 인간애가 흘러넘치는 산 인간으로 형상하지 못하고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은 수령님의 혁명적품모와 혁명활동을 기정사실화하여 보여주거나 격식과 틀에 맞추어 그려낼것이 아니라 인정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의 품은 만사람을 뜨겁게 안아주는 한량없이 넓은 품이다. 수령님께서는 비록 자산계급출신이라 하여도 반일감정을 조금이라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 깨우치고 믿어주시며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시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이끌어주시고 조국광복회를 조직하시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민족해방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깊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간사랑의 력사는 그 어느 한 시기, 어느 한때의 생활에 머무른것이 아니라

장구한 투쟁의 전로정에 꽃피고 흘러온 끝없는것이다. 때문에 작품에서는 위대한 사랑이 작품전반에 짙게 차넘치게 형상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창작한 수령형상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전사들과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의 감명깊은 이야기를 어느 한 세부나 생활단면에서만 보여준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로 일관시켜나감으로써 수령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고있다. 또한 수령님의 장구한 혁명력사, 불멸의혁명업적은 인간에 대한 은정깊은 사랑의 력사, 인민을 위한 숭고한 위업이라는것을 예술적형상으로 생동하게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과 군사정치활동에서의 빛나는 업적, 간고한 무장투쟁의 나날에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력사로 수놓아진 숭고한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 불멸의 업적을 보다 더 훌륭하게 형상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새로운 사색과 탐구를 더 심화시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에 완전히 정통하여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수령형상작품을 더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하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가림천

리찬영

짙광이 덩불속에
잔돌을 굴리며
흘러가던 네 물결우엔
찌프린 하늘이 겨우 흔들릴뿐
네 이름 아는지 몇이 있느냐

두메에도 깊은 골에
소리없이 흘렀으니
네 이름 그 누가 알바 있었으리
북간도로 건너가던 류랑민들이
저녁 불연기 피우며
조용히 네 이름 외웠을뿐

밝은 날 모르고 흘러가던 천년세월
덧없이 사그러져가던 네 이름
뜨겁게 불려주신분 계셨나니
김일성장군님 작전도 펼치시고
네우에 붉은화살표 그으시며
보천보전투 그날 그밤엔
손수 징검다리 건너지며
처음 네 이름 세상에 알렸다
—동두들, 가림천이요

아, 가림천
그날 그밤에 타오른 보천보해불
물결에 담아신고

흘러흘러 처음 소리치며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사람들 마음속으로 흘러든 가림천이여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흘렀건만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이 물결소리 들으시며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력사의 엄숙한 선언을 믿고
장엄히 흐르는 혁명의 강이라고
네 이름에 높은 뜻 담아주실 때

아 가림천이여
네 이름 인민이 따라와우고
력사의 갈피로 진하게 굽이쳐갔나니

가림천 가림천
실개천 작은 강물을
혁명의 뜻으로 물결치게 해주신
아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그 크나큰 위업을 안고
력사의 천대만대로 이어진
가림천이여!

풀밭

최덕종

하루일을 마친 조사공처녀들
구내공원 잔디밭에 앉아 노래부를 때면
못잊을 추억을 안고 승엄히 떠올라라
전후의 무더운 여름날
아버이수령님 모셨던 그날의 풀밭이

공장은 재더미속에 굴뚝만 솟아있는데
구내에 무성한 잡초를 헤치시고 찾아오시여
전후복구방향을 휘황히 밝혀주시며
허물없이 풀밭에 앉으셨던 수령님

떠올라라 이렇게 앉으셨던 만주광야의 수림
최전선 전후가의 초연서린 풀밭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자주 앉으셨던 발머리

침략자 미제를 때려부시고
천리 먼길을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방석 하나 변변히 깔아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에
우리모두 안타까와 어쩔줄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 헤아리신 수령님
공장을 복구하고 비단방석에도 앉자 하시며
오히려 햇빛같이 환한 미소로
우리의 마음속 그늘마저 가져주셨어라

세월은 흘러
그날의 그 잔디는
마흔번도 더 푸르렀건만
그 푸르름속에 더욱 우렁이 어려오는
아버이수령님의 못잊을 그 미소

해마다 계획을 넘쳐한
그 천필들을
마음의 방식으로 엮으며
그날에 앉으셨던 그 잔디위에 깔아드렸건만

언제 한번
그 방석우엔 앉으신 일 없이
힘찬 령을 넘으시고
미끄러운 논뚝길을 걸으시며
조국의 부강을 위해
인민이 앉는 소박한 자리에 앉으시고
인민이 걷는 길을 걸으시며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우리 아버지

그날의 그 풀밭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더 못잊는 우리 수령님

그래서 더 그리워지는 우리 수령님
아침 저녁 그 풀밭을 지나며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운 수령님을 모시고
있었는가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한생을 총화해보는 방직공들의 마음

다하지 못한 그 충성으로 하여
자책으로 얼굴을 붉히며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수령님 유훈을 꽃피워갈
맹세로 뜨거운 풀밭이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수령님의 숨결로 이 가슴 더웁히는
사랑의 풀밭이여!

배는 달리고 섬은 멀어지고

리연희

초도의 산봉우리도
병사들 함성도
키높은 파도에 파도소리에
멀리 아득해졌는데

무엇을 기다리시는듯
갑판우에 그대로 서계시던 장군님
문득 눈길을 드시며 바라보시는 저 멀리
평화로이 평화로이 안겨드는
서해의 작은 등대섬

이미 장군님은 알고계셨다
하나의 새 생명을 위해
직승기를 띄워보내신 이 섬
한 아이를 위해 보육원도 보내시고
또 교양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제는 학교선생들을 보내준...

오늘은 보고싶으셨다
그 아이의 얼굴을
어느덧 소년으로 자랐을
그 애의 키를 보고싶으시었다

그러나 섬바위우엔
출렁이는 물결뿐
먼 눈길로 더듬으신다
눈부시게 하얀 회백아래

그 어느 창문을
그 창아래 턱을 고인
소년의 까만 눈을 찾으실듯

배는 달리고
섬은 멀어지고
장군님은 바라보신다
소년의 눈동자인듯 반짝이는 창문
꿈에 뛰노는 소년의 가슴인듯 쉽없는 바다

이때 어느 바위틈에선가
죽지를 털며 퍼덕여오르는 어린 갈매기
장군님 바라보신다
키돋움하며 자라는 아이
저 등대처럼 멀리 더 멀리
래일을 보고싶어하는 아이

배는 달리고
섬은 멀어지고
창공으로 나래쳐오르는 소년의 꿈
어린 그 눈빛 소중히 안으시고

천리 또 천리
장군님 이어가신다
전선으로 전선으로
조국의 미래를 안으시고

가신 길은 오신 길

김광춘

그때는 바로 그때는
검덕의 20리 막장에서 나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평양으로 - 평양으로 -
쾌속으로 달리는 차안에 계시었다

언제나 다심하신 그이
못잊어 금팔의 광부들을 못잊어
아직도 그 막장길을 걸으시는듯
미더운 광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듯
룡양의 일군들과 담화도 하시며
차창에 따라서는 산발들을 점도록 보시는데

아 그 산발에 이어 안겨드는
흰산발 산발들
수령님 사랑하시는 미더운 광부들
여기에도 있지 않는가
백금산, 백금산

그이를 모신 렬차는
벌써 룡양땅을 지나서 달리고
그이를 따라선 백금산의 일군들
되돌아 갈길은 비에 젖어 멀어만지는데
부관도 수원들도 알수 없었다
그이께서 달리는 렬차를 되돌려 세우실줄을

- 동무들! 우리 길이 바쁘더라도
룡양의 일군들을 데려다주고 갑시다!

선언같은 그이의 말씀 따라
달리는 궤도우에 새 구간 열리는듯

그이를 모신 렬차는 다시
뒤로! 뒤로! 가고있었거니

아, 그 길은
가고오는 렬차들
다님시간
다님표에도 없었던 길

허나 인민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차있는
위대한 그이의 세계
그 세계로 인민행렬차를 몰아가시는
그이의 시간은
그날도 정시였다

철길이 생겨
아직은 없는 일이었지만
룡양의 광부들을 싣고
뒤로 움직인 그 사랑의 궤도는
지평선 아득한 포전길에도
어촌마을 포구에도
앞으로 곧추 뻗어있었거니

오, 사랑을 안고 오시여
행복을 주고 가시는 길
가시는 길 자욱자욱에
더 큰 사랑이 실리여
인민의 마음속에 안겨지는 길
그이 가시는 길은 언제나
더 가까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여라

가을

장동일

1

하늘은 푸르다.

해빛도 따사로웠다.

이해 가을의 하늘은 레년에 없이 높고 넓어보였다. 그 맑고 푸른 하늘아래에 시누렇게 익어가는 논벼와 강냉이밭이 눈뿌리가 시도록 이득히 펼쳐져있었다.

아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한시간나마 강냉이밭머리에 서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오사리를 벗겨서 랑손에 갈라드신 두이삭의 묵직한 강냉이를 다시금 번갈아 굽어보시였다. 방금전에 밭머리에서 손수 따내신 이삭들이였다.

대풍이 든 전야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계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가 흘러넘치시였다. 그이께서 쓰신 전이 넓은 중절모와 연회색 봄가을외투 그리고 흰점이 다문다문 박힌 넥타이의 색깔마저 더 부드럽고 밝아보였다.

《좋—구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기쁨에 겨워 경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른쪽의 강냉이이삭을 높이 쳐드시였다.

《만점짜리 농사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소.

어디 관리위원장동무가 농사경험을 한번 말해 보라구.》

아버이수령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보내시자 관리위원장 차상근은 펼쳐들었던 사업수첩을 가슴앞에 모두어쨌 채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그러나 선뜻 대답은 드리지 못하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정중히 대답을 드렸다. 《수령님, 저희들은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지었을뿐입니다.》

《그렇다… 사시장철 비바람을 맞으며 많은 일을 하였겠는데 대답이 너무 짧구만. 난 그런 대답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고 그이께서는 입을 꼭 다무시며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어보였으나 자애로운 미소는 그냥 흘러넘치고있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여기 왕재산협동동장 강냉이가 정보당 11톤 200이라구 했는데 와보니 그보다 훨씬 더 낱것 같구만! 관리위원장동무 생각엔 어떻소.》

차상근은 머리를 수긏하고 곰곰히 타산해보고 나서 침착하게 대답을 드렸다.

《수령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수확고의 보고자료입니다. 이제 탈곡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때까지 짐승들의 피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정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당 11톤 정도 낱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솔직하고 책임적인 대답에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크게 머리를 끄덕여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차상근을 보고 물으시였다.

《관리위원장동무, 지금 나이가 몇이요?》

《마흔여덟입니다.》

《관리위원장사업은 몇살부터 하였소?》

《…서른한살부터 하였습니다.》

《서른한살부터라… 벌써 열다섯해가 넘었구만.》 하시며 그이께서는 흰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한 차상근의 약간 굵실굵실한 머리카락이며 사업수첩을 펼쳐든 커다란 손을 유심히 지켜보시였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겠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왕재산 기슭에 조화를 이루며 규모있게 줄지어 늘어선 높고낮은 문화주택이며 현대적미감에 맞게 날아갈듯이 지은 유치원과 탁아소, 번듯한 학교와 병원이며 규격화된 포전과 그 한옆에 자리잡은 기다란 차고건물, 거기에 꼭 들어찬 자동차와 트랙토르를 바라보시고 나서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대단해! 관리위원장동무는 전투력이 강한 리더를 거느린 리더장과 같소. 동무야말로 고향과 함께 자라난 진짜배기 실농군이며 관리일군이요.》

차상근은 송구스러워지는 마음을 안고 서있다가 절절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수령님, 제가 오늘과 같이 이처럼 현대적설비를 갖춘 농장의 관리일군으로 일할수 있게 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저를 믿어주시구 손잡아 이끌어주시였기때문입니다.》

《옳게 말했소. 김정일동지의 손길이 있어 동무는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관리위원장의 전형으로 성장할수 있었구 또 이렇게 풍년이 들게 된것이 지.》

그이께서는 수원들을 돌아보시였다.

《동무들, 나는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며 비단옷에 기와집에서 살게 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었소… 내 팔십평생의 피곤이 오늘 여기서 다 풀리는것 같소. 관리위원장동무랑 나를 많이 도와주었소.》

《!…》

차상근은 솟구쳐오르는 격정에 목이 메였다.

이 북부지대의 농사에서 변혁을 가져오려고 그토록 애를 쓰신분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이 아니신가. 이 나라의 최북단이며 국경지대인 선봉

지구엔 군을 단위로 한 전민소유의 종합농장을 창설하여 주시려고 몸소 진펄에 빠진 차를 미시며 과도포말이 흘날리는 우암의 바다기슭까지 인민들을 찾아가신 그날부터 이름없는 간이역에 세워놓은 열차에서 밤을 지새우시면서 두만강류역의 불무지에 력사의 자욱을 남기신 그 수천수백리의 고심참담한 로고에 대하여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북부내륙지방에서는 어떤 종자를 심어야 추위에 견디어내며 력상모는 어느날, 어느날에 하는것이 좋고 이삭비료는 어떤것들을 주어야 한다는것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주시었으니 어찌 땅인들 그 로고를 모르랴. 하여 올해같은 대풍을 가져왔는데 오늘 또다시 팔순을 넘기신 고령에 2천500리 먼길을 오시여 것처럼 만족해하시며 그 수고를 일군들에게 다 돌려주시는것이 아닌가. 한 수행일군이 아버지수령님앞에 나섰다.

《수령님, 예정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가벼이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일군들은 모두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무려 두시간이나 이 발머리에 서계시었던것이다. 이제는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

차상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머리우에서 뜨거운 빛을 내리비치던 한낮의 태양도 이제는 왕재산혁명박물관이 자리잡은 장복산봉우리의 서편하늘가로 뉘엿뉘엿 기울어져가고 있었다. 8월도 다 저물어가는 북부내륙지방의 마가울이여서 벌써 선기가 느껴진다.

벌써 시간은 퍼그나 흘렀지만 차상근은 아버지수령님께 농장의 가을을 더 보여드리고싶었다. 력상모판의 부식토와 울바자준비를 잘해놓고 벼씨뿌리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아글타글 노력하여 논벼 정보당 11톤 이상의 소출을 낸 3작업반 1분조 포전이며 수령님께서 친히 이룩지어주신 《온성-1호》 콩밭도 보여드리고싶었다. 수령님께서 흥미있는 품종이라고 깊은 관심을 두시었던 키낮은 수수밭에도 대풍이 들었다. 어찌 그뿐이라. 수령님께서 비배관리를 잘하라고 가르쳐주신 배밭과 백살구밭에도 아지가 휘도록 열매가 주렁졌었는데 정히 보관해둔 그 열매도 보여드리고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을 이이상 발머리에 모실수 없지 않는가, 팔십고령의 수령님이 아니신가.

그러니 인생에서 쉽게 차례지지 않는 영광의 시간이 끝나가고있는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을 배래드려야 할 시각이 왔다. 그러자 서운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마음을 다잡는데도 아버지수령님을 오래도록 이 들판에 모시고 싶은 진심은 감출수 없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말썽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락조의 붉은 빛발속에 더 눈부신 풍년들판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썽하시였다.

《부총리동무, 이 들판이 내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구만!… 여기에 김정일동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소… 내 아무래두 여기를 떠나지 못할것 같소. 마음갈아서는 오늘밤 이 발머리에다 모포나 한장 깔고 만시름을 놓고 폭 자고싶소.》

《!!…》

차상근은 갑자기 솟구쳐오르는 걱정엔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다. 코허리가 시큰거리더니 벌써 눈시울이 축축해났다.

이 땅에 풍년이 들기를 얼마나 바라시였으면 발머리에서 만시름을 놓고 쉬면 좋겠다고 하시겠는가.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발머리에서 얼마간 떨어진 큰길옆의 1동 3세대 3층살림집을 유심히 쳐다보시였다.

《관리위원장동무, 저 살림집에서는 누구네가 살고있소?》

《예, 1층에는 논물관리공아바이네가 살고 2층에서는 제가 삽니다. 그리고 3층에서는 남새분조에서 일하는 신혼부부가 살고있습니다.》

차상근은 층마다 손을 들어 가리켜보이며 대답을 드렸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살림집에서 여전히 시선을 떼지 않으채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저 집이 김정일동지가 돌아본 집이 아니요?》

《수령님!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의 어머니를 만나시고…》

차상근은 여기서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차상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시고나서 말썽하시였다.

《내가 평양에서 떠나올 때 김정일동지한테서 살림집 돌아본 얘기랑 다 들었소… 내 그럼 오늘 관리위원장동무네 집에서 하루밤 쉬겠소. 이따금 로대에 나가서 풍년들판도 바라보고 낱알익는 구수한 냄새도 맡으면서 말이요. 부총리동무, 그렇게 합시다.》

《!!…》

《!!…》

이제는 왕재산마루에 펼쳐졌던 저녁노을도 사라지고 들판에는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 눈부신 형광등불빛이 흐르는데 이따금 아버지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과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나왔다. 저녁식사시간도 잊으신것 같다.

차상근은 자기 집앞에 서있었다. 그렇게 서있어야 수령님께서 만시름을 놓으시고 더 편안히 주무실것만 같았다.

2작업반 콩밭쪽에서 썩이 나래를 퍼덕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다음은 다시 조용해졌다. 료전기재들의 움직임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웃고 떠드

는 사람도 없었다. 차상근자신이 마을의 모든 트랙포르나 농기계들이 나다니지 못하도록 엄하게 지시했던것이다.

차상근의 눈앞에는 해빛질은 미소가 가득어린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이 다시금 어려왔다.

…동무는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관리위원장의 전형으로 성장하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풍이 들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그영상이었다. 그모습과 나란히 또 한분의 영상이 우렁이 떠오른다. 그 영상은 오늘의 이 기쁨을 어버이수령님께 드리시려고 열정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모습이였다.

차상근은 멀리 평양쪽하늘가에 빛나는 성좌를 올려다 보았다. 잊을수 없는 지난날들이 어제런듯 돌이켜졌다.

2

차상근은 요즈음 번거로운 생각을 가슴에 안은 채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나보내었는지 일일이 기억할수가 없었다.

그런속에서도 벌써 5월중순이 다가왔다.

차상근은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와 함께 모내기를 시작하려고 작업반로력조직을 짜고들었다. 그리고 온 작업반포전이 좁다하게 뛰어다니었다. 그러노라면 그 번거로운 생각도 얼마간 잊어버리고 마음도 가벼워지는것이였다.

얼마전에 군안에 살고있는 항일혁명연고자들과 사적일군들에 의하여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대초에 이곳 왕재산일대에 진출하시여 국내 반일혁명조직들을 친히 무어주시고 지도하시였다는 불멸의 혁명사적이 발굴되였다. 그로부터 석달이 남짓했는데 왕재산일대에 대기념비가 세워지기때문에 이 주변의 농장이 없어지리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정말 이 며칠전부터는 온성역두에 여러가지 자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왕재산기슭의 여기저기에 선발대로 온 건설자들의 천막들이 하나 둘 전개되고있었다.

사실 따져놓고보면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할 대기념비건설을 위해 농사도 잘되지 않는 자그마한 농장을 하나 없애버린다고 해서 아쉬울것이란 하나도 없을것이다. 아니 당장 농경지를 내라고 하면 즉시 그대로 집행할 준비가 되어있는 차상근이였다. 농장원들도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었다. 어떤 농장원들은 작업반선전설에 찾아와 자기를 왕재산대기념비건설장에 보내달라고 제기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차상근은 그들을 맞받아 열변을 토했다.

《여보, 생각같아서는 내가 동무보다 먼저 대기념비건설장에 달려가구싶소. 아니 마음은 벌써 거기에 가있소!… 그러나 아직은 우에서 이렇게 할 지시가 없구 동무도 잘 알구있는것처럼 어버

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도를 현지도하실 때 마다 불리한 기후조건을 극복하여 농사를 잘 지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지 않았소. 그러니 그만둘때만 두더라도 우린 제철에 씨앗을 묻어야 하지 않겠소. 아무래도 올해농사가 마지막농사같은데…

그렇수록 더 잘 짓구 그대신 우리 물심량면으로 대기념비건설을 돕구…》

마지막농사라는 말을 하고보니 다시금 마음이 허전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내가 이래서는 안돼. 대기념비건설을 돕자고 말했으면 나부터 실천에 옮겨야지!)

그러던 차상근은 아침에 축산작업반 뒤산에서 늘 보아온 화강석비슷한 돌들에 새삼스레 생각이 미쳤다. 그는 거기서 돌덩어리를 들고 석공들이 자리잡은 천막으로 달려갔다. 여기서 그는 그 화강석비슷한 돌덩어리종류도 이번 건설에 요긴하게 쓰일수 있다는것을 알아냈다.

그러자 그는 당장 오늘부터 점심시간과 밤시간에 그 돌을 실어나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점심상을 물리기바쁘게 제일 든든한 부림소에 멍에를 메워가지고 떠났다.

축산반뒤에서 돌을 싣고 풍인천다리까지는 내리막길이여서 그리 힘들지 않게 왔다.

그런데 심침끌어구지름길에 들어서서 그만 오른쪽 바위가 개울가로 미끄러져내렸다. 위낙 돌을 많이 실은데다 지름길이다보니 길폭이 좁았던것이다. 여차직하면 달구지가 돌을 실은채로 모재비로 자빠질판이다. 차상근은 더 생각할사이 없이 달구지바퀴아래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황소 못지않은 기운으로 용을 쓰며 바퀴를 위로 떠밀었다. 그러나 무거운 돌짐에 눌리운 달구지바퀴는 길우에 오를듯말듯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굴러떨어지군했다.

바로 이때였다. 산중턱쪽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것같더니 이쪽으로 달려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다급히 들렸다. 그들은 달구지가꺼이에서 떴어섰다. 얼썬거리는 그림자를 보아 세사람인것 같다. 그러나 차상근은 그들을 돌아볼새가 없었다.

《자, 빨리 도와줍시다. 랑쪽바퀴에… 하나— 둘—셋!》

세사람중 한사람이 코투레를 잡으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구령을 내렸다. 때를 같이하여 랑쪽바퀴에 다가붙은 두사람이 안간힘을 쓰며 바퀴를 위로 떠밀었다. 순간 오른쪽바퀴가 허공 들리며 지름길우에 올라섰다.

《아— 됐수다!… 이거 정말 고맙수다. 수고들 했수다!》

차상근이 이제야 허리를 펴면서 세사람을 둘러보았다. 때는 점심시간이여서 한낮의 해빛아래 고마운분들의 모습이 사진처럼 보였다. 까만 색갈의 보통모자에다 역시 같은 색갈의 반외투를

입은분이 방금 소코투레를 잡았던 그분이였다. 이쪽개울가에 내리선 사람은 차상근도 잘 아는 요즈음에 이 근방에 노상 나와 살다싶이한 키가 꺾두룩한 군당선전일군이였고 저쪽 맞은편 바퀴 옆에 서있는 사람은 배가 약간 나온 다부진 체구에 남달리 이마가 벗어진 사람인데 낮이 설었다.

《짐을 실은걸 보니 일욕심이 여간 아니구만!》

반외투를 입은분이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이쪽으로 다가오시였다.

순간 차상근은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한 표정을 포착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진듯싶다.

(...분명 그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다!)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차상근은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수고합니다.》 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달구지바퀴옆에서 어쩔바를 모르고 서성거리고 있는 차상근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진땀이 내배인 차상근의 얼굴을 근심럽게 여겨보시였다.

차상근은 온통 땀투성이가 된 자신을 그제야 감촉하고 뒤통무늬에 찔던 수건을 황황히 꺼내여 얼굴과 목덜미의 땀을 닦았다. 풀어헤쳤던 솜옷 단추도 채우고 옷에 묻은 먼지와 검볼도 털어버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시였다.

《그런데 왜 점심시간에 일을 합니까? 좀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차상근은 선뜻 대답을 못드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요즈음은 락종때가 돼놔서 좀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작업반에서는 점심시간과 밤에 대기념비건설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동무는 여기 건설에 동원된 동무가 아닙니까?》 하시며 그이께서는 두 일군을 돌아보시였다.

그러자 군당선전일군이 그이께로 한걸음 나서며 이 동무가 여기 심청협동농장 작업반장이라고 말씀드렸다.

《아- 그렇습니까. 마침 잘 만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기 농장원을 한동무 만나보려던 참이었는데, 우리 이야기나 좀 나눕시다. 소도 힘겨워하는데 좀 쉬게 하면서말입니다.》

소탈한 음성이지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것일가?)

차상근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가슴에 이런 생각을 안은채 소를 멍에서 빼내여 풀밭에 놓아주었다.

두만강쪽에서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왕채산기슭에는 계절을 딸라 산록이 질여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며 오솔길을 걸어내려가시였다. 그의 바지아래단과 구두에 먼지와 마른 풀잎이 붙어있는 걸 보니 적지않은 시간 산길을 걸으신것이 분명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오솔길이 끝나는 언덕우에서 발걸음을 멈추시였다. 지금은 겨우내 잠자던 잔디풀이 돋기 시작하여 노르끼레하게 보이지만 한여름철에는 새파란 풀밭이 되는 언덕이였다. 이 언덕에서는 심청리마을은 물론 저 건너 풍인탄광의 버럭산이며 서쪽의 두만강기슭으로부터 동쪽 축산반골짜기사이의 크고작은 논밭 지경들 그리고 그 복판을 흘러내리는 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고향을 물으시였다.

차상근은 심청마을이 고향이라고 대답을 드렸다.

《그렇다면 심청마을의 매력과 이 왕채산일대의 토질에 대하여 말해줄수 있겠구만?》

《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차상근은 잠시 호흡을 조절했다. 춥고 바람이 세차고 농사가 안되는 땅과 문명하지 못한 고향마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니 선뜻 입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었다.

《...심청마을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에 주로 남쪽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터를 잡은곳인데 뒤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왕채산이 솟아있고 합치처럼 움푹한데다 맑은 샘이 난다고 해서 그 이름을 심청리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청리를 중심으로 우리 농장 축산반쪽을 장북이라 하고 읍지구쪽을 장남이라고 부릅니다. 장남과 장북지구를 합하여 농장의 경지면적은 약 70여정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물은 거의가 다 강냉이와 콩, 수수입니다. 이 앞에 흐르는 개울은 저 건너 풍인탄광의 뒤산에 수원을 두었다고 하여 풍인천이라 하는데 이 개울을 리용하여 벼농사를 하려고 논을 좀 풀어보았지만 워낙 물량이 적어서 해마다 소출이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논도 강냉이밭으로 전환하고말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심청마을에서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리조말업 정배군들과 그 후손들이 터를 잡았고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인민들이 살 곳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가고 건너오다가 피나리보짐을 풀어놓고 불우한 인생의 고달픈 살림을 펴지 않으면 안되었을 고난의 역사를 되새겨보시는 그이의 얼굴은 어두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높고낮은 지형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펼쳐져있는 포전들을 오래도록 둘러보고나서 차상근에게 언제부터 농장에서 일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차상근은 어째서인지 발치앞을 내려다보고나서야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우리 나라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테제를 받들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진출하였는데 저도 그때부터 농장원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군농업전문학교와 군당학교 6개월반을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머리를 떨구었다.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행운을 얼마나 기원하고있는가, 그들이 꿈에서조차 그리워하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이처럼 몸가까이 만나뵈었다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생각할수록 만민이 흠모하는 위인께 말씀드린 경력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농장원이 된것은 고향땅을 꽃피우려는 아름다운 지향을 간직한 인간들에게서 볼수 있는 미거라고 고무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사색에 잠기시었다가 그때 함께 농장원이 된 동무들이 다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때 모두 열세동무가 심청협동농장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네동무가 읍농장으로 옮겨가고 다섯동무는 저건너 풍인탄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사람이 남아있을뿐입니다.》

그다음은 더 말끝을 잊지 못하였다. 이제는 심청농장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철수하게 되는지? 올해에 마지막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짓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물음만 머리속에 감돌뿐이었다.

《작업반장동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시며 차상근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었다. 《우리 그 동무들이 다 심청농장으로 돌아오게 하시다.》

《?!…》

차상근은 일순간 호흡을 멈추며 커진 눈동자로 그이를 우러렸다.

두 일군들도 무엇인가 감촉했는지 서로 마주보았다.

이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는 언덕을 향하여 급히 달려올라오고있었다. 날과람있어보이는 40대의 일군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먼저 그 일군을 알아보시었다.

《부부장동무, 내가 시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시며 그이께서는 미소를 띄우시며 물으시었다.

《그동안 제기된건 없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방금전에 만수대창작사 조각가동무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몹시 반가와하시며 그들을 저녁에 만나보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김책체철소로동계급들이 75일이 걸린다고 하던 3호용광로 대보수를 25일동안에 끝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당이 내놓은 속도전의 방침을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긴 강철로동계급들이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여기 일을 마무리하고 곧 내려가겠다고 하시며 그 일군을 돌려보내시었다.

사회주의대건설로 들끓는 온 나라의 혈맥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는 왕재산 기슭의 자그마한 이 잔디밭언덕우에서 맥박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여기저기 널려있는 심청리의 백여호남짓한 집들과 그 주변의 때기밭들을 다시금 굽어보시더니 이윽고 두 일군을 돌아보시었다.

《그러니까 동무들은 전에 예견했던대로 대기념비를 형성할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마가 벗어진 일군이 대답을 드렸다.

《그렇다면 심청리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두만강건너 대륙쪽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한낮때가 지나면 거의 어김없이 나타나는 북부내륙지방에서 불수 있는 번덕스러운 날씨다.

지금까지 골똘한 생각에 잠겨 숨을 죽이고 서있던 그 일군이 드디어 확정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방금전에 이 농장 작업반장동무가 말씀드린것처럼 심청리는 이미전에 조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심청리를 없앤다고 해서 별로 문제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순간 김정일동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었다.

《그럴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마디마디에 힘을 주며 계속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눈보라 사나운 만주광야에서 풍찬로숙하며 싸우신것이 과연 무엇때문이며 삼엄한 두만강국경경비진을 뚫고 여기 왕재산마루에까지 나오시여 활동하신것이 누구를 위해서였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딛고 서있는 조국땅을 되찾기 위해서였고 우리 인민들이 누릴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동안을 두시었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물론 지금은 심청리사람들의 생활이 유족하지 못하고 땅도 기름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생활도 땅도 기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항일유격대군복차림의 어버이수령님 동상을 모시고 대기념비가 서있는 이교장 인민들의 생활은 마땅히 유족해야 하며 땅도 기름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행복한 생활과 풍년든 전야를 언제나 몸가까이 느끼며 서계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지가 빗발치는 그이의 안광에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굽이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외투주머니에 두손을 깊숙이 넣으신채 잔디밭을 굽어보시며 언덕을 거니시였다.

이윽고 사색에서 깨어나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안을 내놓을테니 들어보라고 하시였다.

《내 생각에는 박물관을 도로엮이 아니라 왕재산의 자매봉우리인 저 장복산기슭에 세우고 답사숙영소는 여기에 짓지 말고 읍거리에 짓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매점은 여기에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민들이 여기에 들놀이를 목적으로 오지 않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에는 대기념비가 설 위치의 왼쪽기슭을 바라보시며 아까보다 약간 빠른 말씨로 이으시였다.

《나는 심청마을을 저 산기슭에다 옮길 결심을 하였습니다. 단층주택과 3층으로 된 아파트를 배합한 현대적인 문화농촌마을을 하나 새로 일떠세웁시다. 그러되 마을 이름을 심청리라고 하지 말고 왕재산리로 부르도록 합시다. 왕재산리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청리소재지자리를 포함하여 논으로 풀수 있는 많은 경지면적이 나올것입니다. 이제 곧 대대적인 토지정리공사를 시작합시다. 당중앙에서 도와주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두 일군에게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하라고 하시였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수 있단말인가?

차상근은 그들이 지키고있는 침묵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한없는 흠모와 걱정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대답이 아니겠는가.

차상근은 눈앞이 흐려오고 뜨거운것이 랑볼로 흘러내리는것을 견잡을수가 없었다.

《작업반장동무, 내가 도와줄테니 힘과 용기를 내시오. 인간은 오늘보다 래일을 그려보며 사는 데 생의 보람이 있습니다. 우선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공산대학에도 다녀야 합니다. 지식이 없이는 사색을 할수 없고 사색을 할줄 모르면 일군자격이 없습니다.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말씀을 명심하고 이제부터...》

차상근은 목이 꺾 막히는 순간 머리를 떨구었다.

3

아직은 왕재산마루에 장설이 덮이있는 3월중순이였다.

하지만 왕재산협동농장원들은 포전으로 달려나갔다. 그 맨 앞장에는 언제나 차상근이 서있었다.

그는 씨뿌리기전까지 농장의 모든 력량을 포전정리공사에 동원하였다. 아직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차상근은 지금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후 벌어진 변혁의 들끓는 나날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앉아있을수가 없다. 토지측량대가 구역포전의 범위를 확정하고 도의 강하천사업소가 풍인천상류에 제방을 막는데 또 한쪽에서는 도내시, 군들에서 달려온 토지건설대가 포전지대로 루기작업을 밤낮으로 들이대고... 그런속에서도 금속건설연합기업소와 청진주택건설종합기업소의 기계화부대는 부재와 세멘트까지 싣고 들어와 살림집벽체를 쌓으며 충막을 올리였다. 여기에 중앙과 도의일군들까지 달려나와 웃동을 벗어붙이고 불로코와 기와를 섬겨주지 않았던가...

그러나 할 일은 이제부터이다. 매개 포전들과 필지에 따르는 수평고루기는 아직 절반도 하지 못했다. 새로 찾아낸 땅을 갈아엎어야 하며 지경쪽과 배수로를 완비해놓아야 한다.

자기들의 생애가 흘러갔으며 운명이 얽혀진 고향땅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것은 어디까지나 주인들이 할 일이 아닌가, 더우기 바야흐로 제막을 앞두고 왕재산대기념비의 주변성토작업이 긴장하게 벌어지고있는 때에 불도겔 한대라도 거기에 돌려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농장에는 《승리-58》형 화물자동차 한대, 《천리마》호 트랙토르가 석대뿐이다. 어떻게 짜고들면 이 방대한 작업량을 해제낄것인가?...

차상근은 텅빈 관리위원장사무실에 홀로 앉아 머리를 싸쥐였다.

(관리위원장이라... 내가 과연 관리위원장을 해낼수 있을까?) 하고 그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지난 2월이였다. 차상근은 원산농업대학에 두번째 등교를 갔다오자 왕재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의 중책을 지게 되였다.

그날밤 차상근은 잠들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바람부는 언덕우에 오래도록 서계시면서 아직 가난의 먼지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척박한 불모지를 안고 모태기는 심청마을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으시고 새 마을과 새땅을 안겨주시면서 당중앙에서 도와주겠다고,

신심을 가지고 래일을 내다보며 살아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그 자애로운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리고도 오늘은 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주시지 않았는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그 부드럽고 자애로운 신 영상은 어느덧 엄한 표정으로 우뚝이 눈앞에 떠올라 관리위원장이 그렇게 맥을 놓고 앉아있으면 고향땅의 행복한 생활은 누가 창조하며 땅은 누가 기름지게 만들겠는가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후에 리당비서 강기석이 붉은기발과 구호판들을 안고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구석에다 세워놓고 차상근이 앉아있는 응접탁앞으로 다가와서 마주앉았다. 그도 심청리태생인데 얼마전에 도공산대학을 졸업하고 이곳 왕재산농장리당위원회비서로 되었다.

차상근은 정기도는 눈길로 그를 이윽도록 마주보다가 입을 열었다.

《비서동무! 이제 당장 눈석이가 시작되고 이어 비가 내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비서동무를 기다리며 생각중이었습니다. 나는 청년본조원들과 장정로력들을 데리고 풍인천제방에 올라가 빨리 성토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물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비서동무는 녀성로력과 가두인민반로력, 학교에서 동원된 로력을 가지고 강냉이밭 수평고루기작업을 맡아주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밭술드는 사람은 다 떨쳐나서도록 합시다!》 하고 리당비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강기석이 나가자 구호판들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져있었다.

《항일선렬들이 피로 찾은 고향땅을 지상락원으로 꾸리자!》

차상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심 감탄을 금치 못해했다. 이럴 때마다 그는 어쩌면 강기석과 같은 로숙하고 패기있는 당일군이 나한테로 왔을가 하고 생각해보곤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저절로 대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시면서 동무가 관리위원장의 직분을 맡아안고 힘겨워 한다고, 그를 떠밀어주라고 동무를 제일 잘 아는 경험있는 일군을 보내주시었다.》 라고…

차상근은 이날밤 농장원들과 함께 일터를 떠나지 않고 더운뎃밤을 휘뿌리며 삽질과 곡괭이질을 드세게 해냈다. 손에 연장을 틀어잡고 허리가 늘씬하게 오록을 놀려야 무거운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벌써 새벽이 되었다.

차상근이 허리를 펴고 마을쪽을 내려다보는데 누군가 새벽안개속을 헤엄치듯 두손을 휘저으며 이쪽을 향해 달려올라오고있었다.

(저게 누굴까? 왜 저렇게 바빠 달려올까?)

차상근은 눈을 비비고 달려오는 사람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강기석이었다. 여기까지 달려온 그의 얼굴은 습기와 먼지로 얼룩져있었다.

그는 턱에 닿은 숨을 입으로 내뿜으며 간신히 말했다.

《…관리위원장동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마을에 오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 바로 관리위원장동무의 집을 방문하고계십니다.》

《에-에?!》

《글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많은 트랙토르와 자동차를 친히 가지고 오시였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 듣습니까?》 하고 강기석이 차상근의 팔을 부여잡아 흔들었다.

《왜 그렇게 서고만 있습니까? 자, 빨리 내려갑시다. 어서요!》

그제야 차상근은 급히 마을을 향해 달렸다.

차상근이 큰길에서 마을로 꺾어지는 길목에 이르렀을 때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여러 일군들과 함께 벌써 이쪽으로 걸어나오고 계시었다. 친애하는 그이의 등뒤에 그이를 배려하려 길목까지 따라나온 어머니가 서서 눈굽에 웃고름을 가져가는 것이 보였다. 아마 아침동자질을 하다가 뜻밖에 경애하는 그이를 만나뵈웠는지 한손에는 하얀 앞치마가 쥐여져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차상근은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이를 우러렸다.

그이께서는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차상근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파란색갈로 칠을 먹인 문화주택의 창문들이며 정리되어가는 포전들을 친히 둘러보시고나서 차상근의 얼굴을 다시 여겨보시었다.

《관리위원장동무의 얼굴이 축간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가 경험이 없으나니… 다들 도와주어서 이렇게…》

차상근은 끝내 말끝을 맺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천천히 관리위원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짚으시었다.

관리위원회앞마당에는 여러대의 《승리-58》형자동차들, 수십대에 달하는 《천리마》호, 《풍년》호, 《전진》호 트랙토르들과 그에 따르는 련결차들이 콰 들어차있었다. 그것들은 밝아오는 새벽빛에 붉고 푸른 색깔을 번쩍이며 줄지

어 서있는데 상긋한 칠감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오는 듯 했다.

차상근은 당장 달려가 그 모든 차체들을 일싸 안고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견잡느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을 터치고 야말았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상근을 돌아보시며 이제는 기계화수단도 도착했으니 씨불임전으로 빨리 토지정리를 끝내고 두엄도 실어내자고, 그래서 이제 왕재산농장에 대풍이 들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차상근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용기와 힘이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차상근에게 농업대학에 다니는가고 물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원산농업대학에 작년 8월에 입학하여 지난 1월까지 두번 등교하였습니다.》 차상근이 대답을 드렸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관리위원장사업을 하면서 공부하자니 힘이 들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더더라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사회를 위해 복무합니다.》

그이께서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왕재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동무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수령님께서 농촌기술인재육성문제를 두고 심려하시는 까닭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급히 각 도마다 농업대학을 내오고 교원들이 농장에 이동강의를 내려가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멀리 발머리의 한점을 응시하시면서 기억을 더듬으시다가 차상근에게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그래 그전에 심청리를 떠나갔던 동무들이 몇동무나 돌아왔습니까?》

차상근은 먼저 저쪽 한끝에 나서있는 강기석에게 눈길을 보낸 다음 군당위원회에서 심청마을태생의 경험있는 일군을 보내주었기때문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씀드리고나서 며칠전까지 다섯 동무가 돌아와 자진하여 농산반에서 일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크게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농촌의 핵심진지를 강화하는데 계속 힘을 넣자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시종일관 관심을 두고계시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일군들에게 《진명서숙》야학방과 《농민상조회》집

이 원상대로 꾸려졌다는데 한번 가보자고 하시였다.

그러자 키 큰 온성군당 선전일군이 여기서 그곳까지는 두키로메터가 훨씬 넘기때문에 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차는 필요없습니다. 수령님께서 눈보라치는 겨울밤에도 걸으신 길인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먼저 발걸음을 떼시였다.

그이께서는 30분후에 벌써 《진명서숙》야학방 앞마당에 서계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방금 이은듯이 산뜻한 맛을 주는 초가지붕이며 금시 진흙냄새가 풍기는듯싶은 노란 바람벽이며 그리고 야학생들의 체취가 그대로 배인듯한 구름노전을 깊은 생각에 잠기신채 이윽도록 지켜보시였다.

처마에는 력사의 증견자인양 묵직한 구리종도 매달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친히 구광돌우에 올라서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종끈을 잡으시고 천천히 당기시였다.

한번, 두번, 세번…

그이께서 종끈을 잡아당기실 때마다 쟁쟁한 종소리와 그 메아리가 왕재산일대에 멀리멀리 울려여갔다.

《땡! 땡! 땡!…》

일군들은 모두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근엄한 모습을 우러르며 종소리를 듣고있었다.

차상근의 눈앞에는 종소리를 듣고 야학방으로 모여들고있는 60년전의 더벅머리총각들과 외태머리처녀들의 순박한 모습이 보이는것 같기도 했다. 산을 넘고 또 넘어 날새처럼 푸른 공간에 울려가는 그 종소리는 여기에 공산주의리상촌이 생겨났다고 세상에 알리는 선언같이도 들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옛모습그대로인 《진명서숙》을 다시한번 멀찌감치에서 바라보고 나서 《농민상조회》집으로 향하시였다.

《농민상조회》집은 풍인천기슭으로 약 100여메터 내려가서 동남방향으로 외배로 앉은 《ㄱ》자형의 키낮은 처가집이였다.

친히 연자방아간에 들어가시여 아릅드리 망돌우에 손을 얹으신 그이께서는 반세기토 넘는 때의 사적물이 이처럼 그대로 보존되어있다는것은 이고장인민들이 어제도 오늘도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잊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방금전에 왕재산마을의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를 만나자마자 내 손목을 잡고 우리 수령님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령님께서 건강하시다고 대답해주었습니다. 그제야 그 어머니는 마음을 놓으며 우리 수령님을 부디 잘 모셔달라고 당부하는것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런 인민입니다! 나

는 그 어디에 가나 우리 수령님의 안부를 묻는
인민들을 만나볼 때가 제일 기쁩니다!... 이 집에서
항일유격대에 보낼 원호물자를 마련하면서 밤
새워 축기를 만들던 <농민상조회>회원들도 오직
수령님을 받들어야 내 조국을 찾을수 있다는 신
념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싸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
며 절절한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이민위천>을 좌우
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기때
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수령님의 업적을 꽃피
우는 일에서는 조금도 힘이 들거나 피곤하지 않
습니다.》

그이께서는 《농민상조회》집 마당을 나서시다
가 어째서인지 다시 돌아서시여 집안을 여겨보시
였다. 깊은 사색이 비낀 표정으로 한동안 서계시
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문화예술부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우리가 평양에서 왕재산대기념비를 둘러싼 인
민들의 군상을 제작하는것을 보았는데 매개 인물
들의 의지와 신념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시다. 내
생각에는 조각가동무들이 이 집을 돌아보면서 그
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
로 받들어온 우리 인민들의 강한 의지를 눈앞에
그리며 사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미술가들의 현실체험을
조직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부일군이 대답을 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을 옹위한
인민들의 군상이 예술적으로 성격화되어야 수령
님의 풍모가 더 잘 부각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
면서 큰길우에 올라서시였다.

이때 마침 이글거리는 아침해가 풍인란광의 버
력산우에 서서히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다. 온 누
리가 거대한 붉은 기폭의 장막에 휩싸인듯 아름
답고 숭엄하게 안져왔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바야흐로 완공을 앞둔 왕
재산대기념비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시선을
천천히 마을쪽으로 돌리시였다. 여기서는 왕재산
리의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이며 그 좌우
의 관리위원회와 문화회관이며 지어 매개 문화주
택들의 료곽과 흰 벽체까지도 사진기의 렌즈안에
든것처럼 똑똑히 한눈에 바라보였다. 어느 집에
서 창문을 열어제끼는 순간 번쩍 하고 강렬한 광
선이 불꽃처럼 눈부셨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허리에 랑손을 얹
으시고 오래도록 마을을 바라보시고나서 말씀하
시였다.

《오늘아침에 집들을 돌아보니 집구조도 괜찮고
벽지색갈도 고상해서 평양의 집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대적가구들은 더 갖추
어야 하며 마을뒤에 백살구밭도 빨리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손님들이 와

보아도 손색이 없는 조선의 리상촌을 여기에 꾸
려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차상근과 일군들을 미더웁게 지켜
보시며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어조로 말씀하시였
다.

《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최상의 수준에서
빛내이는것을 신념으로 삼고있습니다!... 나는 왕
재산사람들이 혁명의 성지에 산다는 긍지를 가지
고 이 세상에서 제일 유족하게 살며 농사에서
제일 앞장에 서리라고 믿습니다!》

아침해빛을 담뿍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의 영상은 눈부시였다.

4

달이 솟아오르고있었다.

20여년전의 나날들을 감회속에 돌이켜보는 차
상근의 눈굽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였다.

어슴푸레 바라보이는 《진명서숙》을 둘러싸고
무성하게 자라난 이깔나무우듬지가 푸르스름해
지더니 벌써 배가 부르기 시작한 달이 공중에 등
실렸다.

차상근은 그 달을 보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가슴에 사무쳐왔다. 지금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청사에 계시는지? 아니
면 어느 제철소의 사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지도하
시는지?... 또는 전연의 어느 구분대로 나가셨는
지?

이런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가까이 계
신다면 말씀드릴 이야긴들 얼마나 많으며 그이께
서는 오늘의 왕재산리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두
고 그리고 땅이 꺼지게 잘된 황금열매들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차상근은 집마당쪽에서 나는 인적기에 생각에
서 깨어났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천천히 큰길로 걸어나오고계
시였다. 그이의 뒤에 조금 떨어져서 중앙과 도
일군들이 따라나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달을 쳐다
보시였다.

《달을 보니 팔월추석도 며칠 안남았구만.》

달빛이 어린 그이의 지애로운 영상은 더 환해
보이시였다.

노란 석비레를 짠 큰길이 그이앞에 금빛주단처
럼 펼쳐져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뒤짐을 지고 무엇인가 깊
은 생각에 잠기시여 왕재산대기념비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
께서는 랑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왕재산마루에 높
이 솟아 불타고있는 대기념비의 봉화로부터 가을
바람에 조용히 설레이는 강녕이바다를 거쳐 《진
명서숙》과 《농민상조회》집이 자리잡은 이깔나

무언덕을 감회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한참동안이나 서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잠시후 수행일군들을 돌려보시며 진지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부총리동무, 내 아무래두 이제 곧 평양으로 올라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너무나도 뜻밖이여서 굳어져있는 일군들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마주보시며 응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오늘 지상락원으로 전변된 왕재산리와 대풍이 든 발머리에서 그리고 이 유서깊은 고장에서 사는 근면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김정일동지에 대하여 생각하였소. 그는 잊을수 없는 왕재산대기념비와 함께 오늘의 리상촌을 나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평양에서 2천리도 넘는 이 복변의 한끝으로 여러차례나 다녀갔습니다… 오늘의 풍년든 가을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수고에 의하여 마련된것입니다!》

《!!…》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휘영청 높이 떠있는 달을 행동안 올려다보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제는 자신께서 보시던 당과 국가의 많은 일들을 당중앙위원회 **김정일**동지가 맡아본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렇다고 내가 어찌 편안히 쉴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일**동지는 아마 내가 평양에 도착하면 가서 하루밤이라도 폭 쉬지 않고 왜 올라왔느냐고 말할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그와 함께 있으면서 내 있는 힘껏 그를 돕고 싶습니다. 요즈음 정세는 대단히 긴장합니다. 아마 **김정일**동지는 이밤도 새우고있을것입니다. 그가 녀려됩니다. 그는 조선의 미래이며 운명입니다!… 그래서 내 오늘밤 떠나자는것입니다.》

모든것이 숨을 죽인것만 같았다. 바람결도 간 곳없이 찾아들고 이삭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까딱않고 서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차상근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관리위원장동무, 래년에도 올해처럼 농사를 지을수 있겠지?》

차상근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였다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드렸다.

《수령님! 래년에도 저희들은 정보당 11톤을 기여 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해내겠습니다

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수령님, 꼭 다시 찾아주십시오!!》

《그래그래, 내 래년에도 이 발머리에 오겠소. 이번에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오겠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차상근을 대견스럽게 여겨. 보시다가 그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였다.

그리고 자애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관리위원장동무는 **김정일**동지가 키워낸 능력 있는 일군이요. 그는 오늘 나한테 풍년든 가을과 함께 동무처럼 미더운 일군을 내세워주었소.

관리위원장동무와 같이 끝끝한 일군들이 이 땅을 지키고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풍년가을이 마련될것ियो. 자, 그럼 우리 다시 만나자구.》

《수령님!!…》

차상근은 크고 거울진 두손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손을 잡고 오래오래 흔들었다.

이러는 사이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승용차가 지척에 와 멎어섰다. 그런데 무엇때문인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차에 오르시지 않고 누군가를 찾으시였다.

곧 한 녀성일군이 무슨 귀중한 선물인지 흰 종이에 싸 자그마한 꾸레미를 두손에 받쳐들고 어버이수령님앞으로 걸어왔다. 회색양복을 소박하게 차려입은 그 녀성일군은 여기 왕재산농장에 자주 오군하여 차상근과는 이미 구면인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녀성일군이 받쳐든 종이꾸레미를 헤치시더니 거기서 커다란 강냉이 두이삭을 꺼내드시였다.

(?!…)

차상근은 그제야 그 두이삭의 강냉이가 낮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발머리에서 따내시여 오래동안 보고계시던 바로 그 강냉이이삭이라는것을 알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두이삭의 강냉이를 량손에 갈라드시면서 밝게 미소하시였다.

《관리위원장동무, 내 이 강냉이를 평양에 가지고 올라가서 **김정일**동지한테 보이겠소.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소.》

《…수령님!!…》

차상근은 두손을 짝 마주잡으며 젖은 목소리로 부르짖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드신 강냉이이삭이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있었다.

맑은 하늘아래에서

김진욱

갈림길에서 (1)

비줄기
비줄기

내리다간 멎고
멎었다간 또 내리는
장마철의 지꿨은 비줄기

청청하던 수림도
만발하던 꽃들도
쏟아지는 비물에 지쳐버린
베개봉숙영지에로의 갈림길 어구

그 어구에
명금이 서있어라
파아란 비닐비옷에
빨간 사출장화를 받쳐신고

벌써 며칠째
이른아침부터 그 길목에 나와
언덕아래에서 뻗어오른 길
그 길만을, 그 길만을 바라보는 처녀...

어버이수령님께서 도안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신다는
그 기쁜소식 전해들은 날부터
명금의 가슴은 설레였어라

림산도 공장도 농장도
빠짐없이 지도하고계신다는
수령님의 그 로정
대흥단쪽으로도 정해진것만 같이

하지만 오늘처럼
이런 곳은 날씨에야
흙탕물이 질척이는 이 험한 길에야
어찌 나서실수 있으랴
그래도 명금의 마음은
그이께로만 달리고달리어
이 자리를 비울수 없었다
이런 날이 며칠을 계속된다해도

언덕아래 한끝이
비발속에, 안개속에 묻혀
길은 보이지 않아도
명금의 눈길은 흐려지지 않아라

이런 날, 이런 때에는
이런 비, 이런 안개속에서는
눈보다 빠른것이
눈보다 빠른것이 청각이거니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가
멀리 비발속, 안개속에서
경적소리 울리고 발동소리 울리더니
한대의 승용차가 고속으로 달려와라

두눈이 번쩍 커진 명금이
온몸에 전류라도 미쳐왔는가
높뛰는 가슴 부여안으며
한발자국 길옆으로 비켜서는데
승용차는 쏜살마냥 지나쳐버리어라

그 꼬리를 문
또 한대의 까만 승용차
온 차체에 비물을 들쓰며
앞차를 이어 곧추 달리여라

윙- 귀전만을 울리고
명금의 앞을 스치여
열걸음, 스무걸음... 미끄러져가던 승용차
서서히 멎어서며 문이 열려져라

문이 열리지더니
승용차의 문이 열리지더니
아,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옷몸을 반쯤 밖으로 기울이시고
명금이를 돌아보며 손짓하시여라

마음속 간절히 뵈고싶던 수령님!
명금은 그이께로 달음박질쳐갔으나
목이 메여 인사말을 떼지 못해라
-...어버이수령님!
이런 험한 길을...

-고맙소... 헌데 어째서 동문
길가에서 이 비를 맞고있소?
비물에 함뱍 젖은 명금의 모양을
그이께선 의아히 마주보시여라

-어버이수령님!
베개봉숙영지의 강사 차명금입니다
수령님을 숙영지에 모시고싶은

저희들모두의 소원을 안고...

-오호, 그래서

이 길목을 지켜섰단말이지
처녀의 그 마음 헤아리신 수령님
비발속에 성큼 내려서시는데
앞섰던 승용차도 후진하여 벗어나고
우산을 든 부관이 황급히 다가서라

-베개봉숙영지라...

저 숙영지에 있는 강사동무란말이지
베개봉쪽으로 향하신 그이께서는
질은 비구름에 자욱히 싸인
잊지 못할 산발을 더듬으시여라

베개봉

베개봉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간직한채
얼마나 깊은 추억을 간직한채
비발속, 구름속에 묻혀있는것인가

흐린날, 꽃은날

두터운 구름처럼, 무거운 비발처럼
수령님의 안색도 흐려지시고
수령님의 심중도 가볍지 않으시여라

세월의 락엽속에 싸였던 그 사연
세월의 이끼속에 묻혔던 그 추억
그 사연, 그 추억의 실마리를
마침내 찾으시였는가

-이름이 차명금이라지

성도, 이름도

꼭 같구만...

그때

조국진군대오에는
차명금이라고 부르는
너대원이 있었소

옛너대원의 그 모습을

눈앞에 보시는듯

다시금 명금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는 수령님

-그리구보니

눈도 코도 이마도...

그 너대원을 신통히 닮았구만

미소를 띠우신 수령님의 품에

안기기라도 할듯

북받치는 가슴을 움켜쥐며

한걸음 나선 명금이

-아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 숙영하셨던 그밤으로부터
올해가 꼭 마흔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영지를 더 잘 꾸렸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오시여

기쁨의 한때를 보내주신다면

저희들 소원이 다 풀리겠습니다

-마흔똥이라...

그날, 그밤이 어제같은데...

감회도 깊으시여

환희의 그날을, 걱정 그밤을

눈앞에 그리시는 아버지수령님

한줌의 흙에 눈물을 쏟고

한송이의 꽃에 마음을 실으며

땅위에 덩굴고

향기에 취하던 대원들

푸르른 새싹도, 반짝이는 별빛도

목숨같은것이여서, 넋같은것이여서

그 훈향속에, 그 빛발속에

밤을 새워 새날을 맞이하던 대원들

미풍도 입김같이 파사로워

안개도 비단같이 부드러워

밀림속 드넓은 숙영지를

하나의 집으로 삼던 대원들

조국을 안고, 겨레를 안고

피를 끓이며 지새운 한밤

그 산발에서 눈길 떼지 못하시며

못박혀 서계시던 수령님께서는

명금이에게로 돌아서시여라

역수로 내리는 비줄기속

우산아래에 가까이 이끌어

한품에 뜨거이 안아주시며

그의 젖은 손을 잡아주시여라

-그래, 그 일때문에

이 비를 맞고있단말이지

...동무들의 소원이 그렇다면

내 가보도록 하겠소

날씨가 개인날에 말이요

-아버이수령님 고맙습니다!

...수령님 그 약속을 꼭...

가슴속 모든 소원 다 이룬듯

하늘의 해도 별도 다 안은듯

기쁨에 넘쳐 두발을 구르는 명금이

—찬비를 더 맞지 말구
 어서 가서 몸을 녹이라구
 명금이를 먼저 돌려세우시고서야
 가던 길을 이으시려는듯
 그를 가벼이 떠미시는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바쁘신 길을
 이처럼 지체시킨것이 죄스러운듯
 몇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드린 명금이
 그이앞을 떠나서 갈림길에 들어서라

명금이를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
 다시금 손짓하며 부르시여라
 —강사동무, 이 우산을 쓰구 가라구

그이앞으로 뛰어온 명금이
 비옷이 든든해 아무일 없다고
 그것만은 굳이 사양하고사양하건만
 우산을 돌려주고서야 마음놓으시는 수령님

갈림길에 굳어져 서있는 명금이
 그 우산을, 그 우산을 받쳐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승용차를 바라여라
 비발속, 안개속에 멀리, 저 멀리...

갈림길에서 (2)

맑은 하늘
 맑은 하늘

씻기여
 비물에 씻기여
 푸르른 색마저 씻기여
 하이얀 은빛으로
 한점 구름없이, 티마저 없이
 맑게도 개인 하늘

그 하늘에서
 해발이, 천만가닥 해발이
 오리오리 은실금실을 드리우는
 베개봉숙영지에로의 갈림길어구

명금이 서있어라
 항일유격대의 녀대원인양
 산뜻이 차려입은 보위색군복에
 향기어린 꽃뭉음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기다리던 이날이였던가
 얼마나 바라던 이날이였던가
 하루에도 그 몇번 기상해보시간이면
 하늘을 원망하고 비구름을 저주하며

저 하늘에 몰켜드는 먹장구름을

이 땅우에 쏟아붓는 비줄기를
 말끔히 몰아내고 가셔줄 그런 힘이
 이 세상엔 과연 없는가고

명금의 그 안타까움 헤아려
 명금의 그 간절함에 동하여
 그 어느 하늘끝 먼 공간에서
 그런 힘이 뻗쳐오기 시작하였던가

어제밤 중앙방송이 전해준 기상예보
 북부조선에 머물렀던 저기압이
 멀리 동쪽으로 밀리여가고
 그뒤로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한다는

합숙이 떠들썩했다
 온 밤 떠들썩했다
 —날이 개인데요!
 —래일은 날이 개인데요!

개이는 날이, 개이는 하늘이
 이토록 고마운적 그 언제 있었던가
 개이는 날이, 개이는 하늘이
 이토록 반가운적 그 언제 있었던가

동터오는 려명과 더불어
 타오르는 아침노을과 더불어
 개인날, 개인하늘은
 펼쳐지리...

청신한 수림도 생기 넘친 수림도
 맑은 하늘 향해 머리 든 이 아침
 송이송이 꽃들도, 만발한 꽃들도
 맑은 하늘 향해 웃음 짓는 이 아침

명금의 귀전엔 다시금 울리여라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약속
 ...동무들의 소원이 그렇다면
 내 가보도록 하겠소
 날씨가 개인날에 말이요

날씨가 개인날이
 날씨가 개인날이
 기다리고기다려 이렇게 왔으니
 명금의 가슴 어찌 진정될수 있으랴

하건만 어버이수령님께서
 돌보셔야 할 일 그 얼마이라
 림산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농장으로...
 낮에 밤을 이어가시는 길
 흙탕물이 질척이는 그 험한 길도
 가고가야 하시는 바쁜 로정임에

한날 이름없는 처녀와 하신 약속
그것도 길가에서 한마디 하신 말씀
그것이 정녕 첫차리에 놓이여
그것이 오늘의 일정으로 정해지랴

그래도 어쩐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실것만 같아
기다려지기만 하는 마음

저 멀리 언덕아래
처음에는 실오리마냥 시작되어
점차 넓게 뻗어오른 길
그 길 한끝에
명금의 눈길은 가닿아라

이런날 이런 때는
끝간데 없이 쾌청한 이런 때는
청각보다 빠른것이
청각보다 빠른것이 시각이여라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가
그 길의 아득한 끝에서
점으로 나타난 승용차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와라

두눈이 번쩍 커진 명금이
그 눈정기 더더욱 밝아져라
그것은 분명 낮익은 승용차
수령님을 모시고 말리던 선두차

그 꼬리를 문
또 한대의 까만 승용차
해빛이 달음쳐가 먼저 마중하는가
유리창이 번쩍!

온 차체에 비물을 들뜨던 차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시였던 차
명금은 마주 달려여라
언덕아래에도!...

앞차가 멎고
뒤차가 멎어서더니
가볍게 문이 열리여라

아아, 어버이수령님!
맑은 하늘이런가, 밝은 해빛이런가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띄우시고
길가에 내려서시여라

—어버이수령님!
날씨가 맑게 개었습니다!

목메인 걱정으로 허리굽히고
그이께 꽃뭉음을 드리는 명금이

수령님께서도 기쁘시여 기쁘시여
명금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여라
—얼마나 좋소, 날이 개이니
여기선 이런 날이 쉽지 않아

—수령님의 약속이 계셨으니
하늘인들 어찌 무심하겠습니까
정녕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날입니다

—내 개인날을 약속했으니
오늘은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동무들의 소원을 풀어주자고 하오

—어버이수령님! 고맙습니다!
배개봉은 또다시
력사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자애로운 태양의 미소앞에서
온 세상의 기쁨과 온 세상의 행복을
자기만이 다 받아안고
자기만이 다 누리는것만 같은 명금이

어서 차에 오르라고
함께 나아가며 이야기도 하자고
자리까지 곁에 잡아주시며
명금이를 앉히시는 어버이수령님

...달린다 달린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승용차
갈림길을 지나... 숙영지에도 향한 길
해빛 반짝이는 수림속을 누비며...

웃음꽃 만발하라

흘러내리는 해발
흘러내리는 해발

사령부의 천막우에도
불무지자리에도
오솔길우에도

그 해발속에
마흔해전 그날, 그밤
숙영지의 모습이
환희로이, 환희로이 펼쳐진듯

...
타오르던 우등불
넘치던 춤노래
한껏 달아오른 가슴가슴들

밀림이 떠들썩 마중나올듯

천막가에 서있던 보초병도
오솔길을 달음치던 전령병도
칼장단을 올리던 작식대원도
환호하며 금시 떨쳐나올듯

—조국땅에
혁명의 횃불을 높이 올리자
장군님의 연설을 받아안은 지휘원들
북받치는 격정으로 달려나올듯

정을 안고, 불을 안고
그 가슴가슴을 터치던 한밤
얼마나 뜨거운 력사의 그날이
이 숙영지에 새겨져있는것인가

그날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그려보는 마음이신가
숙영지어구의 넓은 공지를
한걸음두걸음 거니시는 수령님

잊지 못할 숙영지에 오시였던만
그날의 숨결이, 넋이 어려있는
그 모든것을 아니보시고
또다시 추억의 심연을 헤치시여라

어둠을 치태우는 우등불가
열혈의 노래, 락천의 춤가락
그속에 불타는 한송이의 꽃
노래로, 춤으로 인기를 독차지하던
차명금의 모습...

숙영지의 맑은 물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배낭속 쪽거울을 꺼내어들고
군모치장, 군복단장 곱게 하던 처녀

아름다운 그 얼굴을, 빛나는 그 모습을
세상에 영원히 남기고싶은듯
송이송이 진달래를 한가슴 꺾어안고
그리도 절절히 토로하던 처녀

—저의 가슴속 소원은
조국땅 이 숙영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는것입니다

그 목소리
그 목소리
수령님의 귀전을 울리는듯

자옥자옥... 명금의 그 모습을 되새기시며
공지의 한끝으로 걸음 옮기신 수령님
한송이의 나리꽃을 꺾어드시여라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었던만
나는 풀어줄수 없어
약속만을 남기었소

조국이 해방되는 날
제일 선참으로
우리모두 사진을 찍자고

하지만 명금이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채
거치른 이역땅에 묻히었소

세상에 나서 제모습을
사진에 남기고싶은것이
어찌 명금이만이 지닌
가슴속 소원이었겠소

사진 한장 못남긴 대원들의 모습
그들모두를 빠짐없이 되찾아
여기에 불러오고싶으신
아, 수령님의 간절한 마음

그날의 소원우에 마음 쏟으시며
맑은 하늘을 쳐다보시고
맑은 해빛을 아껴받으시여라

—동무들도 이 숙영지에서
그것을 소원하고있을것이요
그래서 내 개인날에 왔소

—!!
순간 명금은
자기의 두귀를 의심하였다
그 말쑥이 너무나도 길고
그 말쑥이 너무나도 놀라운것이어서

허나 그가 어찌
어버이수령님의 말쑥
그 마디마디를
가슴속에 새겨듣지 못하였으랴

(동무들도 이 숙영지에서
그것을 소원하고있을것이요
그래서 내 개인날에 왔소)

다시금, 다시금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쑥
명금의 귀전을 울리었고

명금의 심장을 울리었다

(이 어인 말씀이신가
숙영지에 오신것이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시려는
그 걸음이었단말인가!

그래서, 그래서
흐린날, 꺾은 날은
멀리, 멀리로 밀어보내시고
맑은 하늘과 밝은 햇빛만을
한가득 안고 오시였던말인가!)

개인날 개인날 숙영지의 개인날
이 세상 좋은 날이 많다해도
그이께서 택하여 오신 이날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언제 있을것인가

개인날 개인날 숙영지의 개인날
그 갈림길어구에 서시여
비구름에 싸여있는 베개봉을 바라보시며
날씨가 개인날에 가시겠다면 그 말씀

개인날 개인날 숙영지의 개인날
아버이수령님께서 약속하시던
그 한마디의 말씀속에
그리도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던가

아, 밝고맑은 하늘이여
아, 밝고맑은 햇빛이여
이런 날, 이런 아침을
너는 그래서 펼치었구나!
너는 그래서 밝히었구나!

...갑자기 선풍이 회오리치듯
숙영지가 떠들썩, 밀림이 떠들썩
그이의 곁으로, 그이의 품으로
기꺼이 가까이 모여드는 강사들
가까이 가까이 다가서는 일군들

마흔해전 그날의 숙영지인가
소원하고 소원하던 대원들이나
산뜻한 군복차림의 강사들과 일군들
층층 단우에 줄지어섰어라

꿈이런가, 생시이런가
영광과 행복으로 목메인 가슴들
터치고터치는 걱정과 눈물만이
단에서 단으로 흘러내리는데 -

울면 사진이 잘 안된다고
어서들 눈물을 닦으라고

한손을 들어 달래이시며
모두의 앞자리에 앉으시는 수령님

청신한 밀림과 떨기진 꽃들을
배경으로 펼친 화폭이거니
맑은 하늘이여, 밝은 햇빛이여
여기에 밝고맑은 거울이 되어 비쳐다오!
여기에 밝고맑은 조명이 되어 내려다오!

활짝 웃어라!
활짝 웃어라!
아버이수령님의 즐거우신 미소속에
모두의 웃음, 모두의 웃음이 합쳐지는데
찰각!하고 울리는 샤타소리...

밝고맑은 하늘도
밝고맑은 햇빛도
웃음꽃 웃음꽃 하나같은 웃음꽃들도
순간의 한장면에 다 담기었구나!

아, 화폭이여, 베개봉의 화폭이여
아, 화폭이여, 숙영지의 화폭이여
마흔해전 그날의 대원들의 모습
그 모습까지 다 합쳐진 화폭이여!

이런 화폭이
이런 화폭이
이 세상 그 어느 하늘아래 있었으랴
이 세상 그 어느 햇빛아래 있었으랴

마흔해전 그날의 그 약속을
오늘에 풀어주시여
그들모두에게
맑은 하늘, 밝은 햇빛을 안겨주신 수령님!

베개봉숙영지의 맑은 하늘이여
베개봉숙영지의 밝은 햇빛이여
너는 수령님의 영원한 품으로 펼쳐졌구나!
너는 수령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빛발치는구나!

내리였던 햇빛도
모여왔던 꽃향기도
그자리에 머물러 떠나지 못하는데
그이께선 다시금 공지를 거니시여라

-제일 건디기 어려운것은
너대원들이 그 꽃같은 모습을
한장의 사진에도 남기지 못하고
희생되는것이였소
그런 너대원들이
피를 물고 쓰러질 때
우리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것만 같았소

그들이 세상에 남긴것이란
배낭 하나밖에 없었소
그속에 들어있는것은
조선지도에 무궁화를 수놓은
자그마한 수예품이었소

그 수예품을 시신우에 얹고
거기에 한줌 두줌 흙을 뿌릴 때
그 어느 장사의 손인들 떨리지 않았겠소

자옥자옥... 대원들의 그 모습을 되새기시며
공지의 한끝으로 걸음 옮기신 수령님
또다시 한송이의 나리꽃을 꺾어드시여라

혁명렬사릉을 꾸릴 때
어떤 사람들은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새기자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수가 없었소

세상에 태어나서
한장의 사진도 남기지 못한
항일영웅들의 모습을 재생시켜
후대들과 만나게 해주고싶었소

그리고 그들모두가
지기의 눈으로
그처럼 바라던 혁명의 승리와
인민의 락원을 보게 해주고싶었소

사진이여
사진이여
수령님의 높은 뜻이 담겨진 사진이여!

수령님의 깊은 뜻이 새겨진 사진이여!

그것은
후대들과의 영원한 만남이고
그것은
혁명승리의 최후의 확인이여라

저 멀리 아득한 기슭
불을 안고 일어난 지점
화전이여!
길림이여!
안도여!

그 시절
그 불속에 목숨 바쳐 쓰러진 투사들
후대들과 상봉하고
오늘의 승리를 제눈으로 확인하듯이

저 멀리 아득한 앞길
헤쳐넘어야 할
령마루!
령마루!
령마루!

목숨바쳐 쓰러져도
그 빛나는 령마루우에서
우리 또한 후대들과 상봉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제눈으로 확인하리라!

오오, 한장의 사진이여
간직하리라
영원한 가보로!
밝은 하늘과 같이, 밝은 해빛과 같이...

아버이 그 사랑은 아이들의 궁전에도

일만경치가 록음속에 묻혀 싱싱한 기운이 어려 있는 조국강산.

겹쌓이는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번영할 래일을 위해 신심 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기개처럼 어디서나 활기가 넘쳐나는 좋은 계절이다.

이 나라에 찾아오는 그 어느 계절도 좋지만 랑만과 희열에 넘치고 산천의 푸른 모습에서 풍성할 가을을 련상해보는 여름철은 얼마나 좋은가.

한껏 물이 오른 저 산과 들이 그대로 흐뭇한 열매로 무르익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흥을 안아오리라는 희망이 가슴마다에 부풀어오른다.

6월의 맑은 하늘아래서 휘황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는 우리들이다.

가벼운 훈풍에 열정의 푸른 잎새를 흔드는 가로수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귀전에 어디선가 귀에 익은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세상에 부러운것 없다고 행복에 겨워 노래부르며 렬을 지어가는 아이들에게로 우리의 생각은 미쳐갔다.

한여름이 시작되는 이달이면 우리의 아이들 저렇듯 걱정을 안고 자기들의 명절을 즐긴다.

그렇다. 6월은 우리 아이들의 기쁨속에 뜨겁게 흘러가는 달이다.

국제아동절, 조선소년단창립절

래일을 위한 오늘의 하루하루를 창조와 위훈으로 새겨가는 마음과 마음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축하를 보내는 명절들이다.

아마도 그날들이 있어 즐거움속에 흘러가는 이달이 아닌지.

우리는 끝없이 이어진 아이들의 행렬을 따라 장대재언덕에 이르렀다.

나라의 《왕》들이 푸른꿈을 펼쳐가는 소년궁전의 웅자가 우리를 맞아준다.

드넓은 정문앞에 모셔진 우리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나 어린 소년단원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만을 불태우시며 한평생을 보내신 우리 수령님.

고마운 품속에서 복중의 제일 큰 복만을 차지하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여서 누구나가 그러듯이 자기들의 명절에 친어버이를 찾아뵙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제일 좋은것을 다 어린이들에게 주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우러르노라니 저토록 훌륭한 소년궁전을 아이들에게 지어주시고 세상의 진귀한 모든것을 후대들을 위하여 돌려주시려 마음써오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 로고가 돌이켜진다.

우리 수령님은 고귀한 생애를 고스란히 아이들을 위해 바치시였다.

《미래를 사랑하라!》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함께 얼마나 많은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의 심장속에 간직되어있는가.

《소년궁전》 범상하게 외울수 없는 이 부름에도 만사람의 심장을 뚫게 하는 못잇을 사연이 있다.

나라의 왕들과만 련결되는 궁전이란 말이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불리우게 된데는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정이 깃들어있거니.

감히도 새로운 해방된 새 조국 건설의 나날이였다. 일제가 남겨놓은 락후한 식민지먼지를 털어버리고 빈터우에서 민주건설의 터전을 닦아나가던그때 해야 할 일, 세워야 할 건물은 참으로 많았다. 어느날 나라를 위하여 애국적인 회사금을 많이 낸 기업가, 상인대표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일이 있었다.

건국사업을 위한 많은 자금을 낸 그들을 치하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돈을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고 그들에게 물으시는것이있다.

대표 한사람이 정중히 일어나 장군님께서 필요하신데 써주시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다고 말씀올리였다. 다른 사람들도 한결같이 절대찬성이라고 하면서 장군님의 처분에 맡긴다고 하였다.

그들의 제의를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회사금을 낼 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는데 서슴치 말고 어서 말해보라고 다정히 이리시였다.

좌중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잠시후 회색두루마기를 차려입은 나이지국한 한 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것이였다.

그는 자기 소개를 한 다음 우리 평양에는 명절날에도 장군님을 모실만한 장소 하나 변변한것이 없는데 이 기회에 그런 건물을 짓는것이 소망이라고 말씀올리였다.

순간 모여앉은 사람들은 너나없이 좋은 제의라면서 술렁거려였다. 그들은 한사람같이 그렇게 해주셔야겠다고 기쁨에 겨워 말하는것이였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며 생각을 더듬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믿음어린 시선으로 좌중을 둘러보시며 그런것도 지어야겠지만 그보다 아동궁전을 먼저 짓는것이 어떤가고 하시는것이였다.

대표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아동궁전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았기때문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아동궁전이 어떤것인가를 해설해주시면서 회사금을 거기에 쓰는것이 좋지 않은가고 거듭 물으시는것이였다.

여기저기서 감탄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나라의 임금이 쓴다는 궁전을 아이들을 위해 지어주다니, 그러니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에선 아이들이 왕이란말인가.

너무도 큰 세계에 잠겨들어 놀라움에 경탄하는 그들에게 수령님께서서는 옛날에는 왕이 궁전을 차지하였지만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궁전에 있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훌륭한 궁전을 평양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장대재우에다 짓도록 그자리까지 잡아주시였다.

들을수록 가슴뜨겁게 해주는 소년궁전이 태어난 이야기.

그후에도 설계도면으로부터 내부시공과 갖추어주어야 할 비품, 궁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관심하시며 궁전건설을 위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바치신 심혈의 나날을 어찌 다 꼽을수 있으랴.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 천품이시였던 수령님의 그 은정속에서 저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세워졌다.

아이들에게 제일 좋고 귀한것을 다 안겨주시고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자라는 어린이들을 보시며 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시던 아버지수령님이 아니셨던가.

지금도 우람하게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준공식에 나오시여 붉은 테프를 끊으시며 아이들의 궁전이 또 하나 늘어났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수령님의 그 미소가 비껴던 1989년 5월 2일 우리는 잊지 못하고있다.

그날 일군들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을 지도해주시여 세상에서 으뜸가게 세워진 궁전의 모습이 어린이들을 안아키우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을 형상하고있다는 설명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감회에 잠기시여 뇌이시는것이였다.

《당의 품이란말이지.》

미래를 위하여 투쟁해온 우리 당의 역사를 더듬으시는듯, 조국의 미래를 펼쳐가며 혁명의 진군길을 열어가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투쟁을 생각해보시는듯 당의 품, 당의 품... 그래 당의 품이지하고 몇번을 외우시던 우리 수령님.

궁전을 잘 짓고 형성도안의 이름도 뜻깊게 지었다고 기뻐하시며 수령님께서서는 노래에 있는것처럼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당의 품속에서 세상

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다고 뜨거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또한분의 친아버지로 모시여 영원히 행복하게 자라나게 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따뜻한 축복의 정이 어린 말씀이였다.

정녕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끝없이 행복할 우리 아이들.

한없는 믿음이 담긴 수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안노라면 소년궁전과 더불어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울여오신 그 사랑이 미쳐와 눈물을 머금게 된다.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자랑높이 솟아있는 아이들의 궁전.

거기에는 조국과 혁명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대시며 아이들을 제일로 위해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사려깊은 마음이 깃들어있다.

도소재지마다에 일떠선 학생소년궁전이며 소년회관들과 함께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스며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에 넘친 손길은 지금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걱정을 자아낸다.

1976년 7월 어느날.

삼지연읍을 공산주의 리상촌으로 건설하기 위한 총계획도와 건설전망사판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곳을 새로 꾸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주자고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들은 새로 일떠세울 현대적인 살림집과 문화시설, 학교와 유치원, 상점 등이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것이라고 여기면서 따로 뭇을 생각해보지 못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우리는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먼저 후대들의 행복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일군들을 타이르시였다.

생각에 잠기신듯 조용히 방안을 거니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난날 이고장 사람들과 함께 여기 아이들은 마음껏 웃음꽃도 피워보지 못했다고, 그리니 비록 산골에 있는곳이지만 이제라도 세상에 보란듯이 학생소년궁전을 큼직하게 하나 지워주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후대들의 행복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마음먹고 달라붙어 잘 건설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는것이였다.

그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차례 궁전건설정형을 료해하시며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도록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후대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수많은 선물들을 보내주시였다.

정녕 도처에 세워진 우리 아이들이 배우며 자라는 보금자리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토록 따사로운 해발이 비껴있으니 우리 어찌 아이들의 노래를 무심히 들을수 있으랴.

꿈이 많은 동심의 시절, 자면서도 앞날을 꿈꾼다는 아이들을 두고 부모들은 그 꿈을 실현시켜 주고 싶은 심정으로 마음을 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소원과 희망을 꽃피워주는것이 부모들이 아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품처럼 따뜻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온 나라 아이들모두가 나라의 《왕》으로 받들려 자기들의 봄씨앗같은 꿈을 망울지르고 이 여름철의 나무잎새처럼 푸르게 펼쳐가는것이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아버지를 물으면 **김정일**원수님이라고 소리높이 웨치는것이 아니겠는가.

날이 갈수록 받아안은 행복의 높이가 너무나 커서 그 크기를 다 알지도 못하며 행복이 뿔이나

고 물을 때면 《행복은 우리》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우리 아이들...

참으로 어버이장군님 계시여 행복속에 자라는 우리의 미래는 그들을 모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은 더없이 창창하다.

태어나면 애기궁전에서, 자라나면 소년궁전으로 떠받들어가며 어엿한 역군으로 키워주는 고마운 그 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늘도 전조선에 서계시기에 내 조국의 대들보는 더더욱 굳건히 자랄것이며 내 나라는 영원히 푸르른 이 계절처럼 활력을 안고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로창일

신심 드높이 나아가자

정준기

그때 우리는
죽물로 끼니를 예웠다
여름에는 해가림이나 하던
토굴에서 갓 벗어난 림시주택
겨울에는 빨래가 집안에서 얼었다

그래도 우리는 맥을 놓지 않았다
래일을 믿으며 활기에 넘쳐
한결같이 일떠섰다
신들메를 든듯히 조이고

그때 우리의 일터는
폐허속에 있었다
공장은 파철더미
논밭은 폭탄구덩이 뿐
거리는 무너진 담벽으로 가득찼다

그래도 우리는
비판도 동요도 몰랐다
웅장하게 일떠설
오늘의 내 나라를 내다보았다
가슴에는 더운 피 끓고
랑만에 넘친 노래가 우리의 생활이었다

굴할줄 모르는 투쟁으로 우리는
세계를 놀래운 건설과 부흥의 새 력사
그 창조자가 되지 않았는가
재더미를 털어버리고

일대 번영을 가져온 기적
그 창조자가 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자 우리가 걸어온 길을
고난과 투쟁으로 엮어진 날들과 해들을
그러면 가슴치는 진리의 목소리
시련은 일시적이고 승리는 영원하다
세대가 검증한 그 진리의 목소리
뜨겁게 뜨겁게 안겨오지 않는가

아 그때보다 우리는 얼마나 단련되었는가
무쇠가 강철이 되었다
우리의 힘은 얼마나 커졌는가
쇠메가 수만톤 프레스가 되었다
그때보다 우리의 밑천은 얼마나 튼튼한가

신심 드높이 힘차게 나아가자
난관은 물러 가고
승리는 또다시 우리를
영광속에서 영접할것이다
《고난의 행군》은 빛나게 계속될것이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는
언제나 사나운 파도를 헤가르고
광명을 안아오는 원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기상 펼치자

불멸의 해불

리춘심

우리 집은 대동강가에 솟은 고층살림집에 자리 잡고있다.

나는 여름철이면 저녁마다 베란다에 나와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대동강의 야경을 바라보기를 즐긴다.

베란다에 나서면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대동강을 따라 펼쳐진 동평양지구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강변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살림집들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비껴안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그럴 때면 대동강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불의 흐름, 불의 대하처럼 여겨진다.

그 한가운데 우뚝 솟아 활활 불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 밤이나 낮이나 식을줄도 꺼질줄도 모르고 타오르는 봉화, 매일처럼 바라보지만 보면볼수록 무심히 대할수 없다.

평양의 중심, 세계의 창공에 거연히 솟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뿌리는 저 봉화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

나는 얼마전 이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날저녁 퇴근하여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던 나는 안에서 울려나오는 시랑송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쉬-쉬-

바위위에 호랑이 나섰다

백두산 호랑이 나섰다

앞발을 거세게 내어뻗치고

남쪽하늘 노려보다가

《따-웅-》 산골을 깨친다

그 무엇 처부시련듯 톱을 들어

《따-웅-》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목소리였다. 제법 감정을 담아 읊는다.

《진항아, 그 <따-웅-> 하는 대목에 좀더 힘을 넣었으면 좋겠어.》

《옳아, 진짜 호랑이 울음소리처럼 좀 웅글고 힘있게... <따-웅-> 이렇게 말아야.》

《알았어.》

아마 진항이네 학습반애들이 모인 모양이었다. 시랑송에 대해서 무얼 좀 아는지 서로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작자그르 꿰는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유치원을 마치고 뜻깊은 4월에 인민학교에 입학한 막내아들애가 쏘르르 달려와 매달린다.

《엄마, 보천보 머나?》

《?!...》

《나도 누나와 함께 보천보 갈래.》

뜻밖에 닥친 일이라 갑자기 무엇이랴 대답을 할수가 없었다.

《어머니, 보천보전투승리 60돐을 맞으며 우리 학교에서 <보천보에로의 집단달리기>도 하고 글짓기발표모임, 시랑송모임도 가진댔어요.

그런데 이 진철이가 자꾸 저도 같이 보천보에 간다고 저러지요 뭐.》

딸애가 나서 설명을 해서야 영문을 알수 있었다.

《이번에 진항이가 시랑송을 하게 됐어요.》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어요.》

런이여 발을 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살펴보니 상우에 펼쳐진 교과서들마다에서 똑같은 한 폭의 그림이 안겨왔다.

《보천보의 화불》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며 충천하는 불길을 배경으로 김일성장군님께서 한손을 높이 드시고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펼쳐나설것을 호소하시는 그림이다.

우리 인민들 누구에게나 낯익은 저 화폭, 나도 역시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저 그림을 보며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은 나의 딸애가 바로 그 교과서를 펼쳐들고 보천보에 대하여 묻는것이다.

나는 별로 생각이 깊어지는것을 느꼈다.

저녁식사가 끝난후 나는 버릇처럼 베란다에 나와섰다. 대동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하루일의 피로를 가져주며 심신을 거뜬케 한다.

창공높이 솟아 밝은 빛을 뿌리며 오늘도 활활 불타오르는 심장모양의 봉화를 생각깊이 바라보는데 방안에서는 딸애의 시 읊는 소리가 쟁쟁하게 울려나온다.

삼단같은 불길이 일어난다

이곳저곳 관사에서도

왜놈들 집에서

반역자들 집에서

불길이 일어난다

감캄한 하늘을 옥몰어젖어

조박조박 태워버리며

불길이 일더니

만세소리 터진다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바라보며 시랑송을 듣느라니 이 나라 산천에 지리하게도 계속되던 예속

의 밤, 굴욕의 밤을 끝장내며 보천보의 밤하늘에 불타오르던 그 불길을 보는듯했다.

1930년대 후반기, 일제는 대륙침략준비에 광분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략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 략탈에 미처 날뛰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신을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리었다.

일제침략자들은 나 어린 학생들로부터 백발의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아침마다 《궁성요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심지어 조선말까지도 쓰지 못하게 탄압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선일체》, 《동조동군》을 떠벌이면서 우리 민족의 넋을 송두리채 뽑아버리고 우리 인민을 일본의 종복으로, 《황국신민》으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일제의 발굽 밑에서 해도 달도 빛을 잃었으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셀줄 모르는 칠칠야밤이 계속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시들어가는 민족의 넋에 생명을 불어넣고 민족 재생의 전기를 이룩하시기 위해 1937년 6월 4일 조선인민혁명군 원정부대를 거느리시고 국내의 보천보에 대한 진공작전을 단행하시었다.

밤 10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리신 신호총소리에 따라 경찰관주재소, 산림보호구, 면사무소, 소방회관, 우편국을 비롯한 적통치기관들에 복수의 불벼락이 들썩위졌으며 보천보의 밤하늘을 밝히며 불길이 타올랐다.

보천보의 밤하늘을 밝히며 타오른 불길, 그것은 피눈물로 얼룩진 우리 민족사의 전환적국면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억눌리고 짓밟히기만 하던 우리민족에게 재생의 희망을 알리는 서광이었다.

그불길은 조선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일제란 칼로 내려치면 동강이 나고 불을 지르면 짙검불이나 북데기처럼 타번지는 일종의 폐기물같은 존재라는것,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싸우면 반드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 주었다.

보천보의 해불, 그것은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였으며 그 어떤 압제의 발굽밑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자주정신의 상징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의 밤하늘에 지펴올리신 자주정신의 불길은 우리 민족의 항로에서 언제나 밝은 빛을 뿌렸으며 꺼질줄 모르고 더욱 거세차게 타올랐다. 우리 인민은 그 해불을 높이 들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였으며 전화의 불길속도 전후의 재더미도 헤치고 이 땅위에 부강한 사회

주의조국을 일떠세웠다. 또 제국주의자들의 압력 책동도 대국주의의 횡포도 기회주의자들의 비렬한 배신행위도 그 거세찬 불길로 태워버리며 승리하여왔으며 승리해가고있다.

오늘도 해불은 불타고있다.

보라, 저기 대동강반에 거연히 솟아있는 주체사상탑우에서 심장처럼 활활 불타고있는 해불을.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ㄷ. ㄷ**》의 한점 불씨에서 지펴올리시여 항일의 혈전만리와 전화의 불길속 그리고 전후의 재더미와 사회주의건설의 험난한 로정에서도 곳곳이 이어오신 그 해불이며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무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시며 고수해나가는 혁명의 해불이다.

1930년대 후반기 세계 《5대강국》의 일원임을 자랑하는 일본이 조선의 숨통을 그르치고 《북중하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하고 울러멜 때 조선은 죽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는것을 증명하며 일제의 머리우에 내린 징벌의 불—

—보천보의 해불.

1990년대초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사태가 초래되고 오만해진 제국주의자들이 반공화국책동에 열을 올리며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하고 강박해나설 때에도 사회주의는 죽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고 반드시 재생되고야말것이라는것을 선언하며 더욱 거세차게 타오른 주체의 저 해불.

그렇다. 파란많은 망국사의 흐름을 해방으로 돌려세우시며 우리 수령님 보천보의 밤하늘에 지펴올리신 그 해불이 있어 우리 조선의 오늘이 있고 력사의 언덕우에 거연히 서시여 모진 광풍을 한몸으로 헤쳐나가는 **김정일**장군님 추켜드신 주체의 해불, 자주의 해불이 있어 사회주의의 래일이 있고 인류의 미래가 있는것이다.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솟아 광휘로운 빛발로 누리를 밝히는 주체사상탑의 봉화.

오늘도 그 봉화는 식을줄도 모르고 꺼질줄도 모른다.

저 해불이 있어 오늘도 대동강에 비낀 저 행복의 불빛은 꺼질줄 모르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숭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방안에서 시를 읊는 딸애의 목소리가 격조높이 울려나온다. 그 시랑송소리를 듣노리니 이밤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더 거세차게 타오르는것만 같이 느껴지였다. 아니 그 해불은 천만년 세월이 흐른대도 영원히 영원히 활활 타오르리라!



수령님을 받드는데서는 자신도 전사라 하시며

1975년 10월초 어느날이었다.

준공을 앞둔 4.25문화회관을 돌이보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드넓은 중앙홀에 모셔진 조선화대화폭 《인민군군인들과 예술인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중앙홀의 넓은 벽면을 가득 차지한 그림을 오래도록 보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해빛과도 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한손을 높이 드시여 인민군군인들과 예술인들의 열렬한 환호에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려 불길만리를 헤쳐온 항일의 로투사들과 피의 락동강을 넘은 전쟁로병들 그리고 예술인들이 목청껏 환호를 울리며 감격의 눈물짓는 화폭,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무장으로 받들어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는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서 달려온 인민군군인들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한 작품이었다.

너비만 해도 30미터이고 높이가 9미터나 되는 전례없는 거창한 규모의 대화폭.

참으로 규모에 있어서나 예술적형상에서나 나무랄데 없이 완벽한 우리 시대의 걸작품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림을 멀리에서도 보시고 가까이 다가서시여 보기도 하시며 그림이 아주 잘되었다고, 훌륭하다고 거듭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만족을 드린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서운한 생각이 자꾸만 갈마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처음에 일군들은 중앙홀과 1,100석극장홀에 모신 그림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함께 모시기로 하였었다.

그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수령님의 위대한 후계자로 높이 모시여 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으며 한세대에 두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의 영광과 행복은 강산에 차고넘쳤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는것은 력사와 시대의 성숙된 요구였으며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었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4.25문화회관의 중앙홀과 1,100석극장의 홀에 두분의 위인을 함께 모신 그림을 형상하기로 하였던것이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당부문 일군에게 그림도안을 가지고 빨리 오라고 하시었다.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이 그림도안을 펼쳐놓자 대변에 심중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이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다그쳐 물으시었다.

《동무요?》

음성은 엄하다 못해 노하기까지 하였다.

《동무가 그랬으면 책벌을 받아야 하겠소!》

《...》

한동안 대답을 올리지 못하던 일군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진심을 말씀올리려 하였다.

그렇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으시며 자신을 형상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었다.

너무도 엄한 꾸중을 일군은 어쩔바를 몰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엉거주춤해 서있는 일군을 보시며 빨리 돌아가서 그림도안을 고치라고 하시었다.

일군은 더 어찌지 못하고 문을 나섰다.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시간은 불과 1분도 되나마나한 시간이었다. 그 1분동안에 일군은 비록 랑혹한 추궁을 받았지만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님만을 높이 모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충효의 광대한 세계를 받아안았으며 자신과 관련된것이라면 그 무엇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이의 고결한 품모를 폐부로 절감하였다. 그럴수록 꾸짖는 어머니품에 달려가 안기는 어린애의 심정마냥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더욱 솟구침을 어찌할수 없었다.

일군은 그 길로 미술가들을 찾아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해주었다.

그러나 미술가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대로 그렇게는 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일군들역시 그들의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내려가지 않았다.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강철의 령장, 인민군군인들이 있는곳이라면 최전연초소도 풍랑사나운 바다가의 외로운 초소도 찾으시여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미술작품에 모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날 저녁, 일군은 또다시 그림도안을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찾아뵈웠다.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잠시 망설이다가 4.25문화회관 중앙홀에 모실 그림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그 문제가 이미 결론을 주지 않았습니까?》

일군은 창작가들이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결론을 받아달라고 계속 조르기때문에 자기로서는 어쩔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동무들의 심정은 리해된다고, 그럴수록 그들을 잘 설복시켜야 한다고 타이르시였다.

일군은 몇번이고 바재이다가 용기를 내어 창작가들만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소원이므로 중앙홀이나 1,100석극장홀중 어느 한곳에만이라도 모시게 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그러면서 인민들과 군인들이 우리 일군들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덧붙여 말씀드렸다.

《그럴듯한 묘안을 생각해냈구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이름을 빌어 기어코 승인을 받아내자는것인데 제기하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고 하여 성사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는 나와 같이 한두해만 일하지 않았는데 수령님만을 더 잘 모시려는 나의 심정을 그렇게도 모른단말입니까.》

추궁이가기보다 노여움이시였다. 그 말씀에 일군은 더는 청을 드릴수가 없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방안을 거니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우리 당이 있어 영광찬 오늘이 있고 조국의 미래가 찬란하다고 하면서 나를 자주 내세우려고 하는데 수령님을 받드는데서는 나도 전사입니다.》

《수령님을 받드는데서는 나도 전사입니다.》

조용히 그 말씀을 되새겨보는 일군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샘처럼 솟구쳐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깊은 추억을 안으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한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에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숙연한 빛이 어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못잇을 추억을 더듬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어머님은 늘 나에게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고 충성다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말씀을 조국과 인민이 나에게 주는 조언으로, 필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 김정숙어머님처럼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의무로, 최대의 영예로 여기시는것이였다.

일군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우러르며 그림에서나마 뵈고 싶어하는데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면서 인민의 지지만 있으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지도자, 혁명의 후계자란 내세운다고 하여 되는것이 아니며 바라라고 하여 지지를 받는것도 아닙니다. 조국과 인민, 우리 혁명을 위하여 해놓은것이 있고 시대와 역사앞에 이룩한 업적이 크면 인민들은 스스로 따르며 받들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형식보다도 내용과 진심을 바랄뿐입니다.》

참으로 심오한 뜻이 담긴 말씀이였다.

한편의 그림을 놓고서도 일군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심원한 내용을 일깨워주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더 높이 우러르모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뜻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 뜨겁게 어려와 일군은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근엄하신 어조로 당은 곧 수령님이시고 수령님은 곧 당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분 위대한 수령님만을 높이 모시고 따르며 충성다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리해가 되는가고 하시였다.

일군은 무엇인가 말씀올리고싶었으나 세찬 격정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종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림을 고쳐그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 그림이 바로 수령님 한분만을 형상한 조선화 《인민군군인들과 예술인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이다.



근로하는 인민들을 문학창작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며

문학과 예술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창조적 열정과 지혜도 인민의 심장속에서만 순결하게 맥박친다.

인민의 향유물이며 창조물인 문학과 예술을 인민대중속에서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 되고있다.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의 대중화를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고 이에 큰힘을 넣으시여 우리의 문학과 예술이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도록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격동적인 오늘의 시대에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지켜갈 신념과 의지를 시와 노래로 지어부르고 《고난의 행군》길을 다그쳐나가며 혁명적 랑만과 열정을 담아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작가들이 써내는 작품뿐아니라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속에서 창작되는 한편한편의 작품들이 우리문학의 보물고를 늘이며 인민의 향유물로 전환되는 문학예술의 풍성한 현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은 인민들을 문학과 예술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창작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여 재능의 꽃을 마음껏 피우도록 해주시였으며 그속에서 작가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려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곤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은 전문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인민대중의 군중적창작활동에 의하여 개화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작가대렬은 경험있고 능력있는 중견작가들과 패기있고 재능있는 새 세대의 작가들로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이것은 주체적인 문학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귀중한 밑천입니다.》

문학과 예술이 인민대중속에서 꽃피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을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문학통신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하는데 큰힘을 넣으시였다.

일찌기 영화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며 그들에 대한 지도와 창작사업을 잘 도와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와 때를

같이하여 이미 모범단위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심을 주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문학소조원들의 작품집 《강선의 백양나무》를 출판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문학소조사업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1973년 12월말 어느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회의실에서는 전국각지의 창작지도일군들과 문학통신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곳 문학소조에서 얻은 경험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선땅에 뿌려주신 씨앗은 온 나라에 대중창작의 무성한 숲을 펼치였다.

문학통신원들의 대렬이 끝없이 늘어나고 작품투고건수가 날을 따라 늘어났으며 두해후에 진행된 당창건 30돛기념 전국문학작품현상모집을 비롯하여 해마다 진행되는 작품현상모집에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근로자들의 양양된 창작적열의와 현실에 비해보면 군중문학창작사업을 보다 조직화하고 폭넓게 밀고나가는데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부족점이 있었다.

당시 작가동맹의 관련부서에서 사업하고있던 제한된 몇몇 일군들의 수공업적인 지도방법을 가지고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날로 발전하는 군중적인 문학창작사업을 감당해낼수가 없었다.

이런 실태를 누구보다 먼저 환히 꿰뚫어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77년 6월 4일 군중문학발전의 역사적계기를 열어놓는 새로운 리정표를 세워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금까지 존재하여오던 작가동맹의 관련부서를 군중문학창작지도부로 그 이름부터 고쳐주시고 중앙에 몇명밖에 되지않던 군중문학사업지도를 위한 기구정원을 늘여주시였으며 각 도창작실에 군중문학지도체계를 내오고 이 부문 일군들을 여러명 배치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중앙의 몇명 지도성원들이 하던 일을 수십명의 성원들이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한 근로자들의 창작의욕과 기량을 빨리 높여주기 위하여 중앙급신문들을 비롯한 신문들에 군중문학작품특집을 조직하도록 배려해주시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종전에 《신인》이라고 하던말을 없애고 《군중문학통신원》이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크나큰 영예까지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취해주신 이 모든 조치는 창작활동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학창작을 대중속에서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과 한없는 사랑의 표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중문학창작지도체계를 세워주신 그때부터 군중문학창작사업은 보다 새로운 비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아무리 생소한 씩이라도 거름을 듬뿍 주어야 풍성하게 자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중문학통신원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창작기량을 높여주기 위하여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아동문학작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영화문학창작수업》을 비롯한 참고도서들을 출판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문학통신원들이 창작한 문학작품들을 출판하기 위한 정연한 체계도 세워주시었다.

그리고 출판물에 발표되는 군중문학작품들의 우열함을 분석하는 지도평을 써서 내도록 하시었다.

이것은 군중문학통신원들의 기량을 높여주어 훌륭한 창작가로 키우기 위한 또하나의 현명한 조치였다.

년례행사로 진행되는 문학작품현상모집도 년중 20~30일간의 중앙과 도 단위로 조직하는 문학통신원창작강습도 그이의 가르치심과 깊은 관심속에서 해마다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문학의 마를줄 모르는 저수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82년 3월 19일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한 문학통신원들에게 《6월4일문학상》을 수여하게 하시는 또하나의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군중문학창작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1977년 6월 4일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6월4일문학상》!

번쩍이는 금메달과 숭고한 사랑어린 증서, 진정 그 얼마나 뜨거운 격정안고 목메이게 하는 근로하는 인민의 문학상인가!

세상에는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 전문작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은 있어도 아직 창작을 배우는 문학통신원들을 위하여 제정된 창작상은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조선의 근로자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행복이며 특전인것이다.

인민들속에서 꽃피나는 문학발전의 빛나는 년대기우에 눈부신 성과들이 수놓아지고 변혁의 새 력사가 펼쳐지던시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군중문학을 보다 높은 비약의 령마루로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를 마련하여주시었다.

1982년 11월중순, 평양대극장에서는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가 열리었다.

속도전의 불바람 세차게 휘몰아치는 사회주의 건설장들에서, 풍년로적가리 쌓아놓고 흥성거리 는 협동벌에서 그리고 일당백의 기상이 도도히 굽이치는 방선초소에서 수많은 문학통신원들이 달려와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일본일초가 귀중한 때에, 그것도 년말에 온 나라의 문학통신원들을 불러 이처럼 큰 극장에서 뜻깊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가슴뜨거워 진정할줄 몰랐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안게 될줄을 다는 모르고있는 그들이었다.

대회가 시작되는 첫날인 11월 15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를 친히 보내 주시었다.

대회장은 삼시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금시 떠나갈듯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한에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빛나게 총화하시고 문학통신원들이 앞으로 해야 할 강령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문학통신원들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고 온 나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선구자이며 주체문학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라는 더없는 믿음과 영예를 안겨주시면서 그들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우수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우리 문학앞에 나선 기본임무에 비추어볼 때 문학통신원들이 내놓은 작품들가운데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들이 많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된 원인을 그들이 정치적식견과 기량이 부족한데서 찾으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문학작품의 향상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을 옳게 그리며 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묘사할데 대한 문제, 남의 작품을 모방하지 말고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자기식으로 창작하는 옳바른 자세를 가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문학통신원들이 틈틈히 틀어쥐고 관철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모든 문학통신원들이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함으로
써 약동하는 오늘의 현실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승고한 정신세계를 훌륭히 반영한 참신하고 깊이
있는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리라는것을 굳
게 믿는다고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통신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임무를 심장깊이 새기고 충성
의 결의 드높이 새로운 진군길우에 올랐다.

하여 경애하는 그이의 따뜻한 손길아래 우리의
군중문학은 날마다 새로운 성과를 수놓으며 끝
임없이 발전하여왔다.

근로하는 인민들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수한 문
학작품들이 창작되여 우리의 진군길을 고무했고
주체문학의 화원을 꽃피웠던가.

재능있는 문학후비들이 우후죽순마냥 자라나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로 우리의 문학대렬을
끊임없이 이어주고있는 오늘의 현실.

정녕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고 우리 작가
들의 친근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서 계시여 우리의 문학은 인민대중속에서 나날이
활짝 꽃피날것이며 우리 조국은 인민의 재능과
열정이 더더욱 무르익는 인민의 나라로 세상에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한정의 경기관총앞에서

박룡철

세월의 년륜을
뜨거이 감으며 설레이는
한그루 황철나무앞에
너는 오늘도 그날처럼
서리발을 안고 놓여있구나

눈보라 만리 불길 만리
혈전의 언덕 넘고넘어
겨레의 참웃음이 피어나던
보천보전투의 그밤
혁명의 사령부 지켜
멸적의 불줄기 내뿜던 총이여

낮이나 밤이나
눈오나 비오나
그날의 변함없는 그 자세로
오늘도 숭엄히 놓여있는
혁명의 영원한 저 무기

자석처럼 끌리는 마음
다가서면 가까이 다가서면
그날의 투사들과 함께
나도 경건히 서있는듯

오, 내 지금
어디에 서있느냐
내 지금
그 어떤 총앞에 서있느냐

저렇듯 조용히 놓여있어도
내 나라 력사 반만년에

총의 사명 새로이 깨쳐
세상에서 가장 위력하고
가장 위대하여진 저 경기관총

너는 내 고향 보천보의 총
너는 언제나
총권 병사 내 가슴속에
소중히도 간직되어있었거니
너는 내 마음이 설자리와
내 다루는 총의 무게와
나의 신념 나의 의지를 모아세워주며...

오, 총이여
백두산의 총, 사령부의 총이여
너는 내 마음
너의 저 밝은 겨눔문엔
장군님 지켜선 내 눈빛 비껴있고
너의 드세찬 총구엔
장군님 한목숨 바쳐 사수해갈
내 심장의 분출을 안고있나니

내 한생 너를 안고 살리라
세상 그 어떤 원썩가 덤벼들어
너를 안고있어
멸적의 불줄기만 내뿜으리

나의 운명
나의 숨결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너와 나는 번치 않을
영원한 길동무여라!

그리운 마음속에 외 1 편

한기운

세상에
그리움 많고 많아
그리움중에서도
이내 가슴속 그리움은
그이에 대한 그리움만 커

아, 자나깨나 그리움 안고
노을이 피어나는 새벽이면
평양하늘 우러러
조용히 아침인사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운 장군님
간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리운 마음속에 간절한 생각
또 하루
어느 초소, 어느 건설장에 계실가
—그리운 장군님
그 길에 끼니는 번지지 않으셨는지

봄 여름 계절없이
그리운 마음속에 쌓이고쌓이는 생각
저물녘이면 지금은 또
어느 농장 들길에 계실가
—그리운 장군님
멀고 험한 그 길에 편히 돌아오셨는지

아, 아침해
새벽노을속에 솟아
하루길
저녁노을속에 이어가고
밤하늘에 별빛 넘치도록

이내 마음속에
서리고서리는 그리움끝에서
이내 가슴속엔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 모습
지지 않는 태양으로 솟아오릅니다

미래에 대한 사랑

정녕 꿈이 아니란말인가
해빛 밝은 산원의 창가
포근한 요람에 안겨
내 손자가 세상에 울리는
첫 고고성

정녕 내 손자가 태어났단말인가
드문 장마 홍수로
피물같이 밀려드는
탁류속에 잠긴 마을
마지막 그 지붕우에서
하늘을 원망했거니

어디 보자 다시 보자
너보다
너의 생 너의 미래를 건져준 그 사랑
더 소중한
더 보고싶은 네 모습

네 입으로 하는 소리
아직은 고고성뿐이여도
재난속에 축복받은 사랑의 이야기
너의 모습에 다 비껴있어
너와 먼저 나누고싶어라

아느냐
범람하는 물위에 날아오는 비행기
임신부들을 먼저 찾는 그 목소리속에
아직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네가 먼저 있었던것을!

너를 볼수록
전설만같은 그 손길 뜨겁고
너를 생각할수록 꿈만같은 운명
아, 미래에 대한 사랑의 극치여

인류의 재난사 갈피마다
물속에 불속에 태풍속에 잃은것뿐

재난이 남긴 폐허우엔

곡성만이 높았건만

내 사는 이 땅에선

백년래의 큰물이 마을을 침키여도

재난속에 태어나는 새 생명들

그 고고성 환희로이 메아리치거니

한껏 터치라 온 세상에

너희들의 고고성을

받아안은 사랑 받아안은 미래를 다 담아

이것이 내 태어난

우리 식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이것이 내 안겨살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품이라고!

날마다 이런 아침에

박련희

출근길에 나서면

마치도 나를 위해

온 거리의 아이들이 합창하듯

걷는 걸음에 활기를 더해주누나

꽃밭이 통채로 흘러가는듯

새 교복 차려입은 대렬

바라보기조차 마음 깨끗해지는

학교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노래소리

저리도 맑고

저리도 청고울가

하나같이 웃는 얼굴

티없는 마음을 터쳐

청신한 거리의 아침공기마저

노래소리에 한껏 맑아지누나

가슴마다 날리는 붉은넥타이

노래에 나뭇겨 저리도 기운찬가

발걸음도 하나같이 땅을 굴러

동산에 아침해를 이끌어올리는가

이런 때면

정녕 이런 아침이면

마음에 샘솟는 사랑

내 아들, 내 딸애도

저 흘러가는 꽃밭속에 싱싱함이어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고

노래라고 하기엔

너무도 가슴 적시는 고마운 은정

내 나라에 터놓는 송가가 아닌가

지난 세월

《토성량》이라 부르던곳

굶주림에 지친 내 소녀시절이

감탕속의 갈게처럼

휘청휘청 방황하던 여기

배움의 꿈은 깃들새도 없이

주린 배 움켜쥐고

뚝아래 쓰러져

희미하게 바라보던 저 하늘 아래로

갈길이 있었던가

래일이 있었던가

추억하기조차

피로운 시절

조국이 없던 그 나날엔

《토성량》의 그 검은 감탕물처럼

동양의 쪽박든 아이들

넝마처럼 흘러가던 여기

오늘은 그날의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는

락원의 거리여

이런 나라

이런 거리가 또 어느 하늘밑에 있더냐

내 나라의 아침은

아이들의 모습으로, 노래소리로

사회주의 내 나라의 향기를

누리에 뿌려주는 아침

아, 날마다

이제는 너무도 레사롭게도 생각될

학교가는 아이들 노래소리

그 소리에 가슴 부풀어

그 모습에 열정이 샘솟아

나는 일터로 가노라

날마다 이런 아침에

이 좋은 내 나라를 위해

그 무엇을 서슴으랴

이 한목숨 아까우랴

나도 몰래 마음속 진정을 담은

노래도 부르며...

백두산장수봉에 광명성 솟았다

사철 흰눈을 머리에 인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 보이는 리명수에 박덕길이라는 로인이 살고있었다.

그는 3.1운동때 왜놈들의 칼부림에 안해와 아이들을 다 잃고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의병대에서 싸우다가 실패만 거듭하자 산속에 들어와 포수가 된 사람이였다.

몸에 걸친 화승대를 혈육삼아 의지하고 밀림에서 산짐승들을 잡아 육식을 해서인지 로인은 힘이 쎄쳐 백두산준경을 마을돌이하듯 하였다.

어떤 때는 며칠씩, 또 어떤 때는 몇달씩 산중에서 지내는 로인의 일이 하도 궁금하여 《백두산에서 록용이라도 찻소?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산밭을 그렇게도 극성스레 타오?》 하고 마을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호기있게 채수염을 쓸어만지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록용만 찾겠소, 난 지금 언제쯤이면 3천리를 찾겠는가 해서 이렇게 안달아하지않소.》

《아니, 3천리를 찾다니요?!》

마을사람들은 3천리를 찾다는 말에 이 령감이 세상을 걸음마다 원망하더니 제 정신이 나가지 않았는가싶어 되물었다.

그러자 로인은 두눈을 쪼프리며 《거, 임자네들도 백두산 장군봉에 걸쳐앉아 천지물로 장검을 갈아 왜적을 치신다는 백두산장수이야기를 들었겠지?》 하고 물었다.

《아, 듣다마다요. 마실가서 들은 소리가 온통 그 소린데...》

마을사람들도 백두산에 장수가 나타나 수천의 용사를 거느리고 왜놈들을 삼대베듯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라 저마다 머리를 끄덕이며 말참견을 하였다.

《그러게 말일세, 난 백두산장수를 만나뵈기로 걱정했네. 내 한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만 그여생이라도 바쳐 백두산장수를 만나뵈지 않고선 죽어도 눈을 감을것 같지 않네.

그래서 내 이렇게 행전을 둘러치고 나서지 않았겠나.》

그 말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파시 의병의 칼을 들었던 로인의 심지가 다르다고 감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백두산장수를 만나뵈거들랑 자기네 소원을 담아 백의동포가 한울에서 복락하며 사는 3천리를 찾아줍시다 하고 빌어달리는 부탁까지 하게 되었다.

(내 백두산장수를 만나뵈옵기전엔 이 마을에 발길도 하지 않으리라!)

로인은 마을사람들앞에서 이렇게 마음속 맹세를 다지고 그들이 꾸려준 감자떡과 노루털갈개를 등허리에 걸머지고 기세차게 길을 떠났다.

달포가 넘도록 눈보라를 헤치며 백두의 험산준령과 골짜기들을 훑어나가던 로인은 어느날 한낮때 백두산산정에 올랐다.

2월의 백두산은 장엄무쌍하게 천지조화를 일으키고있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받아 거연히 일떠선 병사봉(오늘의 장군봉), 차일봉, 망천후(오늘의 향도봉)들은 왜적을 물리친 백의동포의 억세인 기상같았고 청동의 성곽처럼 으리으리한 절벽은 꺾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우리 민족의 굳센 의지 같았다.

천지호반을 바라보니 눈보라가 광란하는것이 마치 수천수만의 무사들이 칼부림을 하며 왜적을 칠 무술을 익히는것만 같았다.

울울창창한 분비, 가분비, 잣나무가 광풍에 떠는 소리는 수천의 군사들이 와-와-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육박하는 소리같았다.

참으로 백두산장수의 무적의 힘이 대동하는것 같았다.

한참동안 넋잃은 사람처럼 서있던 로인은 백날이고 천날이고 이 산정에 틀고앉아 백두산장수를 맞으리라 생각하며 주섬주섬 털갈개를 펴고앉아 여우털목깃을 올리였다.

여우털목깃에서 해빛이 자글거리더니 자꾸만 눈시울이 내리덜이였다.

(백두산에서 백두산장수를 뵈우문사 더 기쁘고 말고.)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기를 몇시간이나 되던지...

로인이 바라보던 백두산천지우로 갑자기 눈처럼하얀 흰제비 한마리가 눈보라를 헤가르며 날아 오고있었다.

(아니 흰제비가 이 겨울에 나타나다니? 예로부터 흰제비가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로인은 두눈을 비비며 얼없이 흰제비를 바라보았다.

이때 갑자기 눈부신 번개불이 번쩍 일더니 천지에서 열풍이 솟구쳐오르며 광란하던 눈보라를 쫓아버리었다.

호반은 어느새 갖가지 문양의 주단을 펼친듯 청신한 이끼들로 뒤덮이고 무연히 펼쳐진 고산초원에는 노란 만병초, 두메국화, 담자리참꽃, 두메아편꽃, 쯤참꽃, 고산싱아가 자라 색깔이 류달리도 선명하고 고운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다.

황홀경에 사로잡힌 로인은 무릎을 치며 취한듯이 고산지대의 특유하고 신기한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앞에 불현듯 풍채좋은 백발로인이 나타났다.

천지우에 어느덧 햇슴같은 몽계구름이 걸렸는데 흰두루마기자락을 날리는 백발로인이 그 구름 위에 거연히 서서 흰제비를 부르는 것이었다.

《여봐라, 네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때이르게 날 아드느냐?》

그러자 눈알이 흑진주같은 흰제비가 백발로인의 어깨우에 사뿐히 내려앉으며 청고운 목소리로 아뢰었다.

《백두산할아버님, 기뻐하옵소서. 할아버님께서는 이제 백두산장수와 같이 천하를 다스릴 비범한 장수를 또 한분 맞이하게 되시나이다!》

《아니, 백두산장수와 같은 장수를?!...》

《그렇소이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백두산장수의 혈기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새 장수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두산에서 반만년은 살아오신 할아버님께서 새 장수를 모실 성지를 속히 찾으소서이다.》

《과시 이것은 백두산의 자랑, 백의동포가 사는 이 나라의 영광이요, 대경사로드!

그런데 어찌 새 장수를 모실 성지를 내 혼자서 찾는단 말이나? 내 백두산에 있는 수십의 무사들과 뜻을 모아 찾으려나.》

백발로인은 흰구름속에서 열발은 실히 될 긴 통소를 들어올리더니 구성진 노래가락을 불어넣었다.

청고운 흰제비가 그 노래를 따라불렀다.

백발을 날리는 천연의 무사들이
대경사가 생겼다 대경사가 생겼다
금수강산 3천리도 감격에 설레인다
에루 데루 에헤야 에헤헝 디어

모여라 모여라 어서 모여라
백두산의 대경사 의논을 하자
...

노래소리가 울리자 천리수해우에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금빛, 은빛 해살이 쏟아져내리고 북소리, 징소리 요란하더니 하늘높이 솟았던 병사봉, 망천후, 백암산, 장수봉, 차일봉, 충암산, 소백산, 배사봉 등 수십의 봉우리들이 갑옷을 떨쳐입은 무사들로 변하여 백두산등판으로 우줄우줄 다가왔다.

그 발걸음소리가 어찌나 세찬지 땅이 움찔거리고 천지에서는 파도가 출렁이었다.

청동의 으리으리한 갑옷을 떨쳐입은 병사봉무사가 장검을 추켜들고 모두 도착했음을 아뢰자 백발로인이 안개를 타고 등판에 내려서서 무사들을 부른 취지를 알리었다.

백두산이 또 한분의 새 장수를 모시게 된다는 그의 말은 무사들을 한없이 격동시켰다.

《무사들은 충효의 지혜를 모아 새 장수를 모실 곳을 찾으시어다.》

무사들은 저저마다 백두산의 새 장수를 자기가 모셔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갑론을박하는 론쟁속에 시간은 퍼그나 흘렀으나 새 장수를 모실 장소는 쉬이 찾지 못하였다.

이때 무사들의 론쟁에 끼여들지 않고 의미깊은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없이 서있던 장수봉무사가 흰제비에게 새 장수가 태어날 날이 언제인가고 물었다.

흰제비는 2월 16일이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장수봉무사는 저윽기 흥분된 표정으로 무사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조용하시오이다. 백두산의 새 장수는 이미 제가 모시도록 하늘의 계시가 있었소이다.》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는 말에 모두들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장수봉무사는 자못 심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의 계시를 받고 백두산의 새 장수를 맞이할 영광을 학수고대하며 정력을 들여 제가 있는곳에 명당자리성지를 마련해두었소이다. 저에게 있는 해돋이바위와 소백수의 맑은 물은 새 장수에게 태양의 열기와 천지의 맑은 정기를 드릴것이요, 기암의 절벽은 철의 의지를 드릴것이옵니다.

그리고 제가 반만년동안 쌓아올린 천험의 요새는 새 장수의 안녕을 지키는 영원한 성새가 될것이옵니다. 더우기 저의 키가 216메터이오니 제가 새 장수를 모시는것은 천만지당한 일이옵니다.》

장수봉무사의 말을 듣는 무사들은 그의 공력을 찬양하며 모두 술렁이었다.

새 장수를 모시기를 일구월심 기다려 충효를 키우고 심신을 단련한 장수봉무사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도 웅대한 일이라느것이였다.

백발로인도 무사들의 말을 긍정하고나서 장수봉무사에게 엄숙히 물었다.

《그래 네가 하늘의 계시대로 백두산 새 장수를 모시면 어떻게 하려느냐?》

장수봉무사는 머리에 칼을 들어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세번 후려치더니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시를 읊어 맹세하였다.

해돋이바위 여기 있어
흐린날 없고
소백수 맑은물 여기 흘러
맑은 정기 넘치리

내 반만년 다듬고 쌓아온
천험의 절벽은
백두산 새 장수를 옹위하는

성벽이 되려니

세월이 기다리고 하늘이 낸
새 장수에게 충효를 다하리라
세상의 온갖 불의를 짓부셔버리며
높이높이 받들어모시리라

그러자 모든 무사들이 백두산 새 장수를 높이
높이 받들어모시자고 우뢰같은 함성을 지르며 허
공에 9척장검을 세번 휘둘렀다.

이윽하여 백발로인은 안개속에 손을 넣어 홍보
석과 청보석을 꺼내더니 장수봉무사에게 주었다.
그리고 새 장수를 맞게 되면 청보석과 홍보석으
로 장군별결에 또하나의 장수별을 띄워올려 세상
을 밝히는 광명성이 되게 하라고 일렀다.

장수봉무사는 광명성을 띄워올리면서 밤에는
은하수를, 낮에는 령룡한 쌍무지개를 비껴놓아
백두산 새 장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였다.

백발로인은 흐뭇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며 무사
들에게 어서 돌아가 이 소식을 알리라고 하면서
부석을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무사들은 백두산등판에 붙어치는 회오리바람에
부석을 띄워타고 서둘러 떠나갔다.

로인은 회오리바람이 여우털덧저고리자락을 흔
드는 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덧저고리자락안에 목침만한 부석덩이가
안겨있었다.

(아니, 부석돌이...)

순간 로인은 부석을 타고 훨훨 날아가 새 장수
의 탄생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리려던 백발로인의
그 웅글은 목소리가 들리는듯하였다.

(참 이상한걸, 백발로인이 나에게도 부석을 안
겨주다니... 마을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이 소식을
알리라는것이 아닌가?!)

자정이 지나면 새 장수가 탄생하게 될 2월 16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로인은 마음이 조급해났다.
웅근 하루길을 어떻게 몇시간에 가닿을수 있으
랴.

로인은 부석을 띄우려고 가슴우로 올리였다.
순간 몸이 허공 들리면서 걸음발이 빨라졌다.
로인은 웅근 하루길을 몇시간사이에 달려 리명
수에 이르렀다.

로인의 꿈이야기를 들은 마을사람들은 그것은
꿈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라고 하면서 신기한 그
시각을 기다려보자고 하였다.

리명수마을은 이날밤 명절처럼 들끓었다. 박로
인은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높은 등판에 올랐다.

저 멀리 백두산 산정에서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장군별이 높이 떠 령룡히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고의 숲이 뒤설레이며 광풍이
일더니 장수봉부근이 희뵈히 밝아지는것이였다.

그 순간 장수봉에서 청색의 불찌가 병곳 피여
오르더니 장군별결에 또하나의 별이 솟아올라 백
광을 뿌리였다.

그러자 수백수천의 작은 별들이 모여 그 주위
를 둘러싸며 은하수를 비껴놓았다.

《백두광명성이다!》

마을사람들은 이렇게 웨치며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하였다.

《참, 신기하지 않소. 박로인의 말대로 장수봉
에서 2월 16일에 정말 광명성이 솟아오르고 은하
수가 비끼니...》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나라가 해방되고 백
의민족이 흥할 징조라고 하였다.

이날부터 이고장 사람들은 3천리를 되찾을
조국해방의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 더
군세게 살았다고 한다.

가사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

최종히

우리는 장군님의 일당백전사
그 어떤 원수도 두렵지 않다
장군님 명령만 내리신다면
우리는 멸적의 총폭탄되리
아, 영광넘쳐라 기쁨넘쳐라
우리는 장군님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

산악이 막아서면 폭풍쳐 넘고
원수가 덤벼들면 짓밟개버리리
장군님 위하여 결전의 그날
우리의 한목숨 웃으며 바치리
아, 영광넘쳐라 기쁨넘쳐라
우리는 장군님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

조국의 운명도 이 땅의 미래도
우리의 총창우에 어리어있다
장군님 높은 뜻 받드는 길에
우리는 서슴없이 자폭도 하리
아, 영광넘쳐라 기쁨넘쳐라
우리는 장군님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

마중하는 땅

최성진

순안도로를 벗어나 한참 가느라면 평원읍을 약 이십리가량 못미처 좌측으로 하얀 집들이 들어앉은 양지비른 고장이 보인다. 평양의 북쪽 교외에 자리잡고있는 이 마을이 바로 우리 당 력사에 올라있는 영광의 땅 원화마을이다. 원화마을과 이웃하여 조중친선 택암협동농장이 자리잡고있고 평의선철길이 뻗어나온 멀리 벌판너머로는 수도의 일각이 보인다. 건듯 들린 파아간 하늘에서는 은빛 려객기의 거대한 동체가 해빛에 번쩍인다. 어느모로봐도 현대화의 숨결이 느껴지는 땅이다.

나는 기본도로를 벗어나 순안에서부터 강쪽길을 따라 걸었다. 개버들이 우거진 강변에서는 천렵에 재미를 붙인 로인들이 살진 붕어를 낚아내고있었다. 좋은 낚시절이었다. 하지만 나의 눈길을 끄는것은 강쪽너머 펼쳐진 포전들이었다. 갓 모내기를 한 논판들에서는 모살이가 끝나 푸른빛이 완연한데 강냉이는 거름독이 올라 벌써 꺼매지였다. 협동화의 첫 씨앗이 뿌려진 땅! 그날의 씨앗은 움트고 자라올라 대지를 무성하게 뒤덮었다. 력사의 고장은 온 나라가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을 하는 이해에도 풍작이 예감된다. 작황좋은벌을 바라보며 걷는 나의 가슴은 설레었다. 언제부터 와보고싶었던 땅인가. 나는 비로소 조국기행의 걸음을 사연많은 이 땅에 이어놓는것이다. 사연깊은 땅에 들어서니 위대한 수령님 처음으로 오셨던 그날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날은 1952년 5월 10일이였다. 하늘에 못별들이 반짝이는 이른새벽이었다. 아직은 이고장 주인들마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그 새벽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신것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아직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전쟁을 기어이 제놈들의 《승리》로 결속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밑에 의연히 모험적인 공세에 매달리고있었다. 하여 전선 고지들에서는 련일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바다와 하늘은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드는 미제침략자들의 비행기와 함포사격소리로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서는 승리한 조국의 래일에 펼쳐가실 농업협동화의 원대한 구상이 무르익고있었다. 그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이름도 없는 교외의 자그마한 마을을 찾으신 수령님이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고장 주인들의 단잠을 깨우지 않으시려고 농가앞을 조용히 거니시며 날 밝기를 기다리시였다. 축축히 젖은 서늘러운 대기, 멀리 앞내쪽에서는 물소리가 소연히 들려오

는데 어둠이 밀려가는 갈아엎은 땅에서는 흰김이 무럭무럭 피여오르고있었다. 씨앗을 기다리는 땅이있다.

힘께 온 일꾼들이 집주인을 깨우려고 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민들이 아직도 단잠에 들어있는데 그들이 깨여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그 음성에는 인민을 위하시는 한량없는 사랑이 어려있었다.

날이 흰해졌을 때에야 집주인은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왔다. 첫순간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온 나라가 미제침략자들과 판가리싸움을 하는 준엄한 시기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떠안고계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이른새벽 두엄내풍기는 농촌마을에 와계실줄이야 어찌 상상이나 했으랴.

하지만 꿈이 아니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안방의 해빛밝은 벽에 초상화를 모시고있어 인자하신 그모습 첫눈에 알리는 수령님께서 밝아오는 새벽빛에 휩싸여 환히 웃으시며 다가오시지 않는가. 성큼성큼 다가오시며 집안식구들은 다 무사한가고 다정한 음성으로 물어주시지 않는가.

집주인은 송구한 마음으로 어찌할바를 몰라하다가 이윽해서야 그이를 방안으로 모시려 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발머리에 나가 이야기나 하자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먼저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한나절이나 별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시며 협동화의 씨앗을 그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부락으로 돌아오시여 인민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도 깊은관심을 돌려주시고 앓아누운 농촌집 녀인도 따듯이 위로해주시였다.

나는 그날의 뜨거운 사연들을 되새겨보며 먼저 《농민의 집》을 찾았다. 이 나라 농촌의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던 수수한 보통집이였다. 1952년 5월의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원화마을에 오시여 별로 나가시는 길에 이 집에 들리시여 손수 가마뚜껑도 열어보시면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당시 이곳에는 대동군직물합작사가 자리잡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아침식사마저 뒤로 미루시고 직물합작사에도 들리시여 사원이 몇명이나 되는가, 어떤 천을 짜고있으며 수직기는 몇대나 있고 하루 천생산량은 얼마나 되는가, 사원들의 생활에서 곤란한것은 무엇인가, 부식물은 어떻게 해결하고있으며 월수입은 얼마인가 등 근로자들의 생활정형과 생활형편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세심히 알아보시었다. 그러시고나서 녀성근로자들의 사업성과를 크게 고무해주시며 천을 더 많이 생산해서 후방인민들과 인민군대에 보내줄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나는 직물합작사가 자리잡고있던 집터를 돌아보고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원화벌로 나갔다.

아지랑이 피여오르는 먼 야산기슭에 이르기까지 곡식이 자라고있었다. 벌써 누런 색이 완전한 포전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들은 조기작물로 심은 밀과 보리였다. 강냉이밭들은 김하나 없었다. 이윽하여 내앞에는 잘 정리된 규격포전이 나타났다.

포전머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52년 5월 10일 원화마을 농민들과 함께 만풍년의 첫 씨앗을 뿌리신 포전》이라고 쓴 화강석표식비가 서있었다. 그러니 여기가 바로 전화의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시여 농민들과 함께 봄씨앗을 뿌리신 영광의 포전이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데리고 나오신 군인들을 다 모여놓고 농촌에 나왔는데 우리도 오늘은 농민들을 도와 파종을 하는것이 어떻소 라고 하시며 먼저 군인들에게 씨뿌리는 법을 배워주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웃웃을 베풀고 거름도 나르시고 씨앗도 뿌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옛날에는 뽕새가 울어아 밭갈이를 했지만 지금은 파종을 일찍 해야 곡식도 잘 여물고 적은 토력을 가지고도 제때에 농사일을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밭에 관수도 하고 늪에는 고기를 기르며 주변 야산들에는 과일나무와 뽕나무를 심고 아담한 문화주택에 전기까지 끌어들여야 한다고 원화리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일하면 이 위대한 전망을 능히 현실로 꽃피울수 있다고 농민들의 가슴속에 농업협동화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원칙과 그 규모 및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 원화벌에 뿌리신 봄씨앗! 그것은 우리 나라 농촌의 세기적전변을 안아온 협동화의 첫 씨앗이었다. 그 귀중한 씨앗은 력사의 땅에서 싹트고 자라나 온 나라에 협동화의 새봄을 불러온것이다.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왔다. 력사의 고장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영광의 년륜을 아로새겨왔으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이 농장에만도 100여차례나 찾아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사 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화농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협동화의 새싹을 심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력사의 고장이라고 하시면서 친히 이곳 농장의 명예농장원이 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의대로 공산주의 리상촌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원화리의 집집마다에 그리고 포전길마다에 어려있는 위대한 령도의 자욱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고장 농민들을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명예농장으로 모신 력사의 고장 원화리! 이 세상에 더없는 영광을 받아안은 원화농장은 협동화의 생활력을 힘있게 떨치며 전변의 시대를 노래하고있다. 준비하게 일어난 현대적인 공공건물들과 문화주택들, 일직선으로 뻗어간 포전길로는 트랙터들이 줄지어 달려가고 풍년작황이 펼쳐진 포전들을 지나 야산의 과원에는 푸른 열매가 주렁졌다.

하루일을 끝내고 모여앉은 화기로운 저녁이면 농장의 문화회관에서 울려나오는 예술소조원들의 노래도 들을수 있다고 하니 생활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지금 이 땅에는 더 훌륭한 미래를 가꿔가는 참된 주인들이 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워 농장을 더욱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만들며 풍년든 이 땅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다시 모실 하나의 간절한 소원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들속에는 원화농장 당비서 김만석동무도 서있다.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화마을을 지켜싸운 세포위원장의 아들이다. 어느 군에서 군당 일군으로 일하던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이 어려있는 원화리를 더 훌륭하게 일떠세울 결심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당을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실줄아는 일군이다. 그는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푸는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영광의 땅에 풍년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일군이다. 하지만 일은 떡 먹듯 쉬운것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없는것, 부족한것은 또 얼마나 많은것이라. 하지만 그는 붉은기정신으로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내달린다. 두엄생산에도 앞장에 서고 김매기나 국토건설, 농장꾸리기에서도 앞장에 선다. 그러한 일군이 있기에 농장원들의 일하는 본새도 다르다. 어디에서나 잔치고 이악한 일본새를 찾아볼수있다.

원화리의 래일은 창창하다. 아름다운 미래를 마중하는 력사의 고장 원화리! 나는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며 푸른 전야의 기슭으로 난 방죽길을 걸어갔다.

백두산장군의 위대한 역사앞에 드리는 열정의 송가

—축하시 《장군의 눈보라》에 대하여—

김철민

민족최대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2월 16일을 천다섯번째로 맞이하던 뜻깊은 아침에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큰 기쁨을 더해주시며 축하시 《장군의 눈보라》(김만영)가 창작발표되었다.

시는 심오한 사상정서적내용과 높은 예술적품격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축하시 《장군의 눈보라》는 수령형상시문학의 위력을 또 한번 크게 떨친 훌륭한 작품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축하시 《장군의 눈보라》는 수령형상송가로서의 특색이 뚜렷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축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종자를 독창적으로 잡아쥐고 특색있고 품위있는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꽃피움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투철한 숭배심, 뜨거운 칭송의 사상감정을 개성적인 정서적체험세계에서 노래한 열정의 송가로 된다.

...

빛나는 55성상
그 첫자욱을 더듬어도 눈보라
멀고먼 천만리길
그 굽이굽이를 더듬어도 눈보라
이해의 첫아침을 더듬어도 눈보라 눈보라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55성상 혁명력사앞에 조국과 인민을 불러세우고 눈보라를 노래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55성상을 천만자루의 붓을 들고나서도 다 노래할수 없었던 시인으로 하여금 결단코 한자루의 붓을 들고 나서도록 충동한 눈보라의 형상적힘은 어디에 있는가?

수령형상송가문학이 걸이온 빛나는 력사를 들어보면 눈보라를 노래한 시가 비단 한두편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언제나 시련의 험한 길, 고난의 눈보라를 한몸으로 헤쳐오신 까닭에 송가들은 격정에 넘쳐 거듭거듭 그 눈보라를 노래하였다.

물론 고난과 시련의 눈보라를 형상한 그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충격을 줄수있다.

하지만 축하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나 시련의 눈보라를 헤쳐오신 사실을 감명깊게 노래하는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감동적인 사실생활에 내포되어있는 끝없이 심오한 진리성과 철학을 밝혀내고있다.

눈보라에 담겨진 철학, 그것은 백두산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혁명관이고 투철한 혁명적신념이며 천하제일의 위인적품모이다. 이것을 밝혀내고있는데 바로 축하시의 종자가 있고 눈보라의 형상을 비상히 높은 정서적감화의 세계에로 끌어올리게 한 형상적힘의 원천이 있다.

축하시의 종자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한평생 눈보라속에 계신다는데 있다.

시인이 이 종자를 틀어쥐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또 이 종자에는 얼마나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가?

...

폭풍치는 눈보라에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혁명의 고향 만경대
력사의 그 길우에
거연히 서계시는 김정일장군!

그이께서 휘몰아오신 백두의 눈보라인가와와 타래치며 내닫는 눈보라
그 눈보라에 호탕한 웃음을 실으시며
이 땅의 행운을 실으시며
장군은 1월을 호홉하신다
하많은 사연이 깃든 그 길우에서
장군은 세계를 호홉하신다
...

마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눈보라를 휘몰아오신듯, 눈보라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선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과 타래치며 흐르는 눈보라가 하나로 어울려진 이 숭엄한 화폭앞에서 시인의 창작적충동은 억제할수 없이 치밀

어오르고 정서적체험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눈보라에 한몸을 내맡기시고 만경대의 큰길우에 호탕하게 웃으시며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면서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불멸의 55성상을 돌이켜보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눈보라가 경애하는 장군님과 잘 어울린다는 시각적인 발견을 력사가 검증한 심오한 진리로 크게 확증시켰다.

《태어나 첫자욱도 푸른 잔디가 아니라 눈보라우에 찍으》시고 《백두산일가가 풍찬로숙한 눈보라치는 백두광야》를 내리시는 그길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흐르는 한초한 초 흐르는 하루하루를 백날천날로 사시며 혁명앞에 한몸을 다 내대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기에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평생에는 일요일이 없었고 봄날의 아늑함을 즐기신적은 더더욱 없었다.

하기에 축하시에서는 눈보라의 노래가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받을수 있고 당신만이 받아야할 력사의 인사》라고 격조높이 웨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눈보라속에 한평생을 보내신 백두산의 장군이시라는 문학적인 종자는 백두산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특징을 뚜렷이 부각함으로써 위력한 형상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종자로 되고있다.

축하시의 종자는 백두산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특징을 뚜렷이 부각할뿐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혁명관을 구현한 심오한 철학적종자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사상과 철학, 수령의 담력과 의지에 의하여 전진하고 승리하는 수령의 혁명위업인것만큼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 수호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결국 수령의 혁명관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더우기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해야하는 조건에서 전당, 전민, 전군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치는것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오늘의 혁명실천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 특히 시문학으로 하여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철학, 투철한 혁명관을 노래하는 전투적기치로, 투쟁의 복소리로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축하시는 바로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요구에 대하여 훌륭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

우리 장군님 혁명의 진두에서
붉은기를 누리에 휘날려가시는 눈보라
이 땅에 부흥을 불러오며
조국청사에 장엄한 새 장을 펼치는

행운의 눈보라
환희의 눈보라
승리의 눈보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휘몰아가시는 눈보라를 노래한 여기에 주체의 붉은기가 세차게 나뭇기는 오늘의 시대상이 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높이 서시여 모든 고난과 난국을 타개해나가시기에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는 굳은 확신과 신념을 담은 웅심깊은 시적 형상이었다.

축하시의 종자가 이렇듯 심오한 사상적문제성을 제기할수 있게 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철학을 집약화하여 가장 위대한 혁명력사의 밑바탕에서 흘러나온 보편적인 진리로 힘있게 확인한데 있다고 본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세계에서 혁명이란 곧 시련의 눈보라속에서 인식되는 숭고한 투쟁이었다.

아, 수령님의 위업을 받들고
어머님의 념원을 꽃피우며
언제나 혁명의 길
폭풍치는 눈보라속에 계신
장군님의 55성상!
...

폭풍치는 눈보라속에 흘러간 장군님의 55성상! 이 웅건한 화폭속에는 혁명의 시련을 달게 여기시고 맞받아나아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담대한 혁명적기상이 있고 눈보라를 이기는 기질을 천품으로 타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대품모가 있다.

혁명의 눈보라속에 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시련을 헤치는 보람찬 창조적투쟁속에 혁명이 있고 시련의 눈보라를 헤쳐나가는데 혁명가의 값높은 삶이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이것이 축하시에서 종자로 구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관이고 승리와 영광으로 찬란한 55성상의 혁명활동력사에 깊이 관통되어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철학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언제나 눈보라속에 계신다는 종자는 커다란 정서적감화력과 생명력을 가진 종자이며 많은 철학적무게와 심오한 사상적문제를 안고있는 종자이다.

축하시에서는 철학적인 종자를 탐구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꽃피우고있다.

축하시에서 종자가 가꾸어지는 형상터전—형상과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55성상 혁명활동력사이다.

축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하는데 형상의 중심을 두고 이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축하시에서는 무엇보다도 눈보라의 상징적형상에 내재되어있는 본질적의미를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과 결부하여 깊이있게 밝혀내고 있다.

...

오, 눈보라 눈보라
1월도 정월초하루
만경봉의 솔숲에서 터져올라
고향집 사립문을 흔들고
언덕을 넘어넘어 줄달음치는 눈보라
만리창공에 솟구치고 땅우에 휘몰아치며
희고흰 눈가루를 뿌려
은백의 세계를 가득 채우는 눈보라여

...

축하시에서는 우선 만경대의 눈보라를 노래하고 있다.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정월 초하루의 그날에 혁명의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경대에 붙어치는 1월의 눈보라속에서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려 혁명의 맹세를 굳게 다지시며 1월의 눈보라속을 힘차게 걸어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그 자욱을 새겨안으신다. 또한 그 눈보라속에서 대대로 애국의 넋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새겨놓고 조국해방을 위하여 1월의 눈보라속을 쉬임없이 이어간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숭고한 모습을 더듬어보신다.

축하시에서는 만경대의 눈보라에 정일봉에 흐르는 2월의 눈보라를 겹치여 형상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천품에 결부시켜 눈보라의 형상을 끝없이 승화시키고 있다.

1942년 2월 16일!

백두광명성의 빛발이 천지의 호반우에 찬란히 서리던 력사의 그날에 백두산 정일봉의 눈보라는 아름답리나무들에 눈꽃을 피워 축복의 설경을 만리광야에 펼치고 조선의 대통운, 민족의 대경사를 노래하며 설레이었다.

여기에서 백두의 눈보라는 이미 거치르고 무정하기만 하던 사나운 눈보라가 아니라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보라로 되고 있다.

《아버님은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이시고 《어머님은 빨찌산의 경위장군》이신 빨찌산의 가정에서 빨찌산의 혈통, 빨찌산의 기상을 안고 탄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백두산의 눈보라가 터친 목소리는 무엇인가?

눈보라속에 우등불을 피우고

생 눈을 녹여 마시며
백두산일가가 풍찬로숙한
눈보라치는 백두광야는
이 세상에 없는
3대장군의 집이있다!
...

그 집 그 뜨락에서
백두산악을 징검돌처럼 딛고 넘나드시며
천하슬기, 천하용맹을 한몸에 안으신 그
이
그이는 혁명을 시작해도
크게 시작하신분

담력도 백두의 담력
기상도 빨찌산의 기상
배짱도 장군의 배짱
천품도 영웅남아의 천품
...

백두의 눈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천하무적의 담대한 기상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혁명을 시작해도 크게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축하시에서 눈보라의 형상은 그 상징적의미에 있어서 참으로 웅심깊다.

만경대가문에 전해지는 애국애민의 리념이 깃들어있는 만경대의 눈보라!

백두산 3대장군의 천하무적의 담대한 기상이 내려치는 백두의 눈보라!

한평생 그 눈보라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진정 애국애민의 그 숭고한 리념으로 천만대중을 묶어세우시여 가장 위력하고 공고한 혼연일체를 이룩하시고 천하무적의 담대한 기상으로 이 땅우에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반혁명의 역풍을 맞받아 혁명의 붉은기를 억세게 휘날려가시는 위대한 백두산의 장군이시였다.

바로 여기에 축하시가 심오한 종자에 기초하여 밝히고 높이 칭송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하신 위인상이 있고 거대한 형상력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55성상을 그대로 시화한 눈보라형상의 본질이 있다.

이처럼 눈보라의 상징적형상에 있는 본질적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힘있게 구가함으로써 축하시는 사상과 덕망에 있어서,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우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라는 력사의 철리를 시대의 목소리로 터쳐올린 훌륭한 명작으로 되고있다.

축하시는 더 나아가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

한 혁명력사의 55성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는 온 세상을 진감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거대한 감화력과 한계 없는 폭과 끝없는 심도를 지니고 찬란히 빛나고 있다.

여기에 무슨 수식과 꾸밈이 더 필요하며 무슨 각광이 필요하랴! 하지만 이 위대한 력사를 있는 그대로 노래한다는 그 자체에 벌써 최상의 수준, 최대의 풍격을 가진 다함없는 칭송의 송가, 인정의 찬가가 요구된다.

수령형상송가의 이러한 요구를 축하시에서는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축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진실하게 노래한것은 물론이고 훌륭한 종자에 기초하여 폭넓고 심오한 정서적체험세계로 형상함으로써 천만대중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크게 가르쳐주고있다.

눈보라의 하많은 사연을 안고 가장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력사가 흘러가고있다.

눈보라는 이 위대한 력사를 감격속에 따라서고 있다.

반세기전 빨찌산 3대장군이 준마들을 타시고 장쾌하게 달리시던 백두광야에도 일어번지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켜 걸어가시던 50년대 백두의 행군길우에도 몰아치는 눈보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더 잘 모시려고 밤잠도 잊고 일하시는 당중앙창가에도 설레이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새해의 첫인사를 드리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의 송엄한 마당에도 불던 눈보라!

눈보라는 대담무쌍한 시적환상과 자유분방한 시적사색의 나래에 실려 힘있게 솟구치고 내달으며 세상에서 아직 있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충성과 의리의 력사를 펼쳐보이고있다.

몇해전 그 어느날 그 나날엔 왜서인지 해도 달도 빛을 잃고 구름도 무겁게 떠돌고 산천에도 그늘이 비껴있었다. 정말 그누구도 몰랐으니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받드시느라 밤잠도 잊으시고 정력에 넘쳐 사업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병을 안으시고 병상에 몸져 누우시었다는것을...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육체적인 자신의 아픔보다 하루에도 그 몇번 병문안을 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크나큰 근심과 심려를 덜어드리자고 초인간적인 의지와 열화같은 충성심의 힘으로 병을 털고 일어서시었다.

축하시는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장속 깊이 간직되어있는 충성과 의리의 숭고한 세계를 감명깊게 밝혀냄으로써 심오한 철학적바탕우에

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가장 숭고한 충성과 의리의 력사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축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오신 빛나는 충성의 력사를 노래한 송엄한 노래로 뽐뿌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헌신적복무의 력사에 대한 열렬한 찬가로도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55성상이야말로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헌신의 력사이다.

눈보라의 노래속에 《순간의 휴식도 없이 온 심장을 불태워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가 뜨겁게 안겨온다.

동지설달 어느날 눈은 내리고 바람이 부는데 인민생활을 푸시려 미끄러운 언덕길을 달리고 달 달리시다가 마을이 먼 길녘에 차를 멈추시고 온 하루 한지에서 얼어든 발을 한소랭이의 찬물에 녹이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눈보라도 감동에 젖어 흐느끼며 노래하고있는것이다.

...

그렇게 언발을 녹이시고는
물기도 채 마르기도전에
또다시 눈길을 헤쳐가시는 그이를
별들도 흐느끼며 따라섰으니
우리 그 사연을 알고서 더운밥 들고
아늑한 잠자리에 들었던가

그렇게 차거워진 그이의 손을 잡고
가슴 몽클 젖어들며
두손모아 녹여드디고싶던
그 어느 마을의 녀인도
그 사연은 다는 몰랐거니
...

축하시는 인민에게는 가장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자신은 하늘땅이 얼어붙는 가장 엄혹한 눈보라속을 헤쳐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를 높이 칭송하면서 오늘의 행복과 영광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는것인가 하는 시대의 물음앞에 빛나는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이처럼 눈보라의 시가 노래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있어본적이 없는 인민을 위한 무한한 헌신적복무자의 력사이다.

축하시에 울리고있는 눈보라의 노래가운데는 천하무적의 강군을 키워오신 최고사령관의 령군 력사에 대한 열렬한 찬사도 있다.

...

휘날리라 군기들이여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군대는 곧 당
군대는 곧 인민
군대는 곧 조국
군대는 군대는
붉은기 날리는 우리의 사회주의

휘날리라 나뭇기라
최고사령관기 따라
최성기를 맞이한 혁명무력의 영광을
만천하에 떨치라
...

축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이 군대에 대한 령도를 통하여 전당, 전민, 전국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시어 가장 성공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해나 가시는 장군은 없고 최고사령관의 권위로 혁명무력의 기상과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신 위대한 장군은 없다는 사상을 힘있게 밝히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군건설력사우에 조국통일의 승고한 념원과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철석의 신념이 나래치고 있다는것을 강렬한 주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축하시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군력사를 최상의 높이에서 노래하려는 시대적과제를 훌륭히 해결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축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55성상 혁명활동력사의 줄기줄기를 폭넓게 노래하고있을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효의 력사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력사, 불패의 혁명무력령도사가 호상 침투되어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흘러가게 함으로써 력사적화폭의 심오성을 보장하고있다.

이처럼 축하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언제나 눈보라속에 계신다는 심오한 종자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빛나게 부각하고 불멸의 55성상 혁명활동력사를 산 력사의 화폭으로 감명깊게 그려내어 높이 칭송함으로써 높은 사상적풍격을 보여 주고있다.

축하시의 높은 사상적풍격은 훌륭한 예술적형상에 의하여 튼튼히 담보되고있다.

축하시가 거둔 예술적성과를 두고 말할 때 우선 짚게 되는것은 구성이다. 축하시는 매우 특색있는 구성형식을 취하고있다.

축하시에서는 《3대장군과 눈보라》, 《봄날과 눈보라》라는 두개의 큰 기둥에 기초하여 감상정서의 흐름을 펴나가고있다.

이 두개의 장을 내용상으로 련결시켜보면 경애하는 장군님은 백두산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눈보라를 헤치시며 인민의 행복이 넘치는 봄날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이시라는 하나의 완결된 론리적귀결이 떨어진다.

이것은 두개의 장들사이에 고도로 밀착된 론리적련관성이 있으며 종자해명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구성상 완벽성과 편리성을 보장하였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시에서는 큰 감정선뿐아니라 하나하나의 요소들과 부분들도 빈틈없이 맞물리고있다. 시의 정서적흐름가운데서 서사적묘사와 주정토로, 대사 등 모든 요소들은 필연적인 위치에 놓여있으며 다양한 사건과 일화, 사실들은 완벽한 감정론리를 타고 튼튼히 맞물려져 있다.

...
너무 피곤하여 눈에 피가 지면
수령님께 걱정을 끼친다고
쓰지조차 앓던 색안경을 끼고
수령님앞에 나서시더니
갈린 음성 들으시면
수령님께서 심려하신다고
전화기조차 들기 삼가하시더니

인민이여 조국이여
생각하기조차 가슴아프구나
이 사연
진하기조차 마음이 저리는구나

몇해전 그 어느날
그 나날은 왜서인지
해도 달도 빛을 잃었다
구름도 무겁게 떠돌고
산천에도 그들이 비껴있었다
...

시에서 이 대목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께 심려와 근심을 끼쳐드렸세라 자신의 피로를 애써 감추신 감동적인 사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병을 안으시고 병상에 몸져누우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에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감동에서 충격으로 생활정서를 이행시키고 심화시키는 힘이 대단히 크다. 만약 여기에서 인민과 조국을 부르는 주정토로 한련을 빼거나 자연이 온통 빛을 잃었다는 내용의 시구절을 다른것으로 바꾸어넣어본다면 그때에도 이 대목의 커다란 정서적효과성을 두고 말할수 있겠는가?

없다! 만약 어느 한줄, 어느 한련이라도 다른것으로 바꾸거나 들어낸다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승화시켜나가는 이 대목의 유기적인 맞물림은 흐트러지고말것이다.

이처럼 축하시는 구성의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튼튼히 맞물리고있다.

축하시는 또한 감정조직을 립체적으로 엮어나가고있다.

립체적으로 깊이있게 맞물리고있는 작품의 감정조직에서 주되는 핵으로 되는것은 생활정서의 감각적인 대조와 대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서 흐름이다.

시의 첫부분에서 서정적주인공이 만경대의 눈보라를 노래하는 대목을 살펴보자.

...

저기 대동강 하얀 은반우에
억만가닥 해살은 어리광치고
여기 서리꽃을 피워안은
만경봉 청솔아래로는
웃음핀 사람들의 물결이 흘러라

그 어디를 보아도
2월의 봄
조선의 첫 봄은 흐르는데
그 어인 일이나
이 가슴속에 또다시 세차게 불어치는
만경대의 눈보라

...

얼마나 감각적인 정서의 대조인가!

서정적주인공은 행복에 넘치고 환희로 물결치는 따스한 봄날의 정서우에 하많은 사연을 안고 사قم쳐흐르는 눈보라의 정서를 겹쳐놓고있다.

본날이 흐르는 오늘과 눈보라치는 장군님의 한평생! 이것은 작품의 정서흐름을 굴곡과 기복속에서 부단히 승화시키고 즐기치게 흘러갈수 있게 하는 생명력이 큰 정서적대조인 동시에 작품전반에 립체적인 감정조직이 형성될수 있는 전체를 지어준 정서적기초로 된다.

여기에 기초하여 작품에서는 백두산 3대장군의 만고풍상과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의 대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병으로 몸져누우시자 자연도 빛을 잃더니 병을 털고 일어나시자 다시금 밝아졌다는 대조, 인민은 2월의 명절을 대경사로 즐기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동일로 보내신다는 대응 등 많은 대조와 대응의 화폭들로 립체적인 감정흐름을 펼치고있으며 어제와 오늘, 현재의 느낌과 과거의 회상이 끊임없이 교차반복되는 폭넓고 심도있는 정서적형상을 펼치고있다.

이처럼 축하시는 빈틈없이 맞물리고 립체적으로 잘 조형된 감정조직을 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활동력사를 웅건하게 노래할수 있는 훌륭한 구성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축하시가 거둔 예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언어형상의 위력에 있다.

축하시에서의 시적언어는 승엄하고 절절한 언어, 높은 분석력과 개괄력을 가진 언어, 박력있

고 장중한 음악적인 언어로 특징지어진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특징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축하시는 백두산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55성상 혁명력사를 격조높이 노래한 시대의 찬가로서의 언어형상적풍격을 갖추고있다.

...

일요일조차
장군님 맞으시는 일요일은
인민을 위해 일하시는 로동일
2월의 명절날조차
장군님은 일하시고 인민은 즐기니
정녕 2월의 명절은 장군님의 명절인데
늘 인민만이 쇠는 명절로 되지 않았던가

여기에서 《조차》라는 하나의 토가 가지고있는 비상한 표현적효과를 두고서도 가장 절절하고 승엄한 감정을 담은 언어형상의 무게를 얼마든지 말할수 있다.

이러한 절절하고 승엄한 정서를 가진 시련들이 즐기치게 련쇄되어 흘러가는속에서 시의 전반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는데 알맞는 양상적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다.

축하시의 커다란 언어형상적위력은 생활의 본질과 력사의 진리를 심오하게 해부하고 조명하여 밝혀내는 높은 분석력과 개괄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장에 타오르는 혁명의 불이 가져온 위대한 승리를 주체의 혁명전통을 이어놓고 혁명의 천하지대본을 완성하고 강철의 당과 강철의 군대를 내려준데 있다고 노래한대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느낄수 있다.

축하시는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노래한 시의 세계에 인차 깊숙이 끌려들어갈수 있도록 운률을 장중하고도 박력있게 조성하고있다. 시의 어느대목, 어느 구절을 들어보아도 가장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력사를 칭송하는 시대의 숨결, 시대의 음악이 힘있게 흘러나오고있다.

참으로 축하시 《장군의 눈보라》는 높은 사상적풍격을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튼튼히 담보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55성상 위대한 혁명력사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심을 시대의 목소리에 담아 훌륭히 일반화한 열정의 송가로 된다.

찬란하여라 조선의 미래

바도 바고라

오 조선이여
악마들에게 물리였던 그대
흡혈귀들에게 뜯기웠던 그대
존엄마저 짓밟혔던 그대
허나 그대 빈터우에서 솟아났어라
굶주린 승냥이들 그대를 삼키려했건만 오산
했어라
기뻐하라
새 력사가 시작된 조선이여
그대는 위대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
어제날의 살인귀들
미쳐날뛰어도

망상을 이루지 못하리

조선이여
암흑을 쓸어버리며
그대를 비치는 태양
그이는 **김정일**동지
그이 모시여
그대 반드시 통일되리
그 통일 허물자 없으리니
찬란하여라 조선의 미래여

(필자는 부르끼나파쏘사람임)

뜨거운 봄

김휘조

뜨거운 봄

아직 잠 안 깬 강변엔
떠도는 젖빛안개
대문 활짝 열어젖힌 집집의 처마밑엔
재재거리는 제비소리

이삭물결 설레일 가을은 먼데
그날을 그려 서둘러 잠을 깬 마을
논판의 안개속에 끝만 내놓고
성큼성큼 걸어간 전주대들은
방금 기슭을 떠난 큰 배의 마스트인가

멀리 가까이 발동소리, 새벽을 흔드는 소리
안개속에 어른대는 프락포르와 함께
움직이는 쇠씨레가 번뜩인다
선전실마당이 비좁게 들어섰던
프락포르들은 벌써 들을 누비누나

어느 뉘 밤새 흘린 땀 어려선가
저 모판엔 비닐박막 번뜩이고
길가 채소밭엔 분수비 내리는데
배나무집 영실이 급히 길에 나서네
푸른 머리수건 바람에 날리며
어서 끝내야 할 모내기인데
자기만 늦겠다고

휘우듬히 굽어든 저 강쪽으로
빨간 런닝그 입고 뛰는듯 나는듯
들로 나가는 젊은이
어깨에 삽날 번뜩이며 걸음 재우치는
마치 붉은 기발이 달리는듯

새벽이여 잠을 깬 새벽이여
모내기를 다그치자고 토론도 불갈더니
저봐라, 자전거리는 이런 때 타는거라고
칠성이 쌍쌍 들로 몰아가고
동녘엔 이제사 해가 빙그레
얼굴을 내미네
벌써 잠을 깬 마을을 보기 부끄러워
붉어만지네

아, 봄 뜨거운 봄
날알을 가꾸려 아래웃반
모두 바쁜 마음

프락포르 발동소리에 날리는 머리수건에
자전거의 행렬 이어져 들끓는 새벽이여
풍년가을은 정녕 멀리 있더냐
벌써 들에 와있어라
새벽을 깨운 뜨거운 마음들을 타고

눈보라를 안은 봄

남새밭 하얀 장다리꽃에
집집의 울바자가
연분홍 당콩꽃에
봄은 웃어도 웃고있어도

이 가슴엔 눈보라 회오리 눈보라
병아리떼 모이 쫓는 밝은 저 마당에
검은 핵구름을 몰아오려
푸른 하늘 출렁이는 저 수로에
물이 아닌 우리 피가 흐르게 하려
원썩들은 오늘도

공화국 《압살》책동에 매달리거니

이 난관을 눌러짚고
앞으로만 나아가자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나아가자고
당은 우리를 불렀거니

아, 봄 푸르려 웃는 봄
프락포르 발동소리에, 흐르는 물소리에
아지랑이 일어에는 들은 따뜻해도
모내는 기계 돌아가는 이 마음

백포자락 펄럭이는 그날의
 행군대오에 선듯
 허리굽혀 한줌
 부드럽게 풀린 흙을 쥐어보면서도
 그날의 찬눈을 쥐어보는 마음이어

이 가슴엔 눈보라 하얗게 이는 눈보라
 쌀로 장군님을 웅위하며
 그날의 투사들처럼 살자고

쌀로 사회주의를 지키며
 들에 언덕에 보루처럼
 풍년날가리 높이 쌓아가리니

꽃속에 햇빛속에 봄은 웃어도
 이 가슴엔 눈보라 못잇는 눈보라
 이 땅의 영원한 봄
 영원히 가지 않을 봄을 위하여

내 여기서도 보는구려

기계화작업반이며 잠업반
 목장과 과수반을 함께 돌아보며
 제방을 쌓아
 새로 일쿨 땅을 이야기하며
 꿈많은 농장기사는 말하네
 살기 좋은곳이지만 부족한게 있다고
 더 힘껏 일해야 한다고

그의 꿈에 이끌려, 원대한 계획에 이끌려
 나는 걸다가 멈춰섰네
 농산반 산뜻한 흰 벽가
 방금 써붙인 속보들—
 누구는 어둑새벽
 거름 듬뿍 지고 들로 나갔다고
 누구는 새벽에 논두렁 짓기 시작해서
 아침손엔 하루일 절반을 했다고

땅을 살찌워
 한알의 곡식이라도 더 내리는 마음
 긴장한 거름원천을 찾아
 처녀들은 개바닥 깊숙이 파냈다고

아, 사위엔 물소리, 봄바람의 그윽한 속삭임
 나는 흐뭇이 기사장을 바라보았네
 —어려운 때 사람을 안다 했으니
 진짜배기 애국자들 여기 있구려
 들판에 낱알보다 저 처녀들
 기특한 마음이 먼저 여물었구려

농장엔 아직 부족한게 많지만
 아니요, 맘씨고운 사람들 많은
 이 농장은 정말 부유한 농장
 정말 부유한 농장 예서도 보는구려

풍년모내기

누가 이름 지었나 풍년모내기라고
 그렇더라, 제비도 몰차며 나는
 유리판같은 논판에 이랑이랑
 푸른 옷을 입히는 우리 마음
 가을이면 텅길듯 이삭으로 영글리

잘못 지은 농사는
 이해엔 다시 못짓는다
 두렁너머 써레치는 트랙트르야 어서
 더 세차게 들을 흔들어라
 삼봉산 저 너머 해 떨어질라

누가 선사해주는 행복이더냐
 모춤을 켜 우리 손이 행복을 가꾼다

모내는 기계야 어서
 테제의 빛발아래 마을을 더 꽃파우려
 새벽이슬 차며 거름을 마련하던
 이슬처럼 정갈한 마음을 벌에 내자

그 마음을 벌에 내자
 수령님 오시여 이삭을 쓸어보시던
 그 들길을 오래오래 걸으시던 장군님
 그날의 모습을 못잇는 마음
 쌀이 많아야 사회주의를 지킨다신
 장군님 말씀 안고 별로 나가던 마음

거울은 마음을 못비쳐도
 여문 낱알은 농군의 마음을 비치더라

흐뭇한 난가리 들에 그려보며
애지중지 모를 키운 마음을 벌에 내자
그렇다, 풍년모내기
온 나라에 웃음을 꽃피우는 모내기다

우리의 사회주의를 빛내는 모내기다
푸른 벼포기 푸른 바다를 펼치는 이 봄날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벌에 내자
빛나는 래일을 이 벌에 내자

우리 분조사진

차림새 없는 모습들이 더 좋구나
누구는 땀젖은 농립모를 쓰고
누구는 또
발을 부르걸고 팔을 부르걸고

명절날 찍은 사진도 아니다
속보에 난 우리 분조사진
휴양의 기념으로 찍은 사진도 아니
모내기에서 제일 앞장섰다고
논머리에서 찍은 사진
붉은기는 훨훨 돛폭처럼 날리는데
수집은 영실이 얼굴엔 실렸구나
가슴에 부푼 꿈 이랑이랑 옮겨가며
모내기경쟁에서 이긴 자랑이

써레질 1주일이나 앞세운 남철인
그 자랑 입가에 벙글었구나
큼직한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씻는
영철이 아버지 얼굴엔
물관리며 비료치기 혼자 다 맡은 자랑이

아, 근로가 준
땀뻑한 모습 그대로
묵묵히 땅을 가꾸는 성실한
모습 그대로

땅에 정들인 마음 아니고서는
함께 설수 없는
그래서 소중한 우리 분조사진
따뜻한 햇빛도 지지 않고
사진속에 머물러있네

아, 동무들아 후날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 행복한 나날이 어떻게 왔는가 물으면
이 사진을 내보이며 말하자
그날은 이렇게 발을 부르걸고
부지런히 논둑길을 걸은 우리와 함께 왔다고
그날은 이렇게
땀젖은 우리의 농립모를 쓰고
땀젖은 우리의 작업복을 입고

농장은 잠들지 않네

연하산 저쪽에 은하는 걸리고
뿌린듯 총총한 별들은 웃고
작업반 선전실 환한 불빛아래
농장은 잠들지 않네
다정한 얼굴들 둥그렇게 모여앉아

해종일 흘린 땀인가 밤이슬인가
불빛에 비친 선전실마당엔
뜨락또르들 번들거리고
토론들은 불갈아라 물관리며 살초제뿌리기
이제 또 쳐야 할
모살이비료와 아지비료를 두고
마음 살뜰한 사람들에겐 늘쌍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온종일 들에 일하고도
방금 또 포전에 나설듯
뜨거운 목소리들 들로 퍼져가네
곡식은 손으로 쓸어주는만큼 된다고
김매기도 풀베기도 더 잘하자고...

아, 해는 갓에도
하루가 끝나지 않은 선전실이어
달음치는 나날을 노력으로 수놓으며
주체농법을 이랑마다 옮겨가며
밤에도
이삭을 가꾸는 선전실이어

땅은 진정을 알더라
 낱알을 가꾸는 티없는 마음
 알알이 무거운 낱알로 영글리
 땅은 사랑을 알더라
 구슬구슬 땀으로 젖은 사랑
 황금나락 설레는 소리로 넘치리

갈수록 눈들은 초롱초롱
 농장은 잠들지 않네
 뚫는 마음 합치며 솟는 생각 합치며
 뜨거운 이야기가 환히 불을 켜 밤
 눈부시게 밝아올 새날을 안고

량심에 묻는 말 외 1 편

박두천

내 때없이 아이들처럼
 거짓을 모르는 량심에 물어본다
 준엄한 시각이 닥쳐온다면
 청춘도 사랑도 행복도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가

생각해보라
 귀뿌리 따갑게 탄알이 비발치고
 온몸에 긴장이 서릴 때
 순간 머리에 스치는것은
 삶에 대한 욕망이더냐
 죽음에 대한 고통이더냐

조국이 없는
 아름다운 포부와 희망
 광휘로운 이상의 세계
 조국이 없는
 풍요한 오탁의 설레임
 창가에 넘치는 아이의 웃음소리
 이 땅에 어이 있으랴

천년을 산다고 행복하랴
 엄혹한 시각에 조국을 위하여
 서슴없이 목숨을 내대는것이
 래일 위한 참다운 인생관
 한생에 부끄럼없을 량심의 넋

바치리라 바치리라
 조국을 위하여서는
 죽음앞에서도 두려움 몰라
 비록 육체는 소리없이 쓰러져도
 후대들의 노래와 함께
 무궁한 이 땅의 세월과 함께
 나의 삶은 이어지려니

그렇다
 이 한몸 값있게 바치는것은
 나의 량심에 한점의 티가 없을
 나의 한생에 후회가 없을
 아, 나의 영원한 행복이여라

강물은 땅보다 낮은데서 흐른다

강물이 깊고 사납다고 탓하지 말라
 강폭이 넓다고 주저를 말라
 건너야 할 사람은 건너야 하거니
 배를 무어 건느든 헤엄을 쳐서 건느든
 하루가 걸릴수도 있고 몇년이 걸릴수도 있거니

시퍼런 강물에 검먹고 주저앉는다면
 대안은 아득히 멀어보이리
 사람은 땅만 밟고 사는것 아니라네

때로는 사름치는 강도 건느고
 건느다 물도 먹을수 있거니

명심하자 명심하자
 사람우에 물이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밑에 물이 있다는것을
 신념이 있고 용감한 사람에게는
 시퍼런 강물도 한갓 시내물로 보인다는것을
 아, 강물은 땅보다 낮은데서 흐른다

고향을 이야기할 때

신리섭

그 손님은 참으로 별난이었다. …

누구에게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것처럼 나서자란 고향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객지에 나가게 되면 별치 않은 풀 한포기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가며 고향을 추억하게 되는것이라.

이날도 제각기 출장용무를 보고 저녁녘에 러관 방에 모인 우리들은 자기 고향들을 이야기했다.

《세계적으로 놓고보면 호프가 생산되는 나라는 몇 안되지요. 하긴 우리 나라에도 딱 한고장뿐 아니까요. 그곳이 어대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고장이지요. 호프로 말하면…》

호프의 산지와 그 경제적가치를 이야기하는 X 지방맥주공장 자재인수원의 얼굴에는 이만저만이 아닌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하지만 년로보장나이가 훨씬 지났음직해보이는 그 손님만은 고향이야기가 나오면 시종 입을 다물군한다. 지금도 그는 별들이 빛나는 창밖에 눈길을 준채 줄담배를 피우며 침묵을 지키고있는데 큰두눈에는 피로움에 가까운 침울한 기색이 떠돌고있다. 무엇때문일까? 혹시 남쪽땅에 태를 묻었거나 아니면 이국의 이름모를 고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누군가가 그에게 고향에 자랑할만한게 무엇이 있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담배대를 입으로 가져가던 그의 손은 허공에서 굳어졌고 눈길은 실오리같이 피어오르는 담배연기에서 못박혀버렸다. 남한테 알고싶지않은 아픈곳을 정통으로 찢리웠을 때의 고통으로 얼굴이 이지러졌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거운 정적이 알지 못할 압박감을 몰아왔다.

《고향을 자랑하자문야 끝이 없지요.》

좀처럼 열려지지 않을듯 꼭 다물렸던 입술이 그제서야 떨어졌다.

《하지만 고향이란 덕을 보거나 아름다운 추억만을 위한것이 아니지요. 그럴진대 남처럼 고향을 위해 귀한 목숨까지지는 바치지 못했어두 땀 한방울 흘리지 않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겠수… 후-유-》

그의 목소리는 서글피 울리었고 비감에 젖어있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다 말고 눈길을 떨구었다. 그 얼굴이 어찌도 심각하고 근엄했던지 감히 마주할수조차 없었다. 우리는 마음이 마치 악기의 현처럼 점점 팽팽하니 긴장되어가는것을 느끼며 귀를 기울이었다.

《이를테면 고향을 자랑할 자격이 없지요… 준엄했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였소…》

음산한 늦가을의 저녁무렵이었다. 하늘에는 해빛을 가리운 검은 구름이 낮게 떠돌았다. 마가울 찬바람이 미구하여 닥쳐올 운명의 곡선을 예고하듯 가을걸이를 설친 강냉이밭고랑을 휩쓸며 불어왔다.

《추위가 닥쳐오는구나…》

해별에 탄 흙빛얼굴에 깊은 시름이 비긴 서운감은 덜컥거리는 소달구지채에 걸터앉아 어딘가 겁질린 눈길로 황량한 주위를 더듬군했다. 저 앞 산기슭에 드문드문 널린 집오래에도 이맘때면 저녁밥 짓는 연기가 총대처럼 솟구치오르련만 개짚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외나 외나- 이놈의 소새끼가 혼이 쑥 빠졌다나…》

소달구지가 신성천다리를 건너서자 윤갑은 달구지채에서 훌쩍 뛰어내려 오른쪽으로 꺾어드는 소를 왼쪽으로 돌려세웠다. 오른쪽길은 윤갑의 집으로 가는 길이고 왼편길은 옷마울로 가는 길이다. 달구지채안이 비좁게 크고 살이 찐 황소는 못마땅한듯 통방울같은 두눈알을 디룩거리더니 《음-미-어-어-》 하고 거센 영각소리를 길게 내지른다. 그 소리에 윤갑은 어망결에 뒤부터 살피었다.

큰 키에 몸집이 우렁진 체구, 둥글둥글한 얼굴에 눈이며 코며 입이며가 모두 선이 굵직굵직하게 생겼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윤갑은 리해 타산이 밝고 겁이 많았다. 지금도 그는 후퇴가 시작되자 가족들을 먼저 소개지로 떠나보내고 가산들을 사발 하나 남길세라 말끔히 긁어모아 령너머 골짜기에 자리잡은 처가집에 실어다두고 오는 길이었었다.

《이눔아, 건너마울에 반동놈들이 나다닌다는데 죽고싶어 영각소리냐, 젠장. 이랴-》

그는 훌쩍 몸을 솟구더니 달구지채에 걸터앉았다.

《이 미물같은것아 너두 집이 그리운 모양이구나. 허- 인제는 집이 없다, 집이 없어- 미국놈들이 산모까지 목을 매죽인다지 않느냐… 산모의 목을… 어 인간백정들이지…》

서운갑은 허탈상태에 빠진듯 중얼거리며 피촉에서 담배쌈지를 꺼내들었다. 씹없이 덜컥거리는 달구지우에서 허끝으로 슬슬 침질을 해가며 담배를 말아무는게 생긴것과는 달리 이만저만 껌짜지 않다.

담배연기를 구수하게 내뿜면서 채찍을 휘둘렀다. 레의 달구지꾼들이 그러하듯 소는 때리지 않고 공중에다 휘파람소리만 일쿠며 위협을 할뿐이었다.

《젠장 좀 빨랑빨랑 걸어라. 채찍 가서 <오동동>이네 집을 한바리만 실어주자. 이런 란시에야 사람의 의리두 봐서두 내가 도와주어야지, 더구나 그 사람은 나때문에 다리병신까지 되지 않았니…

그리곤 우리도 산으로 가자. 양코배기들이 조선사람씨를 말리자구 덤비는데 죽여줍소사 하구가만 앉아있을수야 없지 않느냐, 우리두 해바야지. 해봐야허구말구, 이라—》

그는 누구에게 꾸념이라도 하듯 끝없이 중얼거린다.

따쿵—따쿵 강건너 마을변두리에서 귀에 선 카빙총소리가 들리오자 윤갑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에서 조직적인 후퇴가 시작되자 벌써 반동놈들의 준동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라— 이러다간 저놈들한테 귀신 몰래 죽겠다, 젠장—》

윤갑은 마음의 안정을 잃고 채찍을 휘둘렀다. 꼭 놈들이 지기를 보고 총질을 해대는것만 같이 느껴졌다.

오동남이네 집은 마을에서 떨어져 산기슭에 바투 붙어 앉아있었다.

달구지를 대문앞에다 세운 윤갑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토방우에 닝큼 올라서던 그는 주춤했다. 문에 자물쇠가 잠겨있었다. 울바자밑에 있던 장독도 보이지 않고 닭 한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그래두 세간불이는 치우고 갔구나, 허긴 그 성미에 어린할라구.)

다소 마음이 놓인 윤갑은 다시한번 마당을 살펴보고나서 문을 나섰다.

《이라… 우리두 빨리 길량식이나 해가지구 산으로 가자.》

윤갑이가 서둘러 자기 집에 이르니 뜻밖에 산으로 간줄 알았던 동남이가 토방우에 앉아있다가 일어선다.

순간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윤갑의 눈길은 어안이 빙빙해서 동남이를 바라보았다. 그를 보는 동남의 눈꼬리는 우로 들리고 눈살이 곳곳이 살아올랐다. 윤갑의 귀밑에나 땀을만큼 키가 작고 하관이 좁은 얼굴이 어디 하나 눈에 드는게 없이 생겼지만 눈길만은 총기가 번쩍이었다. 하긴 윤갑이는 둥글둥글한게 호박같이 생겼다면 동남이는 작은 후추알같았다.

《꿀종구만, 우린 이런 짓을 하느라구 몽개는걸 모르구 무슨 일이 생겼니 해서 걱정을 했지. 시러비자식같은게.》

오동남의 입가에는 민음을 배반당했을 때의 령소가 비끼었다.

윤갑이 역시 떡심이 풀린듯 토방우에 털썩 걸터앉으며 담배쌈지를 꺼내들었다.

《흠, 걱정을 해?… 누가 할 소릴 하는지, 여기와있는길 괜히 달구지까지 끌구 갔드랬군.》

《?!…》

《!…》

한걸음 옮기고는 뒤를 돌아보고 또 한걸음 옮기고는 자기 논밭을 돌아보며 번번한 소잔등 량쪽에 쌀 한짝씩 언고 걷는 윤갑은 걸음걸음에 오장륙부가 녹아내리는듯했다. 마음을 모질게 먹긴 했어도 정작 집을 나서니 여느때는 별치 않게 느껴지던 모든것이 새로운 정회를 자아내며 발목을 휘어잡는 것이었다.

길옆의 백양나무에서 말라서 오그라든 가랑잎 몇개가 바람결에 우수수 머리에 떨어졌다. 나무밑 돌각담에서 닥쳐올 추위를 걱정하듯 귀뚜라미가 구슬프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윤갑의 가슴속에 찌릿한 향수를 자아냈다. 엇그제만 해도 달빛에 젖은 장독대밑에서 풍성한 가을을 알려주던 귀뚜라미 울음소리, 지붕우에 숙인 밤나무가지에서 기와꼴을 타고 흘러내리던 윤기도는 밤알들… 그 귀뚜라미도 밤나무도 피빛 락조가 비낀 이 음산한 저녁처럼 슬픔에 젖어있으리라는 생각에 미치자 가슴은 상처에 소금을 친듯 쓰리고 아팠다.

(미국놈들은 우리와 무슨 척을 지었다구 전쟁을 일으키누, 어제는 왜놈쪽발이들이 산을 밭가 벗기더니… 앵이— 씨를 말려죽여두 시원치 않을 놈들이지—)

원래 아버지대에 자수성가를 한 자작농인 윤갑이네는 남보기엔 술이나 먹으며 산것 같았지만 그로서도 눈물겨운 사연이 많았다. 있는 땅이 썸골 바닥이어서 령기가 여간만 심하지 않아 한해 농사를 한대야 보리고개나 겨우 넘기는 정도였다.

아홉개 가진놈이 열개를 채우고싶어 한개 가진 쪽의것을 마저 빼앗는다고 마을의 농토를 거의나 차지한 양지주놈의 등쌀이 또한 여간만 아니었다. 그러다가 해방후 썸골논외에 닭알노란자위같은 양지주의 앞벌 논 하루같이를 더 분여받아서야 허리를 펴게 되었다. 윤갑은 극성스럽게 농사를 지었다.

닭의 목을 쥐고 자다가 벌로 나갔고 달빛을 지고서 들어오곤하였다. 살림은 비온뒤의 참대순처럼 해마다 불어났다. 첫해농사를 해서 소를 샀고 재봉기를 샀다. 그 다음해에는 세칸짜리 기와집을 얼싸하게 지었다.

(앵이— 오라질놈들.)

그 모든 생활을 두고가야 하는 아쉬운 정이 크면클수록 또다시 원썬놈들에게 욕이 복받쳤다.

황소앞에서는 오동남이가 왼쪽다리를 절룩거리며 말없이 걷고있다. 왜서인지 이 시각따라 체소한 그의 모습이 눈뿌리를 아프게 자극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일생에 돌이킬수 없는 불행을 가져다주었구나.)

아직도 생각하면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 그때 일이 또다시 가슴을 지저댄다.

토지분여가 끝난 여름부터 마을에서는 저수지 공사를 벌리었다. 주변리농민들은 물론 군내 로동자들과 학생들까지 지원을 해서 그 이듬해 발같이전으로 끝을 냈다. 그 덕으로 마을과 린군벌들이 가물과 홍수를 모르게 되었고 수싹정보의 발이 논으로 개간되었었다. 그야말로 저수지는 고향의 젖줄기였고 생명수였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반동놈들이 흉계를 꾸밀가보아 밤마다 순번제로 경비를 조직하곤하였다.

그날밤 경비차레가 되었던 윤갑은 알을 제대로 낳지 않는 암탉을 장마당에 팔러 갔다가 옛친구를 만나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윤갑은 점심을 건넌 빈속에 독한 배갈을 몇잔 마시고 녹초가 돼버렸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도, 오동남이가 경비를 나가라고 몇번이나 흔들어 깨우는 것도 그리고 밤사이에 저수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다. 아침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행차뒤 나발이었다.

자기대신 경비를 나갔던 동남은 저수지쪽에 폭약을 묻는 놈들과 격투끝에 왼쪽다리를 세곳에나 칼에 찔려 병원으로 실려갔다, 저수지는 구원되었으나 오동남은 끝내 다리병신이 되고말았다.

(힘한 산길에 저 다리루 나를 데리러 오다니... 그러구보면 저 사람은 해방후 5년을 늘 나때문에 속을 썩여오지 않았는가...)

윤갑이가 농사일에 일심전력 써심을 들였다면 동남이는 동네일에 더 극성을 부리었다. 그것으로하여 돌사이에 자주 티각태각했고 경원하는 감정까지 생길 때도 있었다.

한번은 윤갑이가 강변의 애어린 물황철밑등에 소를 매놓고 들어왔다가 저녁에 나가보니 동남이가 소말뚝을 깎아서 돌로 박고있었다. 며칠전에 소말뚝을 부러뜨리고나서 만든다는것이 여직껏 미루어온 윤갑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다음 순간 소임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모욕같기도 해서 한마디 했다.

《아니, 누가 임자더러 소말뚝을 깎아날렸나?》

《그랬으면 좋거나 허게. 소고삐에 굵혀 나무껍질 벗겨진걸 보라구.》

오동남은 소말뚝을 다 박고나서야 손을 털고 일어서면서 껍질이 벗겨져 속살이 허영게 드러난 나무밑등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마을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후-유-》

지난 일들이 꼬리를 물수록 윤갑은 저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자네 지금 날 욕하고있을테지?》

말없이 걷던 동남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던지 이렇게 불쑥 물었다. 어쩐지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말같아 윤갑은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는 못들은척하고 소잔등에 채찍을 휘둘렀다.

《이랴, 빨랑빨랑 걸어라. 두고가는데 아까워두가야 하느니라...》

《아깝지, 그래서 우린 그걸 찾으러 기어쿠다시 와야 하네, 저 형대봉을 좀 보라구. 인제는 제법 기름기가 돌지 않나. 저걸 두구 우리가 가면 어딜갈텐가.》

오동남의 목소리는 끝없는 애무에 젖어있었다.

사람의 허리에 겨우 닿을가말가한 애어린 이갈나무들이 덮인 산줄기를 더듬는 윤갑은 가슴이 찢어졌다.

형대봉은 원래 아름답드리나무가 울창하고 산짐승도 많았는데 대륙침략에 광분하던 일제가 단 몇달사이에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렸다. 그때부터 비가 조금만 와도 사태가 지고 산아래 밭에는 물이 피여서 농사를 망쳤고 비가 며칠만 안와도 곡식이 노랗게 말라들군했다.

저수지공사를 끝낸 그해 가을부터 리에서는 벌거벗은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조직하고 군에 가서 나무모를 실어다주었다. 봄가을이면 마을에서는 나무심기를 년중행사처럼 진행하였다.

허지만 윤갑은 나무심는 일을 시답지 않게 여기었다.

《나무를 심어? 좋기야 하지. 현대 농사는 어떻게 허누?》

늘그막에 바람나면 날새는줄 모른다더니 일생에 처음으로 좋은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맘껏 지어 제살림이 늘자 그는 살림 늘어나는것에 재미가 붙어 줄곧 밭에 나가 살았었다.

어느날 보리파종을 시작한 날 저녁에 삼을 멘 동남이가 밭머리에 나타났다.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윤갑은 그의 기색을 흘끔 살피다가 한자리에 툄 버티고 서있는 동남의 날카로운 눈길과 마주치자 속이 띵끔했다.

나무심으러 나오지 않았대구 그러겠지... 하고 넘겨짚은 윤갑은 그의 마음을 농치려는듯 얼굴에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왜 그렇게 말뚝처럼 서있기만 하나. 앉아서 한대 태우라구.》

《랑심이 있어, 랑심이?》

오동남의 눈빛같아서는 생나무껍듯 당장 무슨변이 날것 같았으나 뜻밖에도 목소리는 낮았다. 예상치 않았던 그 목소리가 실상은 더 가슴을 조이였지만 윤갑은 짐짓 제편에서 큰소리 쳤다.

《량심이라구. 아니 내가 뭐 도적질이라도 했나? 빼없는 허가 사람을 해친다구 말을 조심하라구.》

《남들이 동네를 위해서 땀흘리며 나무를 심을 때 제 밭고랑이나 뒤지는게 도적질보다 난것 같아 큰소리인가?》

동남은 억이 막힌듯 담배를 말다말고 윤갑을 치며보았다.

《나무는 곡식과는 달라. 그래 우리가 그 나무 덕을 볼것 같은가, 농사나 착실히 지으라구.》

하는 말이 윤갑의 목젢을 간지럽혔으나 꿀꺽 삼키고말았다. 동남의 말에 그는 입이 열이라도 더할말이 없었거니와 어느때와는 달리 그의 낮빛이 심중해졌기때문이었다.

《자네 언제인가 북간도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향을 떠나 어떻게 살겠는가고 걱정하던 일이 생각나나?》

생각난다. 어린 시절 언제나 배끓는 설음을 너그럽게 알아주는것은 그래도 고향의 산과 들이었다. 배끓을 때 어머니는 죽 한술가락 더 주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지만 무수한 산나물과 산열매를 간직한 고향산천은 그들의 주린 배를 순간이나마 채워주곤하였다.

윤갑이와 동남은 나무하러 와서는 양지쪽 덩불 밑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키만 허벌쭉하게 자란 싱아며 소리채 같은것으로 배를 채우곤하였다. 그때면 따스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인양 나무아지사로 쓸아지는 봄별과 심신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산속의 갖가지 음향, 맑은 공기로 하여 순간이나마 모진 생활의 온갖 시름에서 벗어나곤하였다. 점차 지각이 들면서부터 이들은 새들의 노래가 있고 그 누구의 입김으로도 흐려본적없는 깨끗한 샘물과 사철 푸른 숲이 있는 고향산천을 때놓을수 없는 생활의 보금자리로 여기게 되었다.

하기에 이들은 북간도로 떠나는 리향민들을 보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지주놈들이야 어데나 있기마련인데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살려구 그럴가? 우리 고장보다 나으레는 없을텐데...》

윤갑은 무엇때문에 오동남이가 그때일을 꺼내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 벌거숭이된 저 산에 나무를 심는다고 옛모습이 당장 되살아날텐가.

윤갑은 담배불이 손끝을 지질 때까지 앓아있었다.

그날 밤이 느즈막해서 뒤마일에 불일이 있어 갔다오던 윤갑은 저쪽 밭에서 들려오는 소방울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푸릿한 달빛아래 누군가가 밭을 갈고있었다. 오동남이었다.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 심고 밤에 밭을 가는것이였다.

머슴군의 유복자로 태어난 오동남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다. 골병이 든 어머니를 위해서 다섯 살때부터 남의 집 문전에서 먹을것을 구걸했다. 하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엄동설한의 저녁, 아직말도 채 번지지 못하는 어린것이 귀떨어진 때물은 쪽박을 들고 오돌오돌 떨면서 문전에 다 가설 때면 가난한 동네아낙네들의 치마폭은 짜디짠 눈물로 젖어들곤하였다. 그래서 이름도 오동남이가 아니라 《오동냥》이로 불리워지던것을 해방이 되어서야 본래의 이름을 찾았었다.

그런데 해방전에는 그렇게도 순박하고 참하던 사람이 해방후 토지개혁때에는 빈농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고 또 후에는 리농맹사업을 맡아보면서부터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며 기름가마처럼 잘잘 끓어대는 급한 성미와 흥이날 때면 건드러지게 불려넘기는 《오동동 추야에 달이 동동 밝은데...》노래로 이름대신 《오동동》이로 불리우게 되었다.

윤갑은 선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저렇게 동네일을 위해 아글타글하는 사람을 리해못한 자신이 부끄러워났다.

다음날 아침 윤갑은 보리씨불임을 하려던것을 미루고 산으로 올라갔다. 오동남이가 제일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동남은 나무모간격은 얼마로 하며 구덩이깊이는 얼마나 파라는 등 일일이 설명하고나서 이갈나무도 한단을 주며 그것만 심고는 가서 집일을 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산비탈을 맡겨주었다. 보배 남들도 다 몹을 정해주었는지 열성들이 대단했다.

한참 심고나니 잔등에 땀이 축축히 났다. 윤갑은 옷등을 벗어 너럭바위에 올려놓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따스한 봄별이 쟁글쟁글 내려쬘인다. 저 아래 자기 밭에 낸 거름무지우에서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오르고있다. 봄보리를 심으려고 어제 갈아엎은 시꺼멓게 걸은 밭이랑들이 따스한 봄별아래 길게 누워 씨앗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있다.

봄씨불임하기엔 그지없이 좋은 날씨였다. 그런데 나무를 심고있으니... 이러다가 봄씨불임이 늦어지면... 뻘쭙-뻘쭙- 맞은켄 산기슭에서 늦어지는 발갈이를 재촉하듯 뻘쭙기 울음소리가 구성지게 들려온다.

마음이 조금해난 윤갑은 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발로 비벼끄고 서둘러 삽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는 삽날을 깊이 박고 흙을 대충 퍼내고는 어지간하면 나무모를 들여세우고 흙을 퍼넣는 다음 발로 꺾꺾다지며 나갔다. 일자리가 쑥쑥 났다. 하루품이 잘들것 같던것이 오전중에 끝을 냈다.

저녁녘이였다. 오후에 비가 내려서 밭에서 일찍 들어와 그새 건넌였던 점심이자 저녁밥상을 마주하고 앓았는데 옆집 사람이 들어왔다.

《자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나. 얼른 산에 올라 가보라구. 임자가 오전에 심은 나무를 고쳐 심느라구 <오동동>이가 내려오지 못하구있네.》

윤갑은 얼굴이 뜨거워져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고말았다. 나무심는것을 쓴외보듯해온 그였지만 그런 말을 듣고서는 차마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주룩주룩... 비내리는 저녁녘 산기슭은 조용하였다. 윤갑은 돌부리에 발을 채우며 곧바로 낮에 일하던 산비탈로 올라갔다. 가슴을 조이던 현실이 눈앞에 나타났다. 대충 심어버렸던 나무포기들이 흙을 다시 파고 정성껏 심어져있었다. 나무모는 봄비를 맞아 생기가 돌았고 부드럽게 퍼놓은 흙은비에 흠뻑 젖어있었다. 저쪽 중턱에서 혼자 허리를 구부리고 나무모를 심고있는 사람은 오동남이가 분명했다. 윤갑은 땅에 얼어붙은듯 움직이지 않고 서서 오동남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는 다리가 말째서인지 주먹으로 주근주근 두드리고는 다시 삽질을 한다. 옷은 비에 후줄근히 젖어있었다. 목이 꺾 메였다. 그 많은 나무모를 다시 심자면 얼마만한 품이 들어야 한다는것을 윤갑은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오동남에 대한 죄스러운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윤갑은 그의 옆에서 나무를 심어나갔다.

비내리는 고요속에 두사람의 삽질소리만이 서로 각이한 음향과 속도를 가지고 울렸다.

《동남아!...》

윤갑의 목소리는 무뚝뚝하다.

《산이 높아야 풀이 깊다더니 사람이 속이 왜 그리 좁은가...》

《뭐?...》

《차라리 귀찮이라도 처갈길게지. 이게 뭔가, 응...》

《허허... 이것 바라. 도리어 제편에서... 헛참.》

그들은 일을 깨끗이 마감지었다.

윤갑은 비에 젖을가봐 품속에 넣어두워던 담배쌈지를 꺼내놓았다. 그들은 담배 한대씩 큼직하게 말아 불을 붙여물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다정한 정서로 가슴을 애뜻하게 하는 고향마을의 저녁풍경이 펼쳐졌다. 동서북으로 높낮은 산발들이 성벽처럼 물러서고 앞으로는 봄비를 맞아 한껏 부풀어오른 기름진 벌이 탁 트이었다. 집집의 굴뚝마다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흰 연기가 승벽을 다투며 피어오르고있었다.

저 아래 집오래에서 아이들을 저녁밥상으로 불러들이는 너인들의 청높은 목소리가 어슴푸레 들려온다.

《윤갑이 보라구. 저게 바로 우리 고향일세.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내 고향이란 말이야. 해방전에야 언제 한번 우리 마을이 이렇

게 아름답다구 생각이나 해보았나. 그래서 이산의 풀 한포기까지 내 살붙이처럼 여겨지누만.》

오동남의 목소리는 환희에 넘쳐있었고 두눈에는 열정이 빛발쳤다.

윤갑의 가슴은 몽클했다. 그는 요며칠사이에 몰라보게 축간 그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피발이 선 두눈, 날이 선 코마루, 살이 빠지고 광대뼈가 두드러져 혈금해진 얼굴, 체소한 몸집...난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것처럼 향토에 대한 변함없는 성실성과 큰 열정을 지니고있는 까닭이 그제야 리해가 갔다.

《인제 한 스무해쯤 지나면 이 산에 수림이 무성해질거구 그러면 우리 고향은 무릉도원으로 될걸세.》

거 참 비가 때마침 잘 오는군.》

두사람은 비내리는 산중턱에 오래동안 서있었다. ...

그때가 었그제같은데 나무는 벌써 허리를 치게 자랐고 제법 산풍경이 이루어졌다.

어느새 동네를 벗어나 산길로 들어섰다. 인제 골짜기로 들어가 산릉선을 넘으면 곧장 형태봉 큰골로 가는 골어구에 들어서게 된다. 앞서걸던 오동남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다짜고짜로 소고뼈를 최목아래로 내리끌었다.

《빨리 내려서게 반동놈들이네.》

저쪽 산기슭 오동남이네 집쪽에서 어깨에 총을 걸친 《치안대》놈들이 마을로 내려가고있었다. 윤갑은 가슴이 한줄만해서 오동남을 돌아보았다. 놈들을 쏘아보는 오동남의 눈에는 불씨가 튀었다.

《저놈의 새끼들이 불을...》

《??...》

윤갑은 겁질린 눈길로 앞을 바라보았다. 오동남의 집에 불이 붙고있었다. 꾸역꾸역 솟구치는 시꺼먼 연기속에 이따금씩 날름거리는 뱀의 혀바닥처럼 시뻘건 불길의 꿈틀거리곤하였다. 불은 오동남이 평소에 집주위에 심어 가꾸던 밤나무며 황철나무들에도 달렸다. 그 나무들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로 되어 불길을 활활 날렸다. 윤갑은 가슴이 널뛰듯하여 어쩌면 좋을지 몰라 불타는 집과 오동남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곤하였다.

《자네 소를 끌구 먼저 큰 골로 들어가라구. 내 곧 뒤따를게.》

《아니... 어- 어딜 갈려구?》

《불... 불을 꺼야지. 저 귀한게...》

오동남은 그가 만류할 사이도 없이 불붙는 자기집쪽으로 질퍽거리며 달려갔다.

《여보게, 환장을 했다. 물건을 건져내긴 코집이 글렀어... 돌아서라구-》

윤갑은 선뜻 따라설념은 못하고 소리만 쳤다. 한쪽 다리를 질퍽거리며 발고랑을 꿰질러 달리던

오동남이가 목은 강냉이그루터기에 걸려 어푸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게 보이였다.

이때 불을 보고 놀랐는지 소가 산등성으로 올라뛰기 시작하였다. 소를 잃을것만 같아 윤갑은 정신없이 소를 쫓아갔다. 소를 끌어다 끌짜기 으속한곳에 매놓고 나와보니 용마루가 내려앉은 집터에서 연기만 푸실푸실 피어오를뿐, 놈들에게 잡힌 오동남이는 저기 강건너마을로 끌려가는것이 보이였다.

《끝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변인가-》

윤갑은 태를 치듯 그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금시 밖으로 튀어나올듯 세차게 뛰는 자기 심장의 박동소리에 귀속이 쿵쿵거렸다.

...시련의 나날은 거침없이 흘러갔다.

재진격하는 인민군대와 함께 현대봉인민유격대는 고향마을을 해방하였다. 윤갑이도 황소를 앞세우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를 맞아준 고향은 쓸쓸했다.

힘에 부치였던 유격투쟁의 나날에 잊혀지지 않고 그리운것으로 깊이 새기졌던 고향마을은 추억을 더듬을만한 흔적조차 찾을길 없이 사라져버렸다.

살아남은 동네사람들이 오동남의 최후에 대해서 아는대로 이야기해주었다.

...오동남을 체포하러 갔다가 헛물을 켜 《치안대》놈들은 그의 집에 불을 질러놓았었다. 바로 그때 오동남이가 불끄러 달려갔다. 그는 불붙는 집을 쳐다보지도 않고 헛간으로 들어가서 도끼와 삽을 들고 나왔다. 불길이 산에 닿지 못하도록 집뒤로 돌아가며 나무를 찍고 도랑을 넓게 파제끼였다. 《치안대》놈들이 다시 물러왔을 때는 오동남이가 이미 모든것을 다 끝내고 산기슭에 날려 떨어지는 불씨를 두드려 끄고있었다.

그 이튿날 《치안대》놈들은 마을에 기여든 미제살인귀들앞에서 오동남을 총살했다.

《오동남은 산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지요. 고향일에 언제나 밭벗고나서더니...》

그의 최후를 듣는 윤갑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듯했다. 마지막까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에서 떠나보낸것이 그처럼 상처에 소금을 치듯 아리고 쓰린 이픔을 몰아왔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지워지지 않을 아픔의 상처였다.

그 손님-서윤갑의 이야기는 끝났다.

방안에는 숙연한 정적이 깃들었다.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몇년전에 어찌다 고향에 들렀었는데 오동남이가 심고 목숨으로 지켜낸 나무들이 인제는 거목으로 자라서 산림이 울창하지 않겠소. 오동남이처럼 나두 고향의 한그루의 나무에 내 량심과 넋을 묻었더라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고향을 한바탕 자랑했을거웁니다...》

창밖의 어두운 하늘 어딘가에 초점없는 눈길을 박고있는 윤갑로인의 눈에는 물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묵묵히 앉아있었다. 고향에 깃든 사랑과 고민과 슬픔, 그의 생활의 굴곡에서 얻어진 결론에 대한 공감의 분위기를 휩쓸것이었다.

조국앞에 가장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그 진리를 깨달은 이 손님은 분명 폐허뿐이었던 전후복구의 나날과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나날에 고향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큰 일을 했을것이다. 허지만 10년... 20년... 40년 기나긴 세월 남들이 고향을 자랑할 때마다 수양이 부족했던 탓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를 늘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오지않는가.

그런데 나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바쳐진 내 흘린 땀, 나의 뉘은 얼마인가? 행복의 날에 땀흘리지 않은 내가 시련의 날이 닥쳐온다면 고향을 위해 목숨을 바칠수 있을까?...

우리들은 말들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속에서 눈빛만은 모두 근엄했다.

설레이는 숲

림공식

바라보면
한쪽의 그림이런가
가까이 다가서면
청신하고 싱그러운 숲의 향기에
그만 취할듯싶구나

키높이 솟아 울울창창한
아름드리 이빨나무, 분비나무들
저기 싱싱한 잣나무들은
탐스런 잣송이들을 잔뜩 품안고
벌써 기름내를 풍기는듯

목포수 떨어지는 계곡에서는
살찐 사슴의 무리 한가로이 물마시고
그 무엇에 놀란듯
황급히 날아예머 청 돋구는 꿩무리

산속깊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장엄한 수림은 황홀경을 안겨주고
청고운 산새들의 노래를 싣고
설레이고 설레이는 숲
신비로운 동산이 예 아닌가

진정 할줄 모르는

이 마음처럼
끝없이 설레이는 숲이며
아름답고 장엄한 이 경치는
수수천년 세월이 가져다준
자연의 조화더냐

순간의 그 짧은 생각을 가져주듯
천년을 살아온 한그루 느티나무로
발걸음 옮기는 나의 눈앞에
뜨겁게 뜨겁게 안겨오누나
표식비! 아, 표식비여!

우리 수령님
이 깊은 수림속까지 오시여
거룩한 자옥을 남기시며
국토관리의 사랑을 부어주시었기에
숲이여, 내 나라의 숲이여
내가 이 땅우에 펼쳐졌구나

그 사랑, 그 은정을 못잊어
천년만년 노래하고싶어
아 눈시울 축축히 바라보는
우리의 재부, 자랑스러운 숲
언제나 그 언제나
설레이는 숲이여

우편통은 비어있지 않다

홍문수

보천보 옛거리에
지금도 남아있는
어제날의 빨간 우편통 하나

체부의 자전거중소리
구슬프게 울리던 일 옛말로 되었건만
다가서서 안아보면
오늘도 우편통은 비어있지 않구나

아, 김일성장군님 보천보를 치셨다고
누구는 연필끝에 침을 발라
누구는 먹물에 붓을 찍어

산지사방으로 편지를 띄웠을 그때

가까운 몇몇에게만 알리고싶었으랴
민주재생의 불길을 본 그 감격
대를 넘어 전하고싶던 그 마음이
지금도 우편통에 가득차 뜨겁나니

편지나 엽서들은 속에 없어도
력사의 증견자
우편통은 비어있지 않다
보천보의 그날을 전하며 새겨주며
남아 가득한 그 마음으로 하여!
남아 영원할 그 마음으로 하여!

시인의 심장

박원성

나의 고향은 신천이다. 나는 그곳에서 첫걸음
마를 익혔고 우리 글을 배웠다.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자그마한 책을
하루에 냅다 읽고는 시인이 다 된것만 같아 너무
좋아서 모자를 공중으로 뿌려던지며 학교로 가던
그 동심어린 화폭이 새겨져있는 고향...

그 고향에 나는 작가가 되어 돌아왔다.

지금은 6월, 눈에 익은 신재령 나무리벌이 끝
간데 없이 아득히 펼쳐졌는데 그 기름진 논판에
선 줄대같은 벼포기들이 쪽쪽 소리를 내듯 아지
를 길게 뻗치고있다. 큰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논두렁에서 뜬부기 한마리가 목을 빼들고 《뜸북
뜸북》 울어댄다. 저쪽 최북면더 논배미엔 일여
넙명의 처녀총각들이 나란히 서서 제초기를 밀어
가고있다. 누군가가 던진 익살세례에 머리우에
전이 넓은 흰채양모를 단정히 눌러쓴 처녀가 발
긋하게 달아오른 얼굴을 쳐들고 저발치에서 김을
매는 청년을 노려보더니 그쪽으로 흠뻑어리를
던졌다. 흠뻑어리가 사나이의 발치에 떨어지며
논물이 튀어났다. 가벼운 웃음소리가 풍겨올랐다.

나는 발길을 뻗수가 없었다.

보도록새 아름다운 고향의 풍경에 흠뻑 젖어들
며 금시 달려가 그들과 어울리고싶은 충동에 사
로잡혔다. 소박하고 근면한 저 사람들이 있어 고향
의 정서와 풍치는 더 한층 이채를 띠며 누리를
물들이는게 아닌가.

문득 나의 눈앞에는 원암리 밤나무골 등판에
모여앉아 앞벌을 바라보며 제나름의 사색속에 시
를 창작하던 중학교 《문학소조》 생활이 그려졌
다.

《시가 딱딱한것은 자기 생활을 너무 멀리 가져
갔기때문이에요. 우리의 생활속에 시가 있어요.
그렇다고 생활을 너무 란발해서는 안돼요. 한자
를 써도 깨끗한 량심으로, 정의의 대변자답게 말
이에요. 자기가 쓴 글이 후세에 가셔도 후회됨이
없도록, 자기 자신이 시처럼 살수 있는 그런 심
장을 가져야 진짜배기 시인이 될수 있어요.》

《문학소조》를 책임진 국어선생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주곤하였다. 나는 그때까지만도
우리 문학선생의 말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지곤한다.

우리 고향에서 무명의 시인들이 많이 자라났다.

그중에서도 강승한시인은 우리 고향의 구수한
흙내를 맡으며 성장한 진짜배기 시인이었다.

나는 지금도 미제원쑤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
면서도 세상을 향해 웨친 그의 시구절을 잊을수
가없다.

오, 사람하는 고향의 별판이여, 하늘이여, 강
이여

우리는 원통하게 죽는다

그러나 이 죽음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우리 부르고 부르고싶었던 노래

다 부르지 못하고 떠나간다면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후대들이여

그대들이 우리의 노래를 이어서 불러달라

이 땅에서 원쑤들을 씨도 없이 쳐부시고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 꽃동산 꾸려가는 날

우리 다시 여기서 살아일어나나라라

다시 일어나 부르고 부르리라

우리의 진리이며 우리의 행복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구절구절 신념이 어린 그의 목소리...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분여받고 그
땅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만이 터칠수
있는 심장의 호소였다.

나는 시인의 그 목소리를 다시금 듣고싶어 신
천박물관 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실에 들어
서니 마침 해설강사가 강승한시인이 애용하던 작
가동맹원증과 공민증, 도인민회의 대의원증이
보관된 진렬장앞에 서서 참관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있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
기 신천땅을 강점한 원쑤놈들은 구월산인민유격
대를 찾아 석당교를 건드던 강승한동지를 체포하
였습니다. 원쑤놈들은 그가 이름있는 시인이라는
것을 알자 달콤한 말로 구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인선생, 선생이야 어느 세상에서든 시만 쓰
면 되지 않소. 미국을 찬양하는 시만 쓴다면 이
제라도 선생은 부인과 딸을 데리고 여기서 나갈
수있소. 원한다면 서울이나 다도해기슭 어디로든
갈수 있단말이요.>

그러자 강승한동지는 그 원쑤놈을 싸늘하게 쏘
아보았습니다.

<시를 밥벌이나 하는 물건처럼 알고있는 당신
들이 가련하오. 앞으로도 나의 시는 미국의 목을
조이는 론고장으로 될것이다.

내 말을 명심해 들소. 나는 시인이기전에 조선로동당원이고 도인민회의 대의원이다. 나는 우리 당과 공화국을 위해서는 열번도 웃으면서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

강승한동지는 이렇게 준절하게 못을 박고는 감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악착한 원쑤놈들은 그를 더이상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알자 집게로 그의 열손톱을 뽑았으며 한쪽눈을 칼로 우버냈고 이발까지 깎아놓았습니다.

그러나 강승한동지는 조금도 락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지개혁이 있었던 력사적인 날을 기념하여 창작했던 시를 읊어 인민들의 가슴속에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었습니다. 강승한동지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에게 시인의 영예를 안겨준 그 고마움과 시대적인 의무감을 안고 감방안에서도 <김일성장군 교성곡> 을 가사로 썼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원쑤놈들은 그를 사형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날은 바로 1950년 10월 17일. 서른세해전 신천군 석당리에서 강승한동지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강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눈굽에 눈물이 핑 고이는것을 느꼈다.

그도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의 한사람이었다.

해방전에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하여 살길을 찾아 서울로 달려간 그였지만 운명이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점차 문학에 뜻을 두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 운명을 개척할 소박한 꿈을 가진 그는 《카프》을 숭배하면서 따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처럼 돋보이던 《카프》가 일제의 탄압에 짓눌려 산산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접하자 나라잃은 식민지민족의 슬픔을 통탄하며 펜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던 그에게 새삶을 주고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참으로 해방후 5년간의 생활은 그의 한생을 놓고 비해볼 때 너무도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간에 인간들이 향유하고싶었던 존엄과 권리를 자기것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창공에 날아에는 새들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시창작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는 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인민의 행복을 위해 태어나신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라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위인을 알고 위인의 뜨거운 인정미에 매혹된 그는 그 품을 떠나서는 강승한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있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 의미와 량심, 정의의 배반하지 않았다. 그는 단두대에 올라섰지만 예이제 변함없는 자세로 김일성장군님을 칭송

하는 글을 쓰고싶다고 웨침으로써 장군님의 시인답게 신념을 지켜냈던것이다.

이런 시인의 심장이 어찌 고통을 멈추었다하랴!

그렇다.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 그런 영웅전사들은 강승한시인 한사람뿐이 아니다.

우리 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리수복, 길영조영웅들도 다 시를 좋아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량심을 바쳐 쓴 시처럼 목숨도 그렇게 바쳤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축복을 받는 리인모영웅도 문필가이며 참된 시인이다. 그는 시처럼 살자고 근 반세기동안 신념을 굽히지 않고 옥중에서 살았다.

손도끼 하나를 가지고 6척의 함정들과 장시간 《해상전》을 벌리며 우리 군인들의 사상정신적위력을 떨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온 정광선병사, 그도 국어시간이면 교과서에 나오는 서정시 《어머니》를 따라외우며 성장한 시애호가였으리라.

그들의 가슴에 짝 차고넘친것은 언제나 자기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 키워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이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모두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 세상 그 어디에 뿌려진다 해도 리인모, 정광선이가 되어 자기들을 제일로 사랑해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으로 기어이 돌아오고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함이라면 수천의 길영조가 되어 《김정일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로 충만되어있다. 그러니 우리 인민모두가 《시인》들이 아닌가.

나는 신천박물관 청사를 나서면서 더더욱 생각이 깊어졌다.

이땅 그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의 힘찬 목소리.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이 없으면 우리모두가 노예로 되고 그이를 이 세상 끝까지 모시는 길에 영생하는 삶이 있다는것을 생활을 통해 체험한 우리 인민모두의 절절한 호소였다.

그러니 그 어떤 대적이 덤벼든다 해도 무서울것이 뭐가 있으랴!

이런 신심을 새로이 받아안은 나는 창작적충동으로 가슴을 억척할수 없었다.

어서 쓰자! 이들모두를 세상앞에 내세우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내 나라 인민들의 심장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보여주리라.

자기 당과 자기 수령, 자기 민족을 무한히 사랑하고 옹호하고 원쑤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백두산의 기질을 닮은 우리 인민의 모습을...

나는 대오를 짓고 떠나는 참관자들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얼굴에도 기어이 신천땅의 복수를 받아낼 그런 각오가 짙게 어려여있었다.

립상화탑에 올라

한원희

그대들의 모습

하늘이 비좁도록 솟아오른
비료공장의 탑과 탑의 숲
우주를 호홉하듯 벽찬 숨결이 흐르는곳
어디에 있느냐 운전공동무들아
여기선 그대들이 보이지 않는구나

관을 따라 관속을 굽이치는 증기
그 또한 보이지 않아라
그대들의 몸 혈관따라 흐르는
뜨거운 피방울처럼

천도의 로속에 사뭇치는 비료가스
그 또한 보이지 않아라
그대들의 심장에 뿜어치는

뜨거운 피방울처럼
어디에 있느냐 비료공장동무들아
여기선 그대들이 보이지 않건만
그대들의 타끓는 심장처럼 숨결처럼 맥박처럼
여기선 모든것이 그대들을 닮았거니

내 그대들을 따로 찾지 않으리
그대들의 넋을 지니고
하늘가에 솟아오른 탑과 탑들이
바로 그대들의 모습으로 대답하지 않느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십리구내길에 벽찬 숨결을 내뿜으며!—

그 목소리 못들어도

세차게 세차게 열풍이 굽이치는
탑의 숲 관의 숲을 함께 걸으며
그는 비료생산공정을 이야기한다
손나팔로 내 귀에 웨치며 소리치며

직장장의 그 목소리
나는 다 가려 들을수 없구나

우뢰 치듯 폭포치듯 온몸을 흔드는
비료가스 흐르는 소리탓에—
하지만 기쁘기만 하구나
그대신 내 듣지 않느냐
비료가 우뢰치며 태어나는 소리를!
풍년노래 하늘땅에 올려가는 소리를!

신호불

온도가 낮아진다고
기압이 떨어진다고
붉고붉은 신호불이 깜빡일 때
조작공 네 심장에도 켜진다지
너를 부르는 뜨거운 불이

너 만일 자리를 비웠다면
혹은 깊은밤 잠시 졸았다면
네 심장에 켜지지 않으리
량심의 소중한 불이!
효성의 뜨거운 불이!

립상화탑에 올라

립상화탑 아득한 천정은
비료가 내리는 비료의 《하늘》
여기 높고높은 탑우에 오르니
운전 공동무 웃으며 말하네
비료의 《하늘》에 우리 올랐다고
어허, 그 말 과연 그럴듯해라

허나 내 그에게 말해주고싶구나
그대들이 아니라면
그 어디서 비료가 내리랴고!
비료의 《하늘》은 그 《하늘》은
그대들의 가슴에 있다고!

고향집 문앞에서

강철

몇해만이나
표창휴가 달려온 길
어머니—하고 소리치며
고향집 층계를 뛰어오르다
문득 멈춰서는 마음

선뜻 열지 못하겠구나
고향집 문이여
다시 보게 되는 작은 편지통이여
영웅되어 돌아오라 바래주던 문
마음속에 언제나 열려있던 문

닿아서 반짝이는 문손잡이는
날 기다려 방긋 웃음을 뿌리는가
내 걸어온 복무의 자욱자욱
작은 편지통이여
너는 기쁨으로 다 맞이했으리

이제 문이 열려지면
어머니 두팔 벌려 달려나오시리
그뒤로 쏟아져나올 불빛, 웃음
문턱에 걸채이는 어린 동생들

늘쌍 엄하기만 하시던 아버지 얼굴에서
웃음도 빙글 피어나리
내 걸어온 복무의 나날
비발, 눈보라, 진창길...
뿔뿔이 바쳐온 그 자욱도 헤아려주리

그길을 부끄럼없이 걸어왔기에
내 가슴 쪽 펴고 달려왔노라
3년세월 하루같이

마음속에 너를 안고 지켜냈기에
고향집문이여
이리도 궁지높이 마주섰노라

내 만약 그 길에서 주저앉았더라면
어찌 머리 들고 너를 찾으랴
문이여
네 만약 열려있다 해도
위훈없인 들어서지 못하리

오, 그리워 한달음에 달려왔어도
정녕 쉽게는 열수 없는 고향집문이여
자식을 내세운 한가정의 기대와 믿음
마주서는 첫문에도 어려웠구나

내 언제나 이 문앞에 뿔뿔하리
불비속에 한가슴 방패로 내대고
설사 결전장에 쓰러진대도
마음만은 오, 자식된 마음만은
이 문앞에 두고가리

그러면 나를 불러 활짝 열리는
정다운 고향집 문 너머
크나큰 당의 품이 나를 안아주리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품이
영생하는 아들로 나를 품어주리

그날에 산
가슴 더운 맹세 문앞에 남기며
나는 소리쳐 문을 여노라
—어머니, 내가 왔어요!

해바라기

량창조

이제나 저제나하고 기다렸으나 명찬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다.

최임숙은 그 아들을 기다리며 련사흘 뒤숭숭한 나날을 보냈다. 간밤도 지새우다싶이 하였다.

경찰이 터친 최류란의 가스연기가 관악구의 대학가를 자욱히 뒤덮었던 그날로부터 명찬의 모습이 집에서 사라졌다. 전에도 이따금 집에 돌아오지 못할적은 있었으나 그럴 때면 아버지의 회사에 전화로 알리거나 인편에 꼭꼭 전하던 아들이었는데 이번은 웬일인지 아무 기별도 없이 감감 무소식이다.

임숙은 덜을길 없는 시름을 안은채 조반을 지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벽시계가 다섯점을 쳤다. 그는 기다렸던듯 당반우에 손을 뻗쳐 열른 라지오의 스위치를 틀었다. 보도시간이었다. 무거운 가슴에 한손을 얹은채 끝까지 귀담아들었으나 대학가의 투쟁소식은 한마디도 없었다.

임숙은 서둘러 밥가마를 아궁에 얹혀놓고 남편이 자는 방으로 건너갔다.

《벌써 날이 썸소?》

안해가 들어서는 기척에 김준도는 희뵤한 새벽빛이 어린 창문을 돌아보며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눈에 피발이 선듯한 준도의 얼굴이 푸석푸석해보였다.

남편 역시 자식의 일로 잠을 설쳤음을 느끼며 임숙은 나직이 속삭였다.

《여보, 오늘은 경찰에 가출신고라도 할가봐요.》

《뭘, 가출신고?...》

준도는 혼자소리로 외우며 잠시 침묵에 잠겼다 가 고개를 들더니 그루박듯 말하였다.

《공연한 생각 마오! 그 애가 집을 버리고 나간 것도 아닌데... 이제 돌아오겠지.》

임숙은 아무 대꾸도 못했다.

남편은 무언가 알고있는것 같았다. 그간 명찬이와 련계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서 그런 감촉을 받으며 임숙은 입술만 감빨았다.

남편의 말이 옳았다. 부모나 가정에 무슨 불만이 있을수 없었다. 애당초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를 닮아 정의감이 강하고 결곡한 명찬이다. 교수와 학우들속에서 장래가 크게 촉망되고 신망이 높았다.

얼마전에 명찬은 서울지역총학생회련합 (《서총련》)지도성원으로 선출되었다.

그것을 전해들었을 때 임숙은 어지간히 놀랐었다.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박

혀 공부에 열중하는 아들만을 보아왔기때문 학생운동을 선도해야 할 중임을 감당할수 있을가 은근히 걱정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우려는 공연한것이였다.

며칠전이였다. 서울대학교운동장에서는 시국성토회가 있었다.

최임숙은 몇몇 아낙네들과 함께 학교본관건물 뒤에 숨어서 아들이 연설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다.

대학생들의 열기띤 숨결로 충만된 광장의 연단에서 명찬이가 주먹을 높이 들어 휘두르며 부르짖었다.

《학우들! 동해물과 백두산처럼 푸르고 굳센 마음으로 압제가 없는 세상, 자주, 민주, 통일의 광명이 찬란히 빛날 그날을 위하여 우리모두 강철같이 뭉쳐 용감히 나아갑시다!》

그 절규에 호응하여 별안간 젊은이들의 합성과 몸부림이 하나로 어울려 교내에 되성처럼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곧 통성투쟁으로 들어갔다.

《참말 댁의 아드님이 훌륭해요!》

《그래요. 얼마나 의젓하고 대바릅니까.》

결의 아낙네들이 임숙을 향해 하는 소리였다.

이미 학부형회에서 낯을 익힌 녀인들이였다.

사나운 파도인양 굽이치며 설레이는 울림과 그들의 감동어린 치하에 말려든 임숙의 온몸은 삼시간 뜨거움에 휩싸였다.

멀리로 흘러간 고너시절이 되살아올랐다.

4. 19항쟁광장에서 새 정치, 새 제도를 부르짖으며 학우들과 바리케트를 뛰어넘어 독재의 아성으로 육박해간 열혈청춘시절... 임숙은 젊은 날의 그피웨침속에서 오늘의 명찬이를 보며 그 아들이 더없이 장하고 자랑스러워 가슴이 마냥 후더웠다.

그는 뜨거운 애정을 한가득 안은채 명찬이를 보고 또 돌아보며 대학교정을 떠나왔다.

그렇게 헤어져 다시 보지 못하고있는 아들이어서 어머니의 기다림은 여간만하지 않았다.

그날 대학생들의 통성현장으로 경찰무리가 란입하여 장시간 대치상태에 있었다고 하지만 명찬이는 무사했다고 한다. 헌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임숙은 안절부절못하다 간밤에는 명찬이가 가 있을만한곳을 찾아 사방 돌아다녔으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래 무작정 기다릴수만 없던나머지 이 아침은 그런 소리까지 하게 되었다.

헌데 남편은 무어라고 대답했던가.

준도가 믿는 것처럼 임숙에게도 아들이 이제 자기앞에 그 특유의 싱긋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나리라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출근하는 남편을 바라우며 가만히 있지 못하였다.

《명찬이 소식 좀 알아봐주세요. 부탁해요.》

준도는 팔월의 아침노을이 비낀 하늘을 우러르다가 한마디 조용히 일러놓고 집을 나섰다.

《알겠소. 너무 걱정마오.》

임숙은 떠나가는 남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한심경이나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불현듯 노랑나비 한마리가 그의 눈길을 끌며 뜰안으로 날아들었다.

나비는 작은 꽃밭우를 한동안 훨훨 나래치며 감돌다가 꺾충하니 키높이 자란 해바라기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임숙은 아이들처럼 가슴 울렁이며 그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 애가 오늘은 돌아오려나...)

그걸 전하려고 나비가 날아든것 같은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다.

해바라기는 울봄 명찬이가 시골에 사는 동무에게 꽃모를 얻어다 심고 여름내 정성들여 가꾸어 온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실하게 자라서 함박같은 금빛송이가 탐스럽게 폈다. 한낮이면 송이송이가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누군가 뚜벅뚜벅 밭걸음을 울리며 울안으로 들어서는 기척에 갑자기 나비는 꽃단에서 날아올랐다.

임숙은 얼른 대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몸집이 드레진 한 젊은이가 벋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임숙은 꿈에서 깨어난듯 눈을 습벅거렸다.

명찬이의 고교시절 동창생인 성호였다.

《아니?! 그 먼데서 새벽부터 어떻게?...》

임숙은 경향없이 물었다.

수원시에서 40리 떨어진 농촌에 살고있는 청년이었다.

《어머님이 보고파 왔습니다.》

성호는 농사일에 절은 고동빛얼굴을 환히 펴며 명랑하게 외운다. 그러나 임숙의 목소리는 맑지 못했다.

《그—래, 잘 왔네. 현대 우리 명찬은 지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알다니?》

임숙은 의혹이 실린 눈으로 성호를 뵈히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것 같아 명찬이를 대신해서...》

임숙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안갔다.

성호는 넉적한 잎을 살랑거리며 우뚝 솟아있는 해바라기를 잠시 바라보고나서 명찬이가 집에 오지 못하는 소식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임숙은 조용히 들었다.

《의로운 일》 때문이라 하였다.

그 일의 만전을 위하여 명찬은 경찰의 눈을 피하느라 집에도 들리지 못한채 룡성투쟁이 있던 그날로 곧장 성호네 집에 가서 머물러있다가 어제 호남지방으로 갔다고 한다.

한주일나마 걸려야 할 여행길이라 하였다.

임숙은 그제야 무겁던 가슴이 얼마간 열렸다.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까닭이 비로소 헤아려졌다.

전에 언젠가 명찬이가 새 사조를 따르는 《리념씨클》에 망라되어 학우들과 함께 학습하고있다는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던 일이 있었다. 그때 남편은 아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해나왔었다.

임숙은 그 씨클이 어떤 리념성격을 띤 학술조직이라는것을 모르지 않는터여서 명찬이의 이번 여행목적은 어지간히 짐작할수 있었던것이다.

성호는 화단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희어스름한 꽃대를 손으로 만지며 환성을 질렀다.

《해바라기가 멋있게 자랐군요!》

그 소리에 임숙은 미소를 머금으며 젊은이를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이게 성호가 키운 애기모를 가져다 키운거라고 우리 명찬이 늘 자랑했도.》

어머니의 음성이 저으기 랑랑하게 울렸다.

정녕 그랬다. 명찬이와 성호, 두사람의 지성이 하나로 합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임숙은 그들의 남다른 우정이 갈수록 두터워지는것을 오늘따라 더욱 뜨거이 느꼈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석연치 않으나 지금 이들이 비밀리에 진척시키고있는 《의로운 일》이 참담고 옳바르지 않을수 없다는 믿음이 강하게 머리를 들었다.

《어머니, 부삽을 좀 주십시오.》

성호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며 꺼내며 부탁했다.

임숙은 얼른 부엌에서 부삽을 들고나와 청년의 손에 쥐여주었다.

성호는 실농군다운 본색으로 해바라기밑두리에 고랑을 내더니 비닐봉지의 비료를 뿌리고나서 잔칸스레 묻고 다져나갔다.

그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는 임숙의 가슴은 뚫듯 해났다.

꽃을 가꾸고 아끼는 마음, 그것은 외롭고 순결한 사람이 품을수 있는것이다.

임숙은 이 아침따라 명찬이와 성호의 우정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 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다하고픈 심사가 한층 강렬히 갈마들었다.

성호는 꽃밭에 물까지 한차레 주고나서야 손을 털며 허리를 폈다.

임숙은 물이 찰찰 넘치는 대야를 성호앞에 가져다놓았다.

《어서 손을 씻으라고.》

《씻기야... 밤낮 흠을 만지는 손인걸요.》

《그래도.》

어머니의 살뜰한 정에 못이겨 성호는 거울진 손을 대야에 담그고 천천히 씻으며 이말저말을 담담히 엮어나갔다.

《어머니, 명찬이가 제 책상빠람에서 흰봉투에 있는 책자를 가져다달라고 하던데요.》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얇팍한 책자를 가져다주자 성호는 그것을 소중히 품속에 넣었다. 아마도 그가 여기를 찾아온 진의도가 명찬이의 문안과 함께 소중히 간직하는 그 책자에 있는가 싶었다.

아무튼 임숙은 아들의 희망과 포부가 한껏 나래치기만을 충심으로 바랐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오겠습니다. 우리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듭 어머니를 안심시키고나서 이윽고 성호는 실한 어깨를 흔들며 떠나갔다.

임숙은 문밖에 오래도록 서서 짧은이를 바라워 주었다.

무사한 아들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와 전해주고 가는 성호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그러나 다심한 어머니의 마음은 노상 평안할수 없었다. 성호의 말에 의하면 《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수배령이 내릴지 모른다고 하였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명찬이가 귀가 못하고있는 것이다. 《의로운 일》의 거사를 위해 각별히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호가 다녀간후부터 임숙은 방송과 신문들에 한층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런 어느날이었다. 정오의 방송이 보도뒤끝에 《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수배령을 전하였다. 여러명의 이름속에 명찬이도 있었다. 한편 그 학생조직이 복을 따르는 좌경용공단체라고 어마어마하게 광포했다.

그것을 알린 방송이 끝난지 이윽했으나 임숙은 라디오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다. 공연히 가슴이 활랑거리며 꿈쩍할수 없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는 안정을 돌이킬수 있었다. 명찬이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미리 알아차리고 처신한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놈들의 마수에 제발 걸리지 말아야 하겠는데...)

임숙은 간절히 바라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황망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리의 공중전화실에서 송수화기를 들어 회사에 출근중에 있는 남편을 찾았다.

준도는 마침 사무실에 있었다.

임숙은 그에게 라디오에서 전한것을 알려주었다.

《나도 들었소...》

준도는 범상히 응대하며 안해를 위안시킨 다음 전화를 끊었다.

상대방의 너무나 심평스러움에 임숙은 어정쩡해졌다. 분명 남편은 이미 모든것을 알고 마음잡고리가 되어있는듯싶었다. 하기에 자식의 신상에 뻔쳐있는 위험마저도 그토록 배포유하게 대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그렇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 준도는 옛대학생시절 학생조직을 책임지고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경찰구치소신세를 여러차례 톡톡히 지기도 했다. 과거 자신이 겪은 체험으로 그는 자식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을뿐더러 여러모로 도와나서기까지 하고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 하듯이 훌륭한 아버지의 슬하에서는 자식들이 대바르게 자란다고 하지 않는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임숙은 자기만이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있는듯한 서운함이 들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어머니가 되고싶었다.

그날저녁이었다. 밥상을 막 물렸을 시각에 관악경찰서의 두 사복형사가 불쑥 나타났다.

준도가 어두운 뜰안에서 그들과 대면했다.

임숙은 부엌문가에 서서 경찰의 동정을 살폈다. 형사는 먼저 명찬을 찾았다.

《그 애는 집을 나간지 한주일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있소.》

남편의 음성이 통명스레 울렸다.

형사의 어투가 차츰 거칠어졌다.

《뭘, 집에 없다구... 그래 어디엘 갔나말이야?》

《우리도 간 곳을 몰라 찾는중이요.》

《제자식 행처도 모른다니 말이 되는가.》

《그걸 알면 무슨 걱정을 하겠소.》

준도는 시종 태연자약했다.

남편의 그런 거동이 임숙의 긴장감을 한결 늦추어주었다.

형사는 가택수색을 하겠노라 엄포를 놓으며 무턱대고 집안으로 뛰어들었다.

임숙은 남편의 뒤를 조용히 따라나섰다.

형사는 이방저방을 살핀후 명찬이의 책장을 발각 뒤지기 시작했다.

어느덧 방바닥이 온통 책과 학습장으로 널렸다.

한동안 부산을 피우며 돌아치던 형사는 별로 눈에 거슬리는게 없던지 손을 털더니 준도를 향해 얼굴을 들었다.

《그놈이 돌아오면 지체없이 신고하오. 그렇지 않다간 이 집의 운명이 어찌 되리란걸 구태여 말안해도 알테지!》

형사는 눈을 부라리며 으름장을 놓고나서 집에서 물러났다.

다음다음날이었다.

퇴근시간도 아닌 한낮에 남편이 불쑥 집에 나타났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임숙은 빨래를 걸어들이던 손길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이 유난스레 느껴졌다. 준도는 대문밖을 한번 살핀 다음 안해에게 소식을 일렸다.

《여보, 이제 곧 수원에 다녀와야 하겠소.》

임숙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어리둥절해졌다.

《거긴 왜요?》

《가면 알게 되오. 성호가 역에 나와 기다리겠다고 했소. 명찬이가 당신을 부르오.》

《그에가요?!...》

창황중에 일인지라 임숙은 다소 놀랐다.

준도는 점심때 성호로부터 전화가 온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나서 그는 안주머니에서 손바닥보다 작은 납작한 약박을 꺼냈다. 알락달락한 빛갈로 약광고가 붙어있는 작은 박을 이리저리 돌려보던 그는 가방에서 꺼낸 봉합염서로 싸서 안해의 손에 쥐여주며 진중한 어조로 당부하였다.

《이걸 몸에 잘 간수해두었다가 명찬이에게 전하오. 우리가 합심하여 그애들을 잘 도와주도록 합시다.》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의미심장하게 울리며 임숙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는 두눈을 빛내며 그 당부를 선뜻 받아들였다.

혹시 명찬이가 외지에서 숙식을 소홀히 하다가 앓지나 앓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 근심이 가득 어린 눈길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그 역시 안해의 심기를 인차 눈치챌듯했으나 안심시키려는듯 부드러운 미소를 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마오. 만나보면 알겠지만 명찬이는 건강할게요.》

《아니, 그럼 이 약은?》

《가져다주면 알게 될게요.》

임숙은 오리무중속에 빠졌지만 더 캐여물을수가 없었다. 오히려 자기만이 따돌림을 당하고있다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사뭇 개운하였다.

그렇던 아들을 만나게 될 기쁨을 안고 임숙은 서둘러 나들이차비를 하였다.

해가 설핏할무렵에야 기차는 수원역에 당도했다. 아닐세라 성호가 개찰구밖에서 기다리고있었다.

《어머니,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성호는 그의 손짐을 받아들고 뺨스정류소를 향해 앞서 걸어갔다. 임숙은 말없이 뒤따랐다.

이제 사십리길을 가야 할, 성호가 사는 마을은 임숙이 처음 밟아보는 낯선 고장이다.

뺨스는 어슬막에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떠났다.

차창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시원하였다.

뺨스는 들을 지나 강을 건너 험한 산길을 에돌며 한참 달리던 끝에 한적한 촌거리에 닿았다.

《어머니, 내립시다.》

성호의 재촉에 임숙은 몸을 일으켰다.

드디어 왔구나하는 기대를 품고 차에서 내렸으나 막상 목적지까지는 시오리를 더 걸어가야 한

다고 하였다. 성호네 마을은 것처럼 교통마저 불편한 벽촌이었던것이다.

임숙은 초생달의 으스스한 빛이 흐르는 호젓한 길을 성호와 나란히 하여 걸어갔다.

성호는 길을 가면서 이것저것 많은것을 들려주었다.

김영삼반역도당의 농축산물시장개방을 반대하여 전국각지의 농민들이 《우리 쌀 지키자!》라는 구호를 들고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가난과 주림이 류행병처럼 도시와 농어촌을 휩쓸고있다.

세상사가 갈수록 험해져가는 이 저주로운 판국과 판가리하려고 지금 젊은이들이 단단히 버르고 있다는 등등... 성호는 의문에 차서 이야기하였다.

임숙은 그의 말에 모두 공감이 갔다. 하나도 그른데가 없었다. 이 땅에 사는 어머니들의 처지만봐도 그랬다. 자식들의 일로 얼마나 가슴 드달기며 한시인들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지 않는가. 하기에 의로운 젊은이들이 임당한 현실을 외면하고 어찌 참고만 있을수 있단말인가. 참으로 더는 그대로는 살수 없었다.

임숙은 깊은 생각에 잠겨 걸었다.

반디불같은 불빛이 멀리서 가물가물 바라보이는 야산머루에 이르렀을 때 성호가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 다 왔습니다. 저 마을입니다. 피곤하시지요.》

《아니 조금도...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소.》

임숙은 선뜻 대답하며 걸어온 길을 새삼스럽게 뒤돌아보았다. 명찬이가 걸었을 그 길을 밟으며 왔다는것이 문득 돌이켜지면서 이름할수 없는 애뜻한 정이 온몸을 감쌌다.

성호네 집은 마을의 뒤산자락에 홀로 오붓이 붙어있었다. 울바자가 온통 당콩넝쿨에 휘감기여 지붕마루가 달빛의 음영속에서 겨우 가려보였다.

임숙을 제일먼저 맞아준것은 성호의 어머니였다. 그 녀인은 이미부터 나와 기다리고있었던듯 자기 집 울바자밖 터발머리에 서있다가 쟁걸음으로 다가와 몹시 반겨주었다.

《먼 밤길을 수고했어요.》

임숙은 처음 대하는 성호 어머니의 손을 뜨거이 잡으며 감사의 인사부터 차렸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명찬이가 빈번히 폐만 끼쳐서...》

《무슨 그런 말씀을... 어서 들어가자요.》

그 녀인은 상냥하게 응대하며 임숙의 손목을 잡고 이끌었다.

오십나이도 췌 넘긴상실은 성호 어머니는 서글서글하고 수더분해보였다.

임숙은 허물없이 친절히 대해주는 그가 췌 마음에 들었다.

먼저 집안으로 들어갔는지 성호는 곁에 없었다.

두 녀인이 대문안으로 막 들어서는데 앞에서 누군가 뛰쳐나오는 소리가 났다.

임숙은 그 발걸음소리가 몹시 귀에 익어 찬찬히 앞을 살폈다.

명찬이었다. 임숙은 굳어진듯 못박혀있다.

《어머니,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어요!》

명찬은 어머니의 두손을 모두어잡으며 싱긋 웃음지었다.

순간 임숙은 눈시울이 뜨끔해났다.

얼마나 보고싶던 자식의 그 미소였던가!

《명찬아...》

임숙은 나직이 부르짖으며 아들을 두팔로 열썩 안았다.

에타게 기다려온 자식과의 상봉은 어머니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임숙은 말없이 한동안 아들을 훑어보았다. 그 새 좀 수척해진듯하나 예전의 발랄한 모습 그대로였다.

《여기라도 좀...》 하며 앞에서 성호 어머니가 퇴마루를 가리키며 말하고나서 서둘러 밖으로 나간다.

임숙은 너인을 멈춰세우려 하였으나 어느새 그는 대문밖으로 사라졌다. 곁에서 명찬이가 속삭였다.

《성호 어머님은 우릴 위해 아까부터 망을 보고 계세요.》

《망을?...》

임숙은 충동이 컸다. 촌아낙네까지도 의로움을 지켜나서고있는것을 느꼈을 때 한층 생각이 깊어졌다.

《아버님은 건강하세요?》

명찬은 어머니를 퇴마루에 앉히며 조용히 물었다.

임숙은 아들과 나란히 자리를 같이하였다.

토방에 여러컬레의 신발이 널려있었다. 방안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울린다.

《응, 잘 계셔...》 하고 임숙은 대꾸하며 지금 여기서 《뜻있는 일》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남편이 보낸 편지와 약박을 품에서 꺼내어 명찬이의 손에 쥐여주었다.

《아버지가 전하는거다.》

《고마워요.》

명찬은 얼른 봉합을 뜯어보았다.

달빛이 어린 아들의 얼굴이 금시 타는듯 홍조가 비껴갔다. 무슨 사연이 적혀있기에 저렇듯 흥에 띄어있는것일까?

임숙은 저이기 호기심이 동했다.

《어머니, 우리 이걸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어머니, 우리가 그렇게 알고싶어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강의테프예요.》

《영? 그래 아버지가 무어라 말씀하셨니?》

《아버지의 편지를 이제 우리 동무들과 함께 읽겠어요. 여기서 망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명찬은 이렇게 말하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퇴마루를 올라서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금 명찬이 망을 보라고 한 말이 생각키워 임숙은 어지간히 긴장해서 주변을 살피며 바깥동정에 온 정신을 쏟았다.

아들이 선뜻 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주는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기뻐다. 낮에 집을 떠나기 앞서 남편은 무어라고 당부했던가.

임숙의 부푼 심정을 키질하듯 이때 방안에서 명찬이의 음성이 포박포박 울려왔다.

《...회원동지들, 오늘 이자리를 빌어 저의 부친이 우리를 격려하여 보내준 편지를 먼저 공개할 것입니다.》

금시 그에 동의하는 응성거림이 일었다.

임숙은 앞을 열심히 주시하며 한편 방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새 시대를 개척할 일념으로 용감히 나아가는 전위투사들을 축하합니다.》

나를 비롯한 세칭 기성세대가 지난날 하나의 뚜렷한 지도리념을 내걸고 대중을 옹운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문민>을 표방하는 지배자들은 아주 교만해졌으며 국민을 얕보고 우롱하면서 정의를 마구 짓밟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엄혹한 파썸의 동토지대로 화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흘린 피의 대가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투쟁의 방향타를 틀어쥔 전위들에 의해 이 땅위에 머지 않아 통일조국의 려명을 안아오리라 확신합니다.

부디 회세의 영걸이신 **김정일**령도자님의 민중중시의 위대한 주체철학사상을 받들어 굳건히 전진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향도성을 우러러 따르는 그 길의 동반자가 될것을 다짐하고있습니다. ...》

임숙은 방안에서 울리는 박수소리에 튕겨오르듯 퇴마루에서 몸을 솟구었다.

(부모들이 다하지 못한 일을 젊은이들이 맡아나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임숙의 심사는 한껏 부풀어올랐다.

4.19의 용사들과 6.3의 항쟁자들, 팡주의 련사들이 흘린 피, 기성세대들의 그 준엄한 교훈에서 새 세대가 찾은 길이 어떤것인지 석연히 알게 되었다.

정녕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임숙은 남편과 더불어 어깨를 같이하고 가리라는 소명의식에 눈을 빛내었다. 력사란것이 무엇인가 어렵듯이 깨달았다. 명찬이가 한가정의 아들만이 아닌 민족의 아들이라는 뿌듯한 마음이 갈마들자 문득 올 정초 《자》 일간지가 수집회에 걸쳐 련재한 친애하는 **김정일**령도자님에 대한 찬양기사의 글말들이 되살아올랐다.

그 기사를 다 읽고나서 남편은 크나큰 감동에 젖은 어조로 말하지 않았던가.

《이남민중들은 근 반세기동안 미국의 예속정치 하에서 모진 수난을 겪어오는 과정에 참다운 민주정치와 조국통일대업은 오직 위대한 지도사상을 펼쳐가는 민족의 령도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러한 민족의 령도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뜻을 이어 이복을 민중복락이 활짝 꽃피는 사회로 빛내이시는 김정일령도자님이시오. 우리도 그이의 손길을 따를 때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있소.》

임숙은 그 력사의 흐름에 온 가족이 합류하고 있음을 긍지높이 자부하며 성큼 토방을 내려섰다. 순간 달빛에 번쩍 빛을 발산하는것이 있어 그는 얼굴을 들어 부지런히 앞을 살폈다.

울설에 실하게 자란 해바라기가 서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임숙의 발길은 저절로 거기에 쏠렸다.

그때였다. 방안에서 여럿이 어울려 부르는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갈라진 조국의 아픔안고
민족의 혈맥을 이어주시는
통일의 향도성 김정일동지
우리는 당신만을 따릅니다...

절절한 경모와 신념의 분출인듯 노래소리는 달빛어린 마당으로 조용히 흘러나와 별이 총총한 하늘에 은은한 여운을 그으며 퍼져나갔다.

그 울림에 온 심혼을 받들리운채 임숙의 발길은 어느새 해바라기의 곁에 가있었다.

그것들은 자기네 집의것과 똑같이 실하고 청청하였다. 넓적하고 푸른 잎을 살랑거리며 금시 금빛송이를 쳐들듯이 희여스름한 뒤등을 내밀고 꽃잎이 솟아있는 꽃을 바라보는 임숙의 감흥은 유달리 크고 새로웠다.

해바라기의 그 굳은 절조처럼 이 땅에 반공의 철막이 무겁게 드리워있어도 광명한 진리의 빛을 안고 애오라지 태양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얼마인가! 진정 민심은 천심이라고 해살을 가리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세대도 통일을 웨치며 거리와 교정에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던가. 하지만 옳바른 지도리념, 투쟁방향이 없었던것으로 하여 학우들의 의로운 뜻이 락화처럼 스러졌다.

하지만 김정일선생님께서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한 투쟁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온 겨레가 오직 김정일선생님만을 믿고 그이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나갈 때 우리 민족의 휘황한 래일도 약속되어있는것이 아닌가. 이 성스러운투쟁의 대오에 아들과 남편만이 아닌 나도 함께 떨쳐나서야한다. ...

임숙의 생각은 절로 깊어졌다.

《어머니.》 하는 소리에 임숙은 돌아섰다.

방에서 나온 명찬이가 퇴마루를 내려서고있었다.

임숙은 그에게로 다가가서 어느때없이 크게 뜬 눈길을 쏘으며 아들을 대했다.

《어머니,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명찬은 아이들처럼 재롱기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원, 애도. 무슨 그런 소릴...》

임숙은 중얼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직하나 힘있는 어조로 뒤를 이었다.

《아버지도 편지에서 당부하셨지만 남자가 뜻을 품었으면 용기를 가다듬고 나가거라. 네가 전에 교정에서 성토했듯이 동해물과 백두산처럼 푸르고 굳센 마음으로 말이다.》

임숙의 목소리에는 크나큰 정애와 소망이 마디마디에 어려있었다.

《어머니, 명심하겠어요.》

《그래 내가 도울 일은 없겠니?》

명찬은 어머니의 손을 부르짖며 싱긋 웃었다.

자식이 가는 길을 이렇듯 받들어주는 어머니가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행복하였다.

《고마워요.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힘이 됩니다.》

임숙은 어려서부터 즐겁거나 기쁠 때 곧잘 피어나곤하던 아들의 그 미소를 정겨이 바라보며 명찬이의 손을 꼭 잡은채 오래도록 놓을줄 몰랐다.

아들의 장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서 어머니는 창창한 미래를 가슴 그들먹이 받아안으며 눈시울을 붉게 태우면서 하늘을 우러렸다.

하늘에는 수억만 별무리속에서 유독 북두칠성이 찬연한 빛을 뿜으며 반짝이고있었다.

임숙은 새 생활의 철리를 깨달은이상 자기도 의로운 일을 위해 심신을 바쳐야 한다는 각오가 새로와졌다. 그는 늦게나마 아들을 도와야 하겠다는 충동으로 명찬이네가 있는 방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나의 새 이름

최진이

아기엄마 나에게
새 이름이 생겼습니다
아기를 안고 어디든지 가며는
사람들은 저마다 아기의 이름으로
나를 찾습니다 나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귀에 실어 서먹하던 이름
들을수록 정이 들어
어느새
내 이름처럼 친숙해진 부름

아침이면 그 이름 기다려
탁아소보육원의 얼굴은
그리도 밝습니다
저녁이면 그 이름 부르며
하얀 위생복차림의 너의사는
늦은 저녁 내 집문을 들어섭니다

아기를 안고 뺨스에 오른 나에게
앉았던 자리 내여주며
서로가 쏟아놓는 아기칭찬은

엄마에게 수여하는 그 무슨 표창인듯
손님들은 나에게
그 어떤 귀한 뜻 속삭여주는듯

가닥가닥 쏟아지는 금빛 해살을
단풍잎같은 아기의 두손을 모아
하염없이 받아봅니다
맑은 이슬 구슬로 맺힌 잔디잎을 뜯어
앵두빛 두볼을 간지럽히며
복스런 그 이름 몇번이고 불러봅니다

이 땅에 나를
더 깊숙이 뿌리내리게 한 이름
내 마음속 사랑의 불
더욱 뜨겁게 한 이름

오, 잠결에도 미소짓고 불러보는
아기의 이름— 내 이름은
어머니조국이 너성인 나에게
보물로 안겨준 사랑입니다
행복의 노래입니다

푸른 봄비

박경심

속삭이네 소곤소곤 내가 왔다고
두드리네 후둑후둑 내가 왔다고
마른 나무 우듬지에 나의 집 창가에
오네 오네 봄비가 오네

이밤을 기다린듯 온밤 내리쬐듯
가로등불빛아래 드리 운 봄비
실실이 푸르른 오리오리에
겨우내 못나눈 사연품은듯

기지개를 켜며 땅이 부푸는 소리
꽃나무아지들엔 봄물 오르리
죽순처럼 뿔상모 자라오르는 소리
방천의 송아지 풀을 뜯으리

입술을 감쌀며 모금모금
어머니젖을 파는 아기인양

단가슴 식히며 한방울도 농칠세라
대지는 달게 들이마셔라 봄하늘 약비

류달리 시련에 찬 겨울이었어도
시들지 않은 생이 더욱 아름다워
이 땅에 숨쉬는 불굴한 넋을 향해
자연이 고르는 찬사의 선률인가

정다워라 봄비오는 소리
행복의 꽃방울 피어나는 소리
약동하는 새 삶이 깃을 치는 소리
기름지고 풍요해질 내 조국의 래일이
마주오는 소리, 손저어 부르는 소리
속삭이네 소곤소곤 내가 왔다고
두드리네 후둑후둑 내가 왔다고
이 봄의 첫 손님 꿈가득 신고와
온 밤 내 마음 푸르게 적셔주네

인물의 성격형상에서 랑만성구현을 두고

정희

퇴근길이지만 나의 발걸음은 대동강유보도로 향해졌다. 실실이 내리드러운 버들잎사이를 거닐며 사색하기를 나는 무척 즐겨한다. 더우기 방금 전에 우리 문학에서 인물성격형상에서의 랑만성구현문제를 놓고 지도교원과 진지하게 토론하던 것이 긴 여운을 안고 나의 사색을 그리로 몰아가고있었던 것이다.

성격형상에서 랑만성구현, 이것은 비단 오늘날에 와서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 그 자체는 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바로 그 과정에 예상치 않은 애로와 난관이 수없이 제기된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자면 혁명위업에 대한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에 넘쳐 노래와 웃음으로 만찬을 극복해나가는 랑만적인 성격들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미학상의 문제였다.

하기에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혁명선열들의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 용기백배한 승리자의 혁명적랑만의 기개는 그대로 우리 문학에 구현되어왔다.

성격형상에서의 랑만성구현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여나가는 현시기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적 책동으로부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간고한 투쟁은 모든 난관과 시련을 웃으며 맞받아 뚫고나가는 현시대 인간들의 생활을 그려 사람들을 락관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견지에서 놓고볼 때 이미 창작된 장편소설 《먼길》, 《탄생하는 계절》, 《청춘송가》, 《높은 목표》, 중편소설 《불꽃》은 오늘도 시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지 않는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들이 자라나는곳에는 언제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며 혁명적랑만이 흘러 넘치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이 있는것이다.》

소설에 형상된 주인공들은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당과 수령이 바라는것이라면 연구과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투철한 과학적신념과 강의한 의지,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과학의 요새를 점령해나가는 혁명적락관주의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의 혁명적락관주의는 그들의 리상과 포부, 성공에 대한 신심과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할줄모르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 미래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확고한 의지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혁명적랑만성은 아름다운 희망과 원대한 리상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리상도 포부도 없는 생활, 하루하루 무위도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생활은 부르조아적생활-동물적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리상을 찾고 그 길에서 자기의 희망과 꿈을 꽃피워나가려는 값높은 인생관, 값높은 행복관을 소유한 사람만이 온갖 낯은 사상을 짓부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주저와 동요없이 전진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리상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적인간, 창조적인간의 전형을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은 매우 중요한 미학상의 문제로 제기된다.

소설에 그려진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조국을 더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높은 뜻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지니고 투쟁하는 청춘들이다.

장편소설 《높은 목표》의 주인공인 청년기공장 신신석의 리상은 참으로 웅대하다. 그는 하루빨리 최첨단기술을 개척하여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 높은 리상을 안고 그 실현을 자기 삶의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미더운 청년기술자이다. 그의 가슴에는 오직 기계바다 설레이는 조국의 휘황한 미래만이 가득차있다.

장편소설 《념원》의 주인공 강정수의 리상역시 얼마나 찬란한가.

이들의 꿈과 리상은 개인의 명예와는 인연이 없는 참다운 조국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것으로서 더욱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이다.

이렇듯 소설문학은 주인공들의 성격에 체현된 원대한 리상 크나큰 포부, 아름다운 희망을 통해 혁명적랑만성을 풍부히 구현하였다.

랑만성은 현실에 대한 열렬한 긍정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자기가 수행하고있는 혁명위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이라는것을 확신할 때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참가하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혁명적량만성은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된다.

주체의 인생관을 지닌 사람들은 패기와 열정에 넘쳐있으며 미래에 대한 량만으로 가슴들먹인다. 그들은 보다 아름다울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고 귀중히 여기기에 그것을 위해 자기 희생도 서슴지 않는것이다.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의 류연이나 《청춘송가》의 진호의 형상이 감동적으로 안겨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격, 즉 미래에 대한 지향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시련도 고난도 웃으며 맞받아나가는 량만적인간들로 묘사되었기때문이다.

땅개암이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하나 둘 다 떠나가고 한산한 여울목에 홀로 남은 서른살의 처녀 류연이.

땅개암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고 고집불통, 공명주의가 등으로 류연이의 깨긋한 량심을 모욕하는 리기주의자 로명수에 의하여 류연이는 험난한 과학의 길을 뚫는것에 비할바없는 더 심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그들은 류연이에게 시험용표전도 주지 않으며 수년세월 청춘도 사랑도 깡그리 바쳐 연구한 류연이의 귀중한 연구성과를 부정해버린다.

추호의 양보없이 앞을 막는 땅개암의 비밀, 류연이의 연구를 의심하고 그를 비난하는 편협한 일군들의 압력, 사랑하는 애인과의 결별, 이 모든것은 신념이 굳세지 못하고 의지가 나약한 과학자는 뚫고나갈수 없는 난관과 시련인것이다.

그러나 류연이는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두고 근심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오직 하나의 일념안고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나간다.

아직 땅개암이 성공할 가능성이 부족한속에서도 수확기시험에서 땅개암과 돌을 구별할수 있게 밭에서 자꾸만 돌을 주어내는 류연이에게 그의 조수 은옥은 정말로 땅개암연구가 성공할수 있는가고 묻는다.

《성공하지 않음, 꼭 성공해! 과학연구에서두 성과를 좌우하는것은 자기의 지향에 대한 확신이고 열정이야. 우리가 성의를 쏟아붓기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해!》

바로 이런 확신, 이런 정열이 있었기에 오직 땅개암을 위해 류연이는 청춘도 사랑도 깡그리 바칠수 있었으며 애인과 결별한 뼈아픈 피로움속에서도, 끝없이 계속되는 실패의 쓰디쓴 눈물속에서도 성공의 그날을 위하여 꺾이지 않고 달려올수 있었던것이다.

장편소설 《높은 목표》의 정신애와 《청춘송가》의 정아 형상이 그토록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긴 여운을 남기는것도 성격형상의 짙은 량만성에 있다.

정신애는 언제나 탐구적흥분속에서 삶의 희열을 느낄줄 아는 정열적이고 다감한 처녀, 수년세월 티탄연구에서 실패가 거듭되어도 비판과 락심을 모르고 성공만을 락관하며 살아가는 처녀이다.

자기를 공학자로 키워준 어머니당의 믿음에 탐구의 큰 열매로 보답할 굳센 의지를 지닌 신애였기에 특수금속개발의 최첨단기술을 정복해나가는 투쟁과정에 독가스마당에도 주저없이 들어설수 있었으며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순간에도 티탄의 연구성과를 두고 그리도 환희에 넘쳐있는 것이다.

건강을 넘려하는 의사 옥린정에게 《선생님, 전 오늘 죽어도 별로 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길에서 자기가 정한 목표에 이르면 마음이 놓이는 법입니다. 어제밤 실험에서 완전성공한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행복의 웃음을 짓는 신애, 이 장면에는 참된 과학자만이 안을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락관주의정신이 집중적으로 울려나오고있다. 이러한 그이기에 연약하고 파리하고 초강초강 마른 신애가 아니라 티탄마냥 호락호락 굵어들이 않는 신애로 이악하고 의지가 강하고 언제나 탐구적흥분으로 뛸뛰는 처녀로,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자기의 한몸을 깡그리 바쳐가는 사랑스러운 처녀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있는것이다.

언제 생의 고통을 멈출지 알수 없는 악화된 병마속에서도 십여년세월 고심과 정열을 쏟아 길들인 티탄을 가지고 자기의 연구성과를 확대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신애의 모습은 얼마나 량만적인가.

작가는 그의 량만성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연약하고 독가스로 인하여 초강초강 마른 신애의 모습을 강조한 다음 그런 처녀가 세계의 그 누구도 불굴의 신이라며 굽히지 못한 티탄을 길들인 거인적인 모습으로 대조시켜 묘사하였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당과 수령이 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과학자라야 성공의 래일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나갈수 있고 수천번거듭되는 실패도, 고심참담한 시련도 웃으며 넘을수 있다는 진리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이렇듯 소설문학은 자기의 연구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량만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인 청년과학자생동하게 그려내었다.

기술자들을 생동하게 그려내었다.

혁명적량만성은 미래에 대한 지향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은 오늘을 위해서만 사는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래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는 자주적인간이기때문이다.

소설에 형성된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룩

한 성과에 도취되어 만족과 기쁨에 잠겨있는것이 아니라 끝없는 전진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진정한 랑만의 소유자들이다.

화학공장이 다 완공되어 또다시 조국의 새 지점으로 옮겨가게 되건만 여기서 살 사람들의 보다 아름답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 백사장에 해당화를 심자고 속삭이는 중편소설 《불꽃》의 강호와 순정이.

《순정이, 우린 그 해당화가 자라서 만발하게 피워올린 꽃들을 즐기지 못한채 또다시 새 지점으로 가야 할거요. 우리들이 옮긴 해당화의 영원한 주인공들은 공장을 돌리러 오는 사람들이지. 그래, 섭섭하지 않겠어?》

《거기서도 붉은 꽃들을 또 심어야지요!》

《그래, 온 조국땅을 붉은 꽃들로 수놓아가자구.》

바로 여기에 집단을 위하여 자기들의 땀방울을 바치는것을 삶의 기쁨으로 간주하는 강호와 순정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깃들어있으며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주체시대 청년들의 무한대한 열정과 랑만이 어려있는것이다.

이렇듯 소설문학은 오늘을 위해서만 사는것이 아니라 희망찬 래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는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의 청년의 랑만, 혁명적랑만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우리 문학에 그려진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랑만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을 확신한데서 생겨난것이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받들어가는 충성심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랑만성은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삶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미래를 담보하여주는 주체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인된다.

아무리 꿈과 리상이 크고 아름답다해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이 없으면 리상과 꿈은 한갓 공상으로 남게 되지만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서는 청년들이 20대, 30대에 박사, 학사가 될 원대한 리

상과 포부를 지니고 살며 일할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청년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가는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의 락천적인 생활은 작품에 등장하는 긍정인물들의 성격에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는 풍부한 형상원천으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청년 과학자, 기술자 형상소설문학은 그들의 중요한 성격적특질의 하나인 혁명적랑만성을 통하여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투쟁하는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승리의 기세드높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가는곳마다 랑만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다.

협동농장벌에도 용해장에도 막장에도 풍어기날리는 포구에도 조국의 방선에도 랑만의 노래울려 퍼진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당이 준 명령을 어김없이 수행한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그영웅적기개, 혁명적랑만은 우리 창작가들에게 끝없는 창작적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나는 창작가들에게 말하고싶다.

우리모두 혁명의 필봉을 추켜들고 혁명적랑만으로 차넘치는 현실에 적극 뛰어들어 만난을 극복하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담은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고.

나의 발걸음은 어느덧 밤하늘을 대낮같이 밝히며 황황히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에 이르렀다.

저 봉화 역시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적랑관에 넘쳐 공산주의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조선의 뭉이 아니겠는가.

네온등이 명멸하는 수도의 거리로 궤도전차가 정다운 종소리를 울리며 오고간다.

생활의 아름다운 노래를 가득 싣고 더욱 찬란할 미래를 향하여 끝없이 간다.

아름다운 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1998년 9월 9일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국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변이었다.

우리 인민은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으로써 마침내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빛나게 수행하면서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인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문학축전을 조직한다.

공화국창건 5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은 종전의 문학축전들과는 달리 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수 있는 기동적인 문학형식과 혁명적주제를 요구하는것을 비롯한 그 조직형식과 방법을 새롭게 하여 보다 전투적이면서도 특색있게 진행한다.

1. 전국문학축전작품의 종류

△ 소설문학

단편소설, 실화문학, 수필, 기행, 기타 예술산문

△ 시문학

서사시, 서정서사시, 서정시, 장시, 가사

△ 아동문학

단편소설, 단편동화, 우화, 서정서사시, 동요, 동시, 아동가사

△ 극문학

단막희곡, 단편텔레비죤극

△ 가극문학

단막가극대본

△ 문학평론

평론, 단평, 론설

이밖에 전국문학축전작품에는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주체문학론》**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문예리론을 구현한 과학환상소설, 지능소설, 운문소설, 경회극, 풍자극, 아동극, 정론시, 담시, 단시, 풍경시, 풍자시 등 다양한 형식과 양상의 작품들도 포함시킨다.

2. 전국문학축전작품의 주제

- 1)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여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주제로 한 작품.
- 2)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공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일가분들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활동을 주제로한 작품.
- 3) 붉은기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 4)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 5) 《고난의 행군》정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토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키며 인민생활문제를 주인답게 풀어나가는 오늘날의 충신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 6)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가지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수뇌부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 위훈과 온 사회에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주제로 한 작품.
- 7)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청년학생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을 주제로한 작품.
- 8)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미풍선구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도를 주제로 한 작품.

- 9)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
- 10)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식민지파썸통치와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거족적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 11) 우리 당의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과 역사적인 《평양선언》의 위대한 생활력을 주제로 한 작품.
- 12)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싸우며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한 선조들의 슬기로운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이밖에 전국문학축전작품의 주제에는 문학축전기간에 새롭게 제시되는 당과 수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구현한 주제들도 포함시킨다.

3. 전국문학축전기간에 조직하는 다양한 사업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국문학축전기간 창작기관들과 동맹산하 모든 문학분과위원회, 도위원회, 초급단체들에서 작가들을 사회주의강행군을 다그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파견하며 정치선전과 경제선동, 시랑송모임, 벽시전시회, 문학의 밤, 독자들과의 상봉모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벌려 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고무하며 문학축전에 대한 사회적관심성도 높이도록 한다.

4. 전국문학축전참가자격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모든 현역 및 현직맹원들과 후보맹원 (해외에 있는 맹원들도 포함)들은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5. 전국문학축전작품을 보낼곳

평양시 대동강구역 대학거리 의암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 전국문학축전작품원고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통신으로도 보내되 우편통신으로 보내는 경우 반드시 봉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작품》이라고 밝히며 봉투안에 작가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직장직위를 적은 별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전국문학축전기간과 전국문학축전총화사업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와 문학예술종합출판사의 공동주최로 1997년 4월 15일부터 1998년 9월 9일까지 진행하며 전국문학축전작품은 1997년 4월 15일부터 1998년 7월 30일까지 접수한다.

※ 전국문학축전에 투고된 모든 작품원고는 반환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전국문학축전작품들가운데서 우수한 작품들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전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를 비롯한 출판물들에 발표하며 특히 훌륭한 가사와 극작품들은 곡을 붙이거나 무대 및 텔레비존에 형상한다.
- 3) 전국문학축전작품심사 결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기념일인 1998년 9월 9일을 계기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들과 중앙의 신문, 소리방송들을 통하여 발표하며 입선작품들에 대하여서는 상장수여를 비롯한 해당한 시상을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년 4월 1일

고백

림성희

솔직히 고백하면
사나이가 되었으면 했네
더 솔직히 고백하면
아버지가 군인인 나에게
군인의 무쌍한 기질과 용맹을 타고난
사나이가 되었으면 했네

밤동산 그늘이 언제나 서늘한
초소마을 산골에서 소꿉시절 보낼적에
종다래끼 옆에 끼고 이삭짓는 처녀애들보다
아지많은 밤나무 장대로 휘둘러대는
총각애들속에 묻혀있길 더 즐거웠네

꼬마토끼사양공으로 칭찬받던 그날에도
잔풀 뜯는 시내가 기슭보다는
넝쿨 덮인 뒤산의 칙향기에 더 끌려
드세찬 총각애들과 어울리길 좋아했네

아침저녁 늘 보는 아버지의 군복은
내 희망 움트게 한 그것 아닌가
어머니가 들려준 너장수 이야기마저
사춘기 내 꿈을 둔장질했네
비행기며 땅크랑 지축을 흔들던 열병식날엔
기어이 총잡은 병사가 되리라 다짐했네

그 포부로
고사포신 높이 들린 전호가에 썼건만
아직 민망스런 미련은
마음 한구석에 쪼각으로 남아

전연초소 군인들이 부럽기도 했네
하나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해변가 우리 초소에 찾아오신 날
처녀로 태어난게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우리의 혼련모습
소박한 오락회도 보아주시며
다정히 이 어깨도 두드려주실 때
나처럼 행복한 처녀 또 있었던가

해저문 노을속에 장군님은 가셨어도
그 사랑 약크림되어
언제나 내 손목 따뜻이 감싸주시니
이젠 정말 원할게 하나도 없네

사나이가 되었으면... 할 때마다
별빛같은 감장눈 밑게만 흘기던
유년시절 나의 동무들에게
말하고싶네
처녀로 태어난 나는 행운아라고

나는 진정 고백하고싶네
소꿉친구 내 포래 사내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젠 정말 사나이 부럽지 않는
조국해안 지켜선 처녀대장부라고

나는 로동자

남원철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은 아니거만
조국이 안겨준 신성한 부름이어서
내 땀땀이 자부하며 이 아침도 되새겨본다
나는 로동자다

머리 높이 들고
활개치며 걷는 이 땅에서
날마다 샘솟는 희열을 안고
날마다 창조와 위훈을 마중가는 청춘
나는 로동자다
아침출근길 나선
많고많은 저 사람들모두

제나름의 사랑하는 일터가 있겠지만
그 어떤 직업에 결눈질해본적 없는
나는 로동자

조국을 지키는
총대를 쥐었던 손에
조국을 받드는
쇠장대를 힘있게 쥐고
이글거리는 보이라의 화실을 휘저을 때면

마치도
손끝으로 해덩이를 휘젓는듯

마음도 부풀더라
화실의 열도가 오를적에
가슴에 차오르던 흐뭇함이어

배관을 빠지는
증기의 거세찬 숨결
너를 기다리는 일터들에
창조의 메아리를 터쳐
혁신의 나래 한껏 퍼주는
나는 그 첫 기슭에 선 사람
그 숨결을 지켜선 사람

내 하는 일 아는지 많지 않아도
나는 그 공지를 안고 산다
조국을 위한 나의 성실성이
그대로 영예와 보람으로 안겨지는
당이 맡겨준 이 초소에서

나같이 근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시대 어느곳에서나
이렇듯 긍지높이 사는것이 아니여라
지난 세월과 다름없이 지구의 다른곳에서는

억눌리고 짓밟히며 수난받는 이름
가진것이란 맨주먹뿐이라는 노예라는 이름이건만

병사로부터 노동자로
내 자서전의 직업란에 써넣을
그 굴줄은 길지 않아도
그것은 내 나라 내 조국의
값높은 창조자의 이름

아,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아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사랑으로 펼쳐주신 하늘아래 사는
나는 조선의 로동계급

그 누가 물어보아
소박하고 수수한 직업이여도
그저 평범하게만 부를수 없는 노동자
사회주의 내 조국이 있어
창조의 마치로 새 세계를 창조하는
주인이라는 이름
나는 조선의 노동자다